

6-13-2005

한국교회와 현지교회의 협력 선교 전략: 제일성도교회 세계현지협 력선교회(NPWM)를 중심으로

Jin Soo Hwang 황진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황진수, "한국교회와 현지교회의 협력 선교 전략: 제일성도교회 세계현지협력선교회(NPWM)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COOPERATIVE MISSION STRATEGY FOR KOREAN AND NATIVE CHU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VE PARTNERS FOR WORLD MISSION' OF JEILSUNGDO CHURCH

written by

JIN SOO HWA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Young Shin Kim

Sunil Kim

Seyoon Kim

December 30, 2005

**A N EFFECTIVE COOPERATIVE MISSION STRATEGY
FOR KOREAN AND NATIVE CHU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VE PARTNERS
FOR WORLD MISSION’ OF JEILSUNGDO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IN SOO HWANG

DECEMBER 2005

한국교회와 현지교회의 협력 선교 전략:
제일성도교회 세계현지협력선교회(NPWM)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영 신 교수

황 진 수

2005년 12월

Abstract

An Effective Cooperative Mission Strategy for Korean and Native Chu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ve Partners for World Mission' of Jeilsungdo Church

Jin Soo Hwang

Doctor of Ministry

200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t is already recognized by the churches around the world that the overseas missions of Korean churches have been accomplishing such a record-breaking fruits due to their endeavor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since the beginning despite their relatively short history.

Considering mono-cultural background of Korea, its contribution to cross-cultural mission has been unexpectedly successful. However, Korean churches still need to be more active in building partnership in mission. Though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some efforts to build partnership, it cannot be denied that missions in Korea has been developed centered around denominational bases or bases of individual churches.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Korean churches is now facing a pivotal point where they are forced to correct the way they wast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on mission which are mainly caused by competition between the churches and double investment caused by lack of partnership. Thus Korean churches are forced to open the door for new theology and policies of mission and implement them.

Thus this thesis aims at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be corrected and endeavors to create more effective mission structures for Korean churches. To resolve the problems issued,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tting partnership with indigenous churches and introduces NPWM as an example.

In reality, the policies for setting partnership with indigenous churches of denominations and para-churches in Korea can be summarized into such phrases

as following: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churches and denominations in mission ministries, planting indigenous churches and its strategies and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indigenous people and churches. Most of the mission efforts are focused on developing leadership among the indigenous Christians. It is true that there are various ways to go about it. However managing seminary schools to build leadership or retraining the leaders have been the main focus of the partnership.

What come across as challenging now for building more effective partnership with the indigenous churches are as the following: leadership development, relinquishment of property rights, deliberate networking between Korean and indigenous mission centers. Many missionary organizations are already focusing on leadership development, which can be identified as very crucial for the indigenous churches to sustain by themselves. The first step to be taken to build more effective partnership with indigenous churches would be for Korean churches to create such structure where different mission centers are more open for partnership within itself.

As the most promising God-oriented mission strategy of 21st century, missions by, for and of the indigenous people can be suggested

Theological Mentors: Young Shin Kim, Ph. D.

Sunil Kim,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5:4-5)

1992년, 돌이켜보면 20여 년 동안 신림동 골짜기에서 쓰임 받던 부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발걸음을 옮겨 주셨고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흑암의 권세아래 있는 마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원들과 전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외침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이사야 57:18)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신실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늘어나는 선교 동역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현지협력선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현재 50여 교회 이상이 국내에서 동역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200여명이상의 현지인사역자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셔야 할 생명들을 다 찾으시고, 버릴 수 없는 성읍들을 다 찾으시기까지 한국교회가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다시금 선교중심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기까지 탁월한 강의와 해박한 사고로 지도해주신 김세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영신 박사님과 풀러 부원장이신 김태석 목사님, 논문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이현수 목사님과 이석환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일성도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일성도교회가 설립되는데 생전에 온전히 쓰임 받으셨고 지금의 우리 부부가 있기까지 목자요 영적인 아버지였던 고 스텐슨 목사님(Rev. Sternghorn)을 가슴으로 기억하며 더불어 하나님나라 확

장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의 나그네들을 묵묵히 섬기는 NPWM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목회와 선교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 김경자 사모와 늘 아비 된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나의 자녀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합니다.

2006년 2월 황진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선교의 정의와 선교구조의 양태	7
제 1 절 선교의 개념과 동기	7
1.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	8
2. 복음주의의 선교	9
3. 선교의 동기	10
제 2 절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	11
1. 교회 구조	13
2. 선교 구조	14
3. 두 구조와의 관계	15
제 3 절 선교 구조의 양태	16
1.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구조	17
2. 안디옥 교회의 선교 구조	19
3. 선교구조: 바울의 사도팀	22
4. 교회사에 나타난 선교구조	25
5. 위대한 세기의 선교구조	33
6. 비 서방 세계의 부흥	34
제 3 장 21세기의 선교적 상황 속에서의 선교구조의 재고	36
제 1 절 선교에 대한 도전들	36
1. 사회, 문화적 도전들	36
2. 선교에 대한 종교, 사상적 도전들	39
제 2 절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45

1. 세계화	45
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46
제 3 절 세계 선교의 동향	47
1.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	48
2. 기독교 21세기 운동	50
3. 10/40차)	51
제 4 절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52
1.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치	52
2. 한국교회의 선교 가능성	55
제 5 절 한국교회의 선교 구조의 문제점	59
1. 일반적 문제점	59
2. 지역(개)교회의 문제점	62
제 4 장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구조 도출	71
제 1 절 선교를 위한 교회 구조 갱신의 근거	71
제 2 절 선교 지향적 교회 구조	73
제 3 절 선교 요원을 육성하는 교회 구조-이분화의 극복	76
제 4 절 총체적 선교와 협력 사역 지향적 교회 구조	81
1. 총체적 선교	81
2. 협력 지향적인 교회 구조	83
제 5 장 대안적 선교전략으로서의 협력 선교	89
제 1 절 협력 선교의 개념과 성경적 의미	89
1. 협력 선교의 개념	89
2. 협력선교의 성경적 의미	92
제 2 절 협력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근거	101
1.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 협력	101
2. 삼위일체 선교와 그 연대성	103
3. 교회와 신학 그리고 선교의 상호성	105
제 3 절 협력선교 사역의 역사	108

1. 서양 선교 역사에 나타난 협력선교 사역	108
2. 한국 선교 역사에 나타난 협력선교 사역	109
제 4 절 현지교회 협력의 원리-자립선교원리	110
제 5 절 현지 협력선교의 형태 및 내용	111
제 6 절 선교사(단체)와 현지교회와의 협력관계 발달 단계	113
1. 해롤드 풀러-SIM International	113
2. 피터 와그너	114
3. 김정음	115
제 7 절 현지교회 협력에 있어서 나타나는 긴장요인들	116
제 6 장 협력선교의 모델로서의 세계협력현지선교회	118
제 1 절 선교전략으로서의 현지 협력 선교의 필요성	118
1. 교회의 선교적 사명 및 과업	118
2. 현지협력 선교의 필요성	120
제 2 절 NPWM의 설립과 사역	123
1. 현지협력선교의 설립과 변성	123
2. NPWM의 국가별 주요 사역	127
3. NPWM의 선교 정책의 특징	131
4. NPWM의 선발 및 파송 프로세스	133
5. NPWM의 현지 협력선교 모델사례	135
제 3 절 NPWM의 현지협력 선교 지원전략	137
제 4 절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에 관한 제안	139
제 7 장 결론	143
부록	146
참고문헌	150

Vita 157

표 목 차

<표 1> 사도행전 28장 구조와 요약	17
<표 2> 1971년과 1976년의 5년간 미국교회 교단선교의 통계	54
<표 3> 목회자의 선교 지도력과 선교의식(설문 1, 12 및 20번)	64
<표 4> 선교위원회(설문 7)	64
<표 5> 선교 전략-선교 정책(설문 8)	65
<표 6> 선교 전략-선교 목표(설문 9)	65
<표 7> 자극 1-선교 교육(설문 10)	66
<표 8> 자극 2-선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설문 11)	66
<표 9> 파송-모집/목양(설문 13)	67
<표 10> 파송-선교지에 대한 관심(설문 14)	68
<표 11> 지원-선교사에 대한 홍보, 기도(설문 15)	68
<표 12> 지원-국내 전도비를 제외한 교회의 선교 예산은?(설문 16)	68
<표 13> 선교사 파송(설문 17)	69
<표 14> 교회 성장과 선교와의 상관관계(설문 21)	69
<표 15> 나라별 현지인 선교사와 선교후보생 현황	127
<표 16> 네팔	127
<표 17> 말레이시아	128
<표 18> 미얀마	128
<표 19> 인도	129
<표 20> 인도네시아	129
<표 21> 중국	130
<표 22> 필리핀	130
<표 23> 캄보디아	13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서 심각한 과제 중 하나는 협력 선교(partnership)¹⁾의 문제이다. 반면에 초대 교회의 복음화 원리는 대명령과 성령을 받은 온 교회가 세상에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²⁾ 1950년 영국 선교신학자 맥스 워렌(Max Warren)은 그리스도교 선교는 개인, 그룹,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온전한 복지 사업을 개척하며, 하나님이 한 분임을 온 종족들과 온 사회에 선포하는 것으로 보았다.³⁾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2년이 된 한국교회는 1907년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파송해 복음을 전한 것에서부터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13년 동일 문화권 선교(ME 2) 형태의 중국 산동성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80여년의 해외 선교 기록을 가지고 있다.⁴⁾ 나아가 한국교회는 현재 10,000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여⁵⁾ 선교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선교 21세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의 선교 활동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 특히 두드러진 한 가지는 협력 사역에 관한 문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지 협력 선교'에

1) partnership에 대한 우리말 표현은 '동반자적 선교', '동역자 선교', '선교 협력'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협력 선교'로 제한하고자 한다.

2) John Stott,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VP, 1990).

3) Max Warren, *The Christian Mission* (SCM, 1950), 62, 55-102.

4)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13.

5) 강승삼, *선교행정과 전략* (강의안; 서울: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2005), 5.

관한 문제이다. 개별적인 선교활동 때문에 낭비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고, 추한 사태도 수없이 일어났고, 선교지의 교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다.⁶⁾ 이미 1991년 싱가포르에서 모인 '세계 한국 선교사대회'에서 현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 관계자들과 선교사들의 상호 협력 관계의 부족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대회의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⁷⁾ 한국교회는 교단의 독특성과 개인적인 독립성 때문에 협력 사역이 어떤 것보다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봉린은 한국교회 선교전략의 10계명을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는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주민 교회와 다른 해외 선교 단체들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 선교의 특징은 개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이 되어 왔으므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관할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의 선교 단체들과 선교지 선교사들 간의 연합운동을 일으켜 더 효과적인 선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협력 사역을 강조한 바 있다.⁸⁾

외국의 많은 선교 단체들의 활동을 볼 때 그들의 협력 사역은 실로 탁월하다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도 교회 밖에서의 선교 단체들에게서는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교단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는 소극적인 협력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협력 사역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선교 전략상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효과적인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는 협력과 협조가 전략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한 때이다.⁹⁾

21세기의 선교적 상황과 성경적인 선교전략에서 볼 때 협력 선교 사역은 빼놓을 수 없는 대안적 선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선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이 협력 선교 사역은 이미 14년 전에 '세계현지협력선교회'(이하 NPWM: Native Partners for World Mission)의 창설 배경이 되었고, 선교전략 면에서 아주 뚜렷한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협력선교(특히 현지

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교회의 비전과 협력* (서울: 햇불, 1993), 20.

7) 세계 한국선교사 '1991 싱가포르대회 선언문' 박종구, *세계선교 그 도전과 갈등* (서울: 신망애, 1994), 21.

8) 노봉린, "세계 선교현황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한국 교회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햇불, 1993), 53.

9) Ibid., 21.

협력선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앞으로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협력 선교 사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볼 때 선교구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대안으로 협력 선교 사역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선교전략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현지 협력선교 사역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먼저 정립하고 제일성도교회에서 시작되어 매우 탁월한 임상적 선교 성과를 거두고 있는 NPWM의 모델을 제시하여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선교신학적인 이론 정립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선교의 협력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단적으로는 타 교단뿐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와의 협력 선교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협력방안도 더 나아가서는 현지인이 목회하는 현지교회와의 협력 선교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협력 선교 사역은 선교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것이다. 협력선교 사역은 교단별로 파송된 각 선교사들이 타교단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 평신도 선교사, 지역 교회 지도자들 등 다양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자는 한 목표 아래 협력함으로써 선교 전략적으로 블루 오션(Blue Ocean) 선교 시대에서 레드 오션(Red Ocean) 선교 시대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때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나라의 모든 지교회들이 세계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협력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짧은 시간 안에 보다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선교 현실을 직시하면서 절대 다수의 지역 교회가 참으로 선교의 모판으로서 제 기능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적 구조가 요구되는 지도 밝히고자 한다. 결국 현재의 한국 교회 선교 현장을 파악하여 그 실상

을 분석해 본 후, 교회의 선교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발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당면한 선교적 과제를 직시하면서 파송 교회로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교 현장에 참여할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개 교회의 선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한국 교회의 선교적 문제점, 장애 요인 등을 분석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구조 갱신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장차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소망스러운 선교 구조를 찾아보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구조의 대안으로써 현지 협력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협력선교의 방법들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구조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교신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의 이론¹⁰⁾을 많이 참조하였으며,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개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교회의 선교 의식 및 개 교회의 선교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설문조사서는 미국의 ACH(Association of Church Mission Committee)가 고안한 것으로서 선교 월간지 *미션 월드*가 좋은 안내자가 되었음을 밝혀 둔다.

2장에서는 선교 개념, 동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 그리고 두 구조와 관계를 개략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선교 구조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며, 아울러서 교회사에 면면히 나타난 선교 구조의 모습은 시대별로 어떤 양태를 보여 왔는지를 점검하여 보았다.

3장에서는 오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도전들을 짚어 보고 분석함으로써 그 도전들이 계몽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화와 함께 기독교 선교의 위기로 작용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현대 선교의 협력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또 세계화란 거대한 시대 조류에서 요구되는 협력선교의 당

10) Ralph D. Winter, S. C. Hawthorne, eds, *The Two Structure of God's redemptive Missio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1).

위성을 확인해 보았다. 또한 세계선교의 동향을 알아보고,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선교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파악한 한국교회의 선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새롭게 요구되는 교회구조는 어떤 형태여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였다.

5장에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교회 선교구조의 하나로 이론적 틀로써 협력 선교에 대한 정의와 이의 기초인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의미들을 확인할 것이다. 오늘날 선교 신학자들의 협력 선교에 대한 정의와 사전적 의미가 주는 뜻과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한국 교회의 협력 선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협력선교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로써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정리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선포 속에 나타난 선교 협력의 중심 사상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의 신학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협력 선교에 대한 실천 덕목들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의 협력 선교를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력 선교에 대한 선교 신학적인 원리들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삼위일체 선교 신학이 지향하는 의미를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정리한 후, 통전적 선교 신학의 바탕에서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협력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신학 그리고 선교의 균형 잡힌 삼자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는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협력선교의 원리와 현대적 적용점을 알아 볼 것이다. 현지교회 협력의 원리인 '자립선교 원리'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틀로써 현지 협력선교의 형태와 내용을 평가한 후에 협력관계가 어떠한 발달단계를 거치는 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지교회 협력에 있어서 나타나는 긴장요인들에 관해서도 꼼꼼히 짚어 볼 것이고, 한국교회 선교의 모델링으로서의 서양선교와 초창기 한국선교사들의 협력선교 역사에 대하여도 정리해 볼 것이다.

6장에서는 현지 협력선교의 한 모델로서 한 지역교회(제일성도교회)가 중심으로 하여 발족한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역교회 연합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하여 현지협력선교 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선교지 확장과 선교사 양성, 신학교 설립 및 지원, 세계선교 센터 건립, 국내 및 현지선교사 파송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는

NPWM의 선교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21세기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협력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련 서적, 각종 통계, 보고서, 세미나 자료, 강의안 그리고 기타 자료를 이용한 문헌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며 본인의 선교 현장의 훈련 경험들을 참고할 것이다.

제 2 장

선교의 개념과 동기, 구조의 문제

‘선교’란 무엇인가? 현대 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리는 선교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 현황과 바람직한 선교 구조를 논하는데 있어서 그 전 이해로서 중요하다.

제 1 절 선교의 개념과 동기

선교의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건물과 같음으로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 사회는 저주받아 곧 멸망하게 되므로 사회 구조 개선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하나님은 역사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사회의 조화의 의미에서 샬롬(Shalom)-평화, 안녕의 건설에 있다”는 에큐메니칼 견해가 있다.¹¹⁾

‘선교’, 즉 케리그마(Kerygma)의 어원은, 헬라어의 κερύσσειν(kerussēin)로서, 이것은 전달자 kh'ruξ(kerux)로서 뉴스를 공공연하게 선언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카-라(qara')(외친다, 부른다)의 그리스어 역으로서 신약에 60회 씌어져 있다. 그리고 유양겔리젯사이(εὐαγγελίεσθαι) (행 5:42), 아냥겔레인(ἀναγγέλειν) (행 20:27), 디양겔레인(διαγγέλειν) (렘 19:60), 아팡겔레인(ἀπαγγέλλειν) (행 17:30), 역상겔레인(ἐξαγγέλλειν) (벧전 2:9), 카탕겔레인(καταγγέλλειν) (행 17:23) 등은 케-뤼씨

11)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75), 15-17.

인(κελεύσσειν)의 주요한 동의어이다.

이같이 '선교'는 보냄을 받은 자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선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불신 세계를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경내를 넘어 바깥으로 나아감으로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선교는 파송받은 선교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든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대사자(大使者)이다.¹²⁾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¹³⁾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선교의 유일한 주제는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며, 인간의 영혼을 복음에 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전역이 복음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영혼, 전 인격, 전 삶의 구원이 곧 선교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의 선교 신학을 분석해 보면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선교 신학 방향과,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교 신학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사회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 서있는 부류인 세계 교회협의회(WCC)와 복음주의 입장에서 서있는 로잔 대회와 관련 있는 자들로 양분되어있다.

1.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

20세기 기독교 교회에서 중요한 운동 중의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19세기에 서구 교회는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으나, 분열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선교에도 장애를 주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연합 운동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교회 연합 운동인 세계 교회 협의회의 창설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오히려 선교에 변화와 장애를 초래하였다. 20세기 선교 기독교 운동과 선교 운동에 큰 역할

12) R. B. Kuiper, *God Centered Evangel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17.

13)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26.

을 했던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전통적 선교 개념을 포기하고 사회 구원의 선교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다.¹⁴⁾

사실 WCC를 중심으로 한 선교는 계속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증거하기보다는 '인간화'를 그 목표로 하였다.¹⁵⁾ 이들의 신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 구원론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고 따라서 세상은 이미 구속된 세상이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유업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⁶⁾

이같이 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의 선교는 구원을 못 받은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각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을 영적 구원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것을 호켄다이크(J. C. Hokkendiik)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빌어 선교 신학을 정립시켰던 것이다. 샬롬의 구체적인 영역은 사회의 평화, 결합, 조화, 공의를 성립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봉사하며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다.¹⁷⁾

2. 복음주의의 선교

복음주의의 선교(신학)은 로잔 언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사회 복음주의가 되어버린 WCC에 대항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잔 대회와 신학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선교 신학에서 '복음 전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뿐만 아니라 지상 명령의 어떤 세계관이라도 문화적 위임, 사회적 관심과 행동, 또는 두 왕국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역사적 복음주의 신학, 곧 구원론을 보다 잘 나타내 주었다. 셋째는 성경의 무오성에 관한 것으로 에든버러 대회에서 잃어버릴 뻔한 것을 분명하게 되찾은 것이다.¹⁸⁾

14)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1), 17-18.

15) Ibid., 19.

16)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Work of Evangelism* (Geneva: W.C.C., 1983), 6., A. Johnston, *세계복음화를 위한 투쟁*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09. 재인용

17) J. C. Hokkendiik,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21.

18) 1910년 Edinburgh 대회부터 사실상 WCC가 태동되었다.

3. 선교의 동기

왜 선교하는가? 이것은 선교의 목적과 목표에 상관된 것으로서 동기에 따라 선교의 성격이 결정된다. 가장 폭 넓고도 일반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은 존 영(John Young)의 설명이다. 즉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사랑이 그 동기가 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 목적이 되었으며,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선교의 동기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¹⁹⁾

화란의 신학자인 벨카일(J. Verkuyl)은 그것을 크게 양분하여 순종, 하나님께 영광, 사랑과 긍휼과 자비, 종말론적 사상, 시급성 및 개인적인 것들을 순수한 동기(pure motives)로 보고, 제국주의적, 문화적, 상업적 및 교회론적 식민주의 등을 불순한 동기(impure motives)로 설명하여²⁰⁾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동기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교의 동기와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의 아들을 보낸 표면의 동기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이심이로다”(시 22:27-28).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계 5:9)라고 한 구속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존귀케 됨을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곧이 오리라”(마 24:14)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개종, 교회의 설립,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증차대한 임무가 완수되는 그날까지 곧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19) John M. L. Young, *선교의 동기와 목적*, 김진홍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24.

20) J.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87), 163-175.

일을 해야 한다(마 24:4; 계 5:9).

우리가 충성된 기독교인이요 신실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 큰 임무는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가 엄숙히 감당해야 할 시급한 일인 것이다(엡 3:10).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이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적인 동기라고 하였는데²¹⁾ 그러면 그 구체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첫째, 종교적 측면: 영적인 것으로서 죄와 죄 의식, 그로 인한 영적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참조, 요 20:31; 10:10; 엡 2:1; 1 베전 1:9). 둘째, 정신적 측면: 불안과 좌절, 권태, 삶의 무목적, 그로 인한 정신 질환 등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한다(참조, 잠 4:13 ;마 9:36; 베전 2:25). 셋째, 경제적인 측면: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생활을 발전시켜 주는 것도 선교 활동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다(참조, 창 18:19; 출 22:21-23; 신 16:20; 갈 6:49; 롬 12:20). 넷째, 정치적 측면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선교의 중요한 일이다(눅 4:18).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 관계된 죄의 해결도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선교사들은 영혼의 구원 문제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사회 정의와 불의에 대항하여 싸웠고, 전통적인 악습을 퇴치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현대식 교육을 도입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문화 발전에 공헌한 것도 위대한 측면인 것이다.²²⁾

제 2 절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공동체이다. 선교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²³⁾ 그래서 일지기 한국에서 사역하였던

21) Peter C. Wagner, *Frontiers Missionary Strategy* (Chicago: Moody Press, 1971), 18-27.

22) J. Herbert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64-168.

23)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9), 24.

한부선(Bruce Hurt)는 “교회가 하는 일은 선교이며 선교가 하는 일은 교회”라고 표현하였다.²⁴⁾

마태복음 28장 7-20절의 주님의 대 위임 명령은 바로 이 선교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며 이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신 바를 압축하여 남기신 당부이다.²⁵⁾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사명을 받아 수행하였다. 이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교회 이외에는 다른 교회란 있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 이외에 다른 선교란 있을 수 없다.²⁶⁾ 따라서 스위스의 유명한 현대 신학자의 한 사람인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교회는 곧 선교이고 붙은 붙은 것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만 존속을 한다고 하였다.²⁷⁾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다시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안에는 두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교회의 목적이 예배와 증거로 양분됨을 보게 된다.²⁸⁾

지역 단위의 회중은 예배와 양육, 그리고 지역 전도에 집중하는데 비해서 교회의 선교적인 구조는 교회의 선교사적 직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필요에 대해서 교회는 알맞은 활동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것이 각각 상응하는 교회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²⁹⁾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왕국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핵심을 성취시키는 도구이다.³⁰⁾ 이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그의 선교 사역을 이 세상에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교회적인 기구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과업을 성취하시려

24) Bruce F. Hunt, “The Church and Mission,” *The Presbyterian Guardian* (November 1957), 147-148.

25) 서정운, *교회와 선교*, 9.

26) Johannes Blau,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옥, 전호진, 송용조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136.

27) Emil Brunner, *The Word and the World* (New York: C. Scribner’s Sons, 1931), 108.

28) John R. W. Stott, *Personal Evangelism* (Downers Grove: IVP, 1964), 3.

29)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D.Min. diss., Fuller School of World Mission, 1985), 56.

30) Howard A Snyder, *The Community of The King* (Downers Grove: IVP, 1977), 13-15.

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적인 구조야말로 교회 존립의 근거와 정당성이 되는 선교의 기능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회와 선교가 그 성격에 있어서 하나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의 회중과 선교적인 조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회중은 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선교 기관도 혼자서는 왕국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이 두 구조를 sodality와 modality로 부른다.³¹⁾ 그리고 찰스 멜리스(Charles J. Mellis)는 이 두 구조를 헌신된 공동체(committed communication)와 양육 구조(nurture structures) 또는 간단히 회중 구조(congregational structure)라고 부른다.³²⁾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이들을 교회(church)와 '교회 밖의 선교 기관'(para-church)으로 말하며³³⁾ 폴 피어슨(Paul E. Pierson)은 선교구조(mission structure)와 회중구조(congregational stru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³⁴⁾

1. 교회 구조

교회 구조는 사람 지향적인 구조이다. 왜냐하면 목회 자체가 교회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구조는 내적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게 되어 지역 복음화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 구조는 지역 교회의 특성상 연합 활동에 인색하며 교인들 중심의

31) Ralph D.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1), 183.

32) Charles J. Mellis, *Committed Communities: Fresh Streams for World Mission*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6), 7.

33) Snyder, *The Community of The King*, 158-168.

신내리(Alvin Roy Sneller) 선교사는 'para-church'를 '탈교회'로 번역했는데, 이는 para-의 접두어가 의학이나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비정상 또는 반대되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고 각주에서 설명했으나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참조. 신내리,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7), 192-203.

34) Paul E. Pierson, *Themes from Acts* (Ventura: Regal Books, 1982), 105. 본 연구자는 이 하에서 mission structure를 선교구조로, Congregational 및 para-church structure를 교회구조로 통일해서 사용하여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화평과 정의 도모를 증진 시키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³⁵⁾ 그래서 교회 구조에서는 출교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교회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은 교회 신학이 강하며 (특히 각 교단마다 신학적 칼라가 서로 다르다) 전인 목회가 가능하며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는 특색이 있다. 반면에 전도적인 비전을 쉬게 잃게 되며 무엇보다 선교 구조를 먹어 버림으로써 타 문화권 선교가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다.³⁶⁾

2. 선교 구조

피터 와그너는 “선교 구조는 주로 사람 지향적이기 보다 과제 지향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 구조와는 다르다. 그 구성원들은 가입을 신청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로만 구성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제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고 하였다.

선교 구조는 특별한 과제 즉 세계 선교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높은 위임을 맡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 구조가 지역 주민에게 전도를 집중한다면, 대체로 선교 구조는 문화를 넘어서 타문화권에까지 전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선교 구조는 관용보다는 책임을 묻게 되고 무능력자는 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회 구조는 타문화권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지만 선교 구조는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풀러 선교 신학대학원의 폴 피어슨은 “타문화권 선교는 특별한 선교 구조가 없이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⁸⁾고 말한다.

선교 구조의 장점은 특수 사역에 집중하며 특히 타문화권 선교에 주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 신학이 강하며 조직의 수용성의 강한 점이 있으나, 교회 구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학적인 기반이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35) Peter C.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New York: Harper & Row, 1981), 186.

36)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1), 12-19.

37)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187.

38) Paul E. Pierson, Lecture given i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hristian Movement Course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이재범,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15에서 재인용.

3. 두 구조와의 관계

지금까지는 교회 구조의 지역 교회 혹은 교단과, 선교 구조인 선교 단체 상호간에 이해의 부족과 교류의 단절,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감정 문제, 지도자 사이의 갈등 등이 개입되어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았는지 한 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견제와 불신, 비방의 자세는 결국 교회와 선교 단체 사이에 “누가 선교의 주도권을 갖는 주역인가?”라는 매우 절박한 신학적 논쟁과 주장이 그 밑뿌리에 평평하게 대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³⁹⁾

이처럼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 사이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 단체를 ‘교회라는 손에 붙은 사마귀’쯤으로 생각하고 빨리 떨어져 없어질수록 좋은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 단체야말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의 선봉대로서 개신교의 300년 선교 암흑시대를 깨운 ‘햇볕’이라고 반기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구조는 모두 다 성경적인 구조이며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서 그들 자신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두 구조는 상호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며 보완하는 서로 돕고 지지하는 공생적 관계 구조임이 분명하다. 와그너는 이 두 구조는 두 다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 구조는 교회 위해 있는 사마귀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리들이다. 몸은 두 다리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 또 주위를 잘 도달할 수 없다. 교회는 종교 개혁 교회들이 한 것 같이 선교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잘 할 수 없다. 다리들은 몸을 움직이고 몸은 다리들에게 영양을 주고 유지해 준다. 선교회는 교회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교회는 선교회를 유지하게 한다. 다리들이 나뉘어져 있으나 몸의 한 부분이듯이 선교회는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의 특별한 기능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⁴¹⁾

39) 도문갑, “선교의 주역-교회인가? 선교 단체인가?” (석사 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89), 2.

40)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188-189.

41) Peter C. Wagner, *Stop the World I Want to Get On* (Glendale: Regal Books, 1974), 49.

따라서 두 구조는 상호 배타적인 아니요, 오히려 서로가 필요한 구조이다. 두 구조는 서로의 기능이 약간 다르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일 뿐이다.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Costas)는 “선교를 떠난 교회의 개념이 없는 것 같이 교회를 떠난 선교는 신약 성경에 기초가 없다”⁴²⁾고 하였다.

제 3 절 선교 구조의 양태

앞에서 본 대로 전통적인 교회 안에는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선교의 열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선교 구조를 지지하고 있는가? 이 같은 교회의 선교 구조의 양태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양대 기구인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선교의 결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양 구조의 활동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절의 목표가 되겠다. ‘신약 성경 교회’라고 부른 교회 구조는 본래 ‘기독교 회당’이다. 바울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산재해 있는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같은 ‘바울 선교단’의 선교 활동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친교하며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신앙의 집회소가 만들어졌다.⁴³⁾

이처럼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일행을 ‘선교단’ 또는 ‘사도 선교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바울의 선교단은 차츰 그 회원 수가 증가했다. 의사인 누가, 디모데 및 디도 등이 선교단에 참가했다.⁴⁴⁾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선교 기관이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2대 기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42) Orlando Costas,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74), 25.

43) 장중열, *교회 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192.

44) Ibid., 186.

1.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구조

우리는 자주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내걸 때가 있다. 그럴 때 모델이 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묘사된 예루살렘 교회이다. 이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발생하였고 신자들 상호 간에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어 쓰며 서로가 필요한 대로 상부상조하는 교회였다.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교회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였다.⁴⁵⁾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저들을 가졌던 교회였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복음을 증거 하려는 의도적인 자세가 부족했던 점은 바람직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구조가 되기에는 결정적인 미비한 점이였다.⁴⁶⁾ 사도행전 28장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다음 도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⁴⁷⁾

<표 1> 사도행전 28장 구조와 요약

장	1-7	8-12	13-28
장소	예루살렘 중심	사마리아와 이방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지도자	베드로	바울에게 옮겨짐	바울

위의 도표에서 보는 대로 사도행전 1-7장까지는 베드로가 수석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으나 8장으로는 그 바톤이 바울에게 옮겨지고, 13장부터는 완전히 바울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교회가 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요(행 2:42), 교제가 있는 교회요(42),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46), 살아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46-47).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중심 센터가

45)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9), 29.

46) 서정운, “초대 교회의 선교,” *빛과 소금*, 1986년 6월호, 204.

47) Warren W. Wiersbe, *핵심성경연구: 마태복음-로마서* (서울: 나침판사, 1985), 239.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은 선교의 지상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도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지역 사회에서조차도 칭찬 듣는 유명한 교회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불순종하고 저희들 끼리만의 내부 지향적 교회였다. 사도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열정이 없었다. 베드로조차도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하셨을 때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완강히 불순종했지 않은가?(행 10:9-16)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선교를 한 후(10:44-48) 이방인 선교는 끝나게 된다.

둘째로, 그것은 강한 말세 사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대와 이해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들에게 특별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곤 했기 때문에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시리라는 생각에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선교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이 된 것이다. 전술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교제, 친교 하는 데만 재미를 느낀 나머지 선교하는 데는 소홀히 하였다. 말하자면 이기적인 교회였다. 자신들만 알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늘날도 은혜 받은 신자,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부흥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이 부흥 자체에도 위험성이 아울러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흥이 일어날수록 신자들은 자신의 죄, 축복, 교제만을 생각한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고 또한 선교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믿고 선교를 위해 전략을 세우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넷째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주는 교회가 아니라 받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저들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의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고후 8:1-15).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는 말씀이 기억나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는 교회가 아니라 원조를 받는 교회였다.

2. 안디옥 교회의 선교 구조

사도행전 11장 19-30절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는 설립 후 곧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은 로마세계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⁴⁸⁾ 당시 인구 50만의 안디옥은 아름다운 도시요, 스포츠와 도박과 성전매음(temple prostitution)을 추구하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위해 탄생되었으나 자기중심으로 선교 구조를 묶어놓고 교회 구조만으로 만족하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러 나가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ekklesia)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사도행전 1:8의 말씀대로 탄생된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백성”이다.⁴⁹⁾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의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본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봄으로써 현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본 보기를 따라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째로, 선교 신학이 분명한 교회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심한 핍박으로 사도들 외에는 모두 강제 해산되어 그 흩어진 신자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였다(8:4).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에서 온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주의(Churchism)만을 주장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있었다. 즉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많은 사역 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48) F. F. Bruce, *The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238.

49) John Bright, *The Kingdom of God* (Nashville: Abingdon, 1978), 233.

피터 와그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선택적이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증재해 달라고 결단했다면,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⁵⁰⁾라고 하였다. 또한 맥가브란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큰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답변은 각양 각색이어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와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놀라운 혁명의 가장 심오한 요인의 하나이다.⁵¹⁾

그러므로 선교가 무엇이며 선교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 맥가브란은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충성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설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로서 영접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역을 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다.⁵²⁾

맥가브란의 선교의 정의에서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구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맥가브란은 동시에 정의 사회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선교란 타문화 권에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게 하며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선교에 관한 그들의 신학이 뚜렷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타문화 권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하였다.⁵³⁾

50) Peter C. Wagner, *On The Crest of The Wave - Becoming A World Christian* (Ventura, CA: Regal Books, 1983), 5.

51) Peter Beyerhause, *Mission: Which Way?* (Grand Rapids: Baker, 1974), 7.

52) Arthur F. Glasser & Donald A. McGavran, *Com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26.

53)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1), 76-77.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13:2)에서 보듯이 안디옥 교회는 분명한 선교 신학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였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주를 섬겨”가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금식”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을 넘어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였다. 그리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13:2)고 하셨다. 즉 성령께서 선교를 주도하신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저들은 아멘 하였다. 이것이 안디옥 교인들의 위대한 점이다.

셋째로,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13:1)이 있었다. 저들의 지도자들의 팀은 여러 지방과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안디옥 교회는 피부색깔과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였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면 선교하기 어렵다.

넷째로, 올바른 자격자를 선택하여 파송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보냈다(13:1-3).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였고(15:30),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였으며(15:40) 또한 디모데를 선택하였다(16:3).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격자를 보내야 한다.

선교사가 사역지에 가면 제각기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울 때까지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선교사가 요구되기에 최고 수준의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⁵⁴⁾

다섯째로, 재정 지원을 하는 교회이다. 성경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13:3)고 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보낼 선교사가 선정된 후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냈다. 여기서 ‘안수’란 임직식의 단순한 안수가 아니다. 두 선교사는 자신들을 대표하여 보내며, 온 교회가 정식으로 그들과 함께 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안수이다.

54)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로의 헌신*, 권행자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6), 45.

물론 여기서 재정 지원을 했다는 말은 없으나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다(11:29-30). 그러나 두 선교사는 교회에 의지하지 않았다(고전 9:6). 특히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하였다.⁵⁵⁾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먹기 위해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여섯째로, 보고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교회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18개월의 선교 여행을 다하고 모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고, 교회는 그들을 재교육하였다(14:26-28).

보고 사역은 선교사가 파송받은 교회에 와서 선교 활동을 교회 앞에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 해야 한다. 거기에는 마가의 실패가 있었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루스드라에서 나와서 앓은병이 된 자를 일으켰던 것과(14:8-18)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소식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선교사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또 교인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국내 행정 책임자는 선교사 개인의 형편에 맞추어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는 선교회나 교회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다. 그 중에는 선교사가 일하는 나라의 배경을 소개하는 책자와 그림, 슬라이드 등이 있는데, 선교사도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⁵⁶⁾

안디옥 교회는 교회 구조만을 강조하여 선교구조를 먹어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가 세계 선교를 위해 서로 돕는 관례를 잘 조화시킨 교회였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신약의 모범 교회요 동반자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이다.

3. 선교구조: 바울의 사도팀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안디옥 교회의 선교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55) J. Christy Wilson, Jr., *Today's Tentmakers : Self-Support: Alternative Model for Worldwide Witness*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81).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80에서 재인용

56) Dennis Lane, *선교사와 선교단체*, 도문갑 역 (서울: 두란노, 1993), 160-161.

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 선교가 어떻게 활발히 진행되는지? 구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은거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내어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결해 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된다(갈1:18-22, 2:1-10, 행11:27-30, 13-14장 참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의 결과로 사도팀이 형성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조직(구조)의 탄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조직을 선교단체라고 부르는 것이다.⁵⁷⁾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후에 해외 선교단체라고 불리는 것을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누가는 이 일이 성령의 임재와 지시로 인도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되풀이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의 장중함(Solemnity)을 일깨워주고 있다.”

닐(S. Neill)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⁵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 13:1-4의 사건을 “역사의 돌쩌귀”(a hinge of histor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⁵⁹⁾

이 새로운 선교 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선교 팀의 사역범위를 친히 지시하셨다. 그리고 이 팀은 어떤 특정 지역 교회의 지시나 통제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를 따라 선교의 일선으로 달려 나간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11개의 가장 탁월한 사도적 전도 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대기별로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⁶⁰⁾

바나바-사울-마가팀 (13:4-13)
 바울-바나바와 그들의 “동역자” (13:13)팀 (13:13-15:12)
 바울-바나바-유다-실라팀(15:22,34)
 바울-실라팀 (15:37-39)

57) Edward Murphy, F. “The Missionary Society as an Apostolic Team” *Missiology* vol.4, No 1, Jan, 1976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103-105.

58) Stephen Neill, *The Church and Christian Un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80.

59) Edward Murphy, 113.

60) Ibid.

바울-실라-디모데팀 (16:1-9)
 바울-실라-디모데-누가팀 (16:15)
 바울-실라-디모데-누가-아굴라-브리스길라팀 (18:2-23)
 바울-실라-디모데-누가-아굴라-브리스길라-아볼로팀 (18:24-29)
 바울-실라-디모데-누가-에라스도-가이오-아리스다고 (19장)
 바울-실라-디모데-누가-소바더-아리스다고-세군도-가이오-두기고
 -드로비모팀 (20:4)

이들 팀은 신자들의 눈에 매우 독특한 지위와 영적 권위 그리고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적 팀(Apostolic Team)으로 부른다고 해서 이들 팀의 구성원 모두가 사도적 은사를 소유했거나 초대 교회의 사도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개척교회와의 관계에서 사도 적인 기능을 수행한 종합 팀의 일원이었다. 사도적 팀으로서의 선교단체 안에는 그 성숙도와 지도력이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바나바와 같이 노련한 고참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젊고 활력이 있으며 재능이 뛰어나, 후에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다. 동시에 젊어서 성숙의 과정에 있는 마가, 디모데, 실라 같은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팀의 수련과정에서 사역하면서 배우기도 하였다. 이들 팀은 딱딱하고 경직된 구조에 묶여있지 않아서 재능있는 일꾼이 지도자가 될 여지가 있었다.

이들 11개 팀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초기에 사역한 팀으로서 주로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은 당일 문화와 민족적 팀이었다. 그러나 그 후, 즉각적으로 타문화 적이고 국제적인 팀으로 변모했는데 이에 는 헬라어 사용자 디모데나 헬라인 의사 누가 등의 합세가 이를 잘 말해준다.⁶¹⁾

이들 선교 팀은 처음부터 재정, 사역의 방향과 전략, 선교사의 선발 등에 있어서 파송 교회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파송 교회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사역에 대해 보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행 14:26-28; 15-3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교회와 선교 팀은 서로 다름이나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61) Edward Murphy, 114-115.

헤롤드 쿡(Harold R. Cook)은 그의 논문⁶²⁾에서 신약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도 파송했다는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바울)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보냄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부르심이나 권위에 더 부가된 것은 아니었지만 선교에 있어서 교회 전체의 참여를 상징했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해 나감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밖에 다른 교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반자로서 사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바울 사도는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들이 동반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바울 사도는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들이 동반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활동을 통해 세운 교회로부터 의식적으로 일군을 불러 모은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으로부터 그의 선교 팀의 일원이 될 자들 디모데(행 16:3), 누가(16:10 추정), 디도 등 여러 일군들을 선발했다. 빌립보에 세운 새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고, 그가 옥중에 있었을 때에도 에베소에서 시작한 그의 사역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을 포함한(고후 1:16) 주변 지역에 교회를 건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행 19:10).⁶³⁾

더 나아가서 선교사와도 동반자적인 사역을 개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경우 로마에 편지해서 로마교회, 즉 현지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확립했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기를 바랐던 것을 볼 수 있다.

4. 교회사에 나타난 선교 구조

초대 교회 이후 교회사를 통한 선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고찰함으로써 교회와 선교 교회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로마제국의 기독교

1세기의 기독교회는 그 자체의 조직을 세우며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62) Harold R. Cook, "Who Really Sent the First Missionaries?"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October, 1975), 233-239.

63) Robin Thomson, *세계 선교 출발*, 이득수 역 (서울: IVP, 1991), 106.

전파하기 위해서 분투하였다. 지역 교회가 다양한 규모와 구조로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비형식적인 역동적인 팀들(선교단들)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복음화 하면서 지역 교회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갔다.⁶⁴⁾

그 당시의 선교 구조는 거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었다. 지역 교회와는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지시와 통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단 종파의 발흥에 따라 교회 밖의 운동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키프리아노로 대표되는 초대 교부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 질서의 수호자와 사도적 전승을 들어 교회의 통일성과 감독의 절대 권위를 수립했다.⁶⁵⁾ 이 당시에 선교 구조는 반자치적이고 독립적 단체로서 가능하였다.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시프리아노와 같은 초기 교부들의 기록물들은 비록 그들의 어떤 신상들이 우리에게 다소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교리와 교회 구조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노력을 반영해준다.⁶⁶⁾

한편 랄프 윈터는 '선교 구조'로서 발전된 초기의 다양한 형태의 수도원 전통을 주목하였다⁶⁷⁾. 가이사라의 바질(Basil of Caesarea, 329-379)과 존 카시안(John Cassian, ?-433)은 특별한 헌신을 하도록 촉구하는 수도원 구조를 개발하였다.⁶⁸⁾ 이러한 수도원 운동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 기독교 연속성을 기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랄프 윈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사실상 이같은 수도원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하는 것은 교회 구조의 상대적인 나약함과 형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자들은 제롬과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을 수도승들 보다는 위대한 학자들로서 생각한다. 존 칼빈과 같은 사람은 그런 수도승들로부터 유래한 문서들을 많이 의존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제롬이라 어거스틴 그리고 다른 많은 수도사적인 학자들이 일했던 특수한 구조를 전혀 인정하여 들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미 4세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교구와 수도원)가 있었다

64) Jerry White, *The Church & the Para Church: An Uneasy Marriage* (Portland Multnomah Press, 1983), 69.

65)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107-115.

66)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49.

67)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25.

68) Ibid.

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두 구조는 모두 기독교 전파와 확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⁶⁹⁾

이처럼 초대 교부 시대 이후 양 구조 사이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였는데 바울 시대의 공조 관계(안디옥 교회의 경우처럼)와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중세시대-로마 가톨릭 교회와 선교의 관계

콘스탄틴 이후 교회가 조직과 형식을 갖춘 기구로서 고정되면서 자연히 교회의 활력과 놀라운 생명력이 감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자체의 변모는 선교 운동의 구조와 과정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세 1000년간의 교회의 구조적 특징은 역시 성직자 중심인 교회 구조와 교회 구조의 비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교회의 선교 활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수행되지 않고 특정인의 직무로 인식되었다. 구조가 된 로마 교황청하에 기독교는 이미 전 교회가 선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만한 그러한 구조가 무너져 버렸다. 오직 선교는 수도사들의 직무가 되었다. 선교도 수도사 선교사에 의한 선교로 국한되고 그들의 사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즉 여기서 이른바 전문적 또는 직업적 선교사들의 특수 업무로 선교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⁷⁰⁾

그 다음으로 교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구 확장적 선교 구조이다. 개인의 전도와 회개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형성보다는 로마 천주교회의 교회 기구 확장에 더욱 치우치게 되었던 것이다.⁷¹⁾

따라서 중세 교회 천여 년의 걸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사단(Monastic)을 통해서 선교를 주도했다. 윌리엄 리치 호크(William R. Hoake)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선교적 열정을 갖게 한 세 가지 큰 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는 교황청이다. 교황은 우주적인 권위를 대표했고 그 세계성의 상징이었다. 1622년에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 사업을 감독하는 선교 기구를 설립하게 이르렀다. 둘째는 수도원 생활이다. 수도단들은 바로 카톨릭 교회의 선교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69)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26.

70) 서정운, *교회와 선교*, 42-43.

71) Ibid., 43-44.

승려들은 선교사였다. 셋째는 제 왕국이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인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영토 내에서의 선교 사업을 보호하고 재정적이 지원을 했다.⁷²⁾

이때의 상황에 대해 “교회는 두 가지의 적과 싸우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하나는 기독교화된 야만인들과 다른 하나는 세계를 개종하려고 나선 이슬람교의 신실한 추종자들이었다. 교회는 정치적 강조와 더불어 기독교 국가들의 군사적 방어의 필요성에서 거의 선교 사업은 마비될 뻔했다.”라고 말했다.

랄프 윈터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초기 중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그레고리 대제(Gregory the Great)와 후에 켄터베리의 어거스틴(Augustine of Canterbury)이라 불리는 사람과의 협력이라고 하였다.⁷³⁾ 비록 그레고리가 로마 감독구의 감독으로서 세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는 켈틱족의 기독교가 대륙으로부터 온 삭손의 무사들의 침입으로 상처받은 잉글랜드에 교구 구조를 세우려고 하는 중요한 선교 과업을 위해 그의 친구인 어거스틴을 부른 것이다.⁷⁴⁾

베네딕트 수도원 제도와 같이 자치적인 후원을 통해 청빈 생활을 감수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는 역동적인 구조를 살펴보자. 피터 발도(Peter Waldo)는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었다. 그는 그의 부를 친척들에게 분배하고 복음 전도의 청빈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의 일부를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발도는 또한 알렉산더 교황 3세에게 설교의 허가를 요청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성직자의 감독 하에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허락되었다. 이를 발도는 거절했다. 그는 성직자의 감독 없이 설교를 수행해 나갔다.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의 헌신자들이 되었고, 열심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배웠다. 그들은 주도적인 교회의 갱신 구조를 나타내었고 12-13세기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선교운동으로 발전되었다.⁷⁵⁾

72) Gerald H. Anderson, ed., *선교 신학 서설*,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5), 118-119.

73)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28.

74) Ibid.

75)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53-254.

이 같은 선교운동은 점차적으로 반 성직(Anti-Sacerdotal)을 강조했고 그 사제직은 죄스러운 것으로 특히 그들의 성례의 제도에 대해서 거부했다. 발도는 최종적으로 파면 당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순교 당했다.

수도원 출신으로서 교구의 사제가 아니면서 교구를 세우러 간 것은 매우 독특한 점이다. 이후로도 중세 약 1000년간의 기간을 통해 교회(Modality)의 건설과 재건은 선교 단체(Sodality)의 주요 임무가 되어왔다. 이것은 수도원 운동이 기독교의 교구 제도 측(Dioce San side)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 원천이요, 진정한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사실이다.⁷⁶⁾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운동, 시토 수도원, 탁발 수도원, 예수회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엄격하게 소달리티였지만, 그들의 사역은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구를 건설하며, 기독교를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⁷⁷⁾

이러한 수도원 운동과 갱신 운동들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바 있는데 15세기 후스파의 개혁운동이 이미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마틴 루터가 개혁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승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존 위클리프(John Wycliff, 1329-1384)와 그의 추종자들인 롤라드 및 보헤미아의 개혁운동은 교황의 무오성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참되고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었다.⁷⁸⁾ 그들을 통해 구라파 대륙의 개혁운동은 16세기 종교 개혁을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윈터는 “중세 1000년의 교회사는 실제로 선교 구조의 역할을 제외하고서는 기록하기가 불가능하다. 로마의 교회 구조 안에서 일어난 일은 피상적이고 정치적 역할을 대표할 뿐 기독교 운동 전체에서는 빙산의 일각처럼 왜소한 것”⁷⁹⁾이라고 중세기의 선교 구조를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로마 가톨릭은 수세기 동안의 교훈과 경험을 통해 일찌감치 이 선교 조직의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 구조와의 관계에서 큰 마찰 없이 이들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그 예로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선교 사역 중 75퍼센트가 선교 구조에

76)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84.

77) Ibid.

78)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55.

79)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85.

의해 수행되고 있고, 나머지 25퍼센트만이 지역 교구의 주교들에 의해 주도된다. 1980년 현재 미국에서 파송된 가톨릭 선교사의 숫자는 6,39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교구 파송선교사는 3퍼센트에 불과하였다.⁸⁰⁾

다. 종교 개혁기간의 선교구조

종교 개혁이전의 유럽의 수도원 제도와 많은 운동들은 종교 개혁으로 기울어졌다. 마틴 루터(1483-1546)도 본래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다. 또 한 번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의 또 다른 경신들과 같이 종교 개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 신앙으로 되돌아가도록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산물이었다는 것을 본다.⁸¹⁾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신앙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0년 동안 선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⁸²⁾

저명한 교회사가인 라토렛(Kennet S. Latourette)은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적 관심이 결여된 이유 여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① 개신교 자체의 확립을 위한 투쟁 ② 종교 전쟁에 휘말림 ③ 그들의 종말사상 ④ 개신교 통치자들의 신앙 확장에 대한 무관심 ⑤ 개신교의 선교기구의 결여 ⑥ 개신교 국가들이 17세기 후반까지 비 기독교인들과 접촉을 별로 하지 못한 이유들이 그것이다.

라토렛에 의하면 루터는 선교적 과제를 가볍게 지나쳤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종말이 급박해서 복음을 널리 전할 시간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대 위임령은 단지 원 사도들(Original Apostles)에게만 한정되었다고 주장했다.⁸³⁾ 루터 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은 개혁주의자로 전향시키는데 주로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루터가 “국내 전도”에 전혀 무관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이웃들에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관해 말했기

80) Peter C. Wagner, *On The Crest of The Wave-Becoming A World Christian* (Ventura: Regal Books, 1983), 72.

81)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56.

82) Terry Herbert, *오늘의 세계 선교*, 윤혜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34.

83) Kennet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25-26.

때문이다. 루터 주의자들은 또한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일대- 북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라플랜드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하였었다. 루터 주의에서 선교적 노력의 결핍의 주요 원인은 수도원 제도의 거부와 그것을 어떠한 다른 기능으로(예를 들어 선교 구조로) 대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⁸⁴⁾

(1) 재세례파

대부분의 개신교와 가톨릭에 의해 핍박과 추방을 당하기만 했던 재세례파들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재세례파는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복음전파의 주님의 명령을 책임지어 주었고, 선교사를 선출하여 내보냈다. 이러한 재세례파 운동의 공통된 주요 삶의 방식을 제리 화이트(Jerry Whit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거부한다. 그들은 또한 성인 세례(반드시 침례는 아닐 지라도), 공동체의 헌신보다는 개인 구원, 물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양한 정도와 형태로 강조하였다. 그들은 제자 도를 강조했고, Sheeley가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내적인 체험, 교리의 수용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가운데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재세례파는 참으로 성직에 특별히 집착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평신도 운동이었다. 그들은 루터파들과 가톨릭 모두에게 똑같이 잔인하게 핍박받았다. 그들은 명백히 자유로운 교회(Free church)운동이었다.⁸⁵⁾

이같은 재세례파의 적극적 선교를 위한 열정은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스위스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 경건주의 자들과 모라비안파

17-18세기의 위와 같은 복음주의적 경건 운동은 19세기 개신교 선교를 싹트게 해주게 된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필립 스페너(Philip Spener)에 의해 시작된다. 그는 1670년부터 루터파, 전통주의의 무기력함에 맞서서 성서 연구와 친교, 기독교적 생활,

84)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257-258.

85) White, *The Church & the Para Church: An Uneasy Marriage*, 45.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세포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교회 내의 소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고 간주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친국 Francke가 계승하여 Halle의 경건주의를 형성하고 당시 수많은 지식층의 호응을 받았다. 그래서 1705년에 덴마크에 할레 선교단이 결성되어 1706년에는 최초의 루터교 선교사를 인도에 보냈었다. 물론 프랑케는 그 배후에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선교운동은 모라비안 교회에서 일어났다. 진젠돌프(N. L. von zinzendorf) 백작은 Francke에게서 선교열을 전수 받았다. 수 년 후 모라비안 남은 자들이 삭소니에 있는 진젠돌프의 영토에 정착해와서 1722년에는 헤른후트(Herrnhut)라는 그들의 마을을 건립했다. 처음엔 피난민의 정착지로 시작했던 것이 깊은 영적 각성으로 강하게 헌신된 공동체로 바뀌었다.⁸⁶⁾

이 모라비안들은 자립적 단위로 해외에 나갔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러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역의 섬지방,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등지에서 모라비안들의 선교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전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사업에 종사한 것은 그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재세례파와 마찬가지로 2, 3대로 내려가면서 명목적인 상태를 담보하게 되었다. 윈터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적 구조에서 일반적인 회중구조(Modality)로 전환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부흥 운동이나 선교 기관의 역할 중 아무것도 효과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Sodality의 힘을 창출하는 일에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개신교는 이후 William Carey가 ‘이방인의 회심을 위한 기구의 활용’을 제안해 내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은 선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⁸⁷⁾

(3) 대각성 운동과 복음주의 부흥

종교개혁 후의 오백년 동안 개신교의 위대한 선교운동은 루터, 칼빈, 쾰빙글리의 후예들이 선교 단체성과 필요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 선교 운동

86) Charles J. Mellis, *Committed Communities: Fresh streams for Missions*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6), 41.

87)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31-132.

은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비롯하여 성장해서 18세에 들어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와 요한 웨슬리(John Wesley) 운동을 통해 소생하기 시작한다.⁸⁸⁾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미 대륙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져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설립되고 교파간의 이해와 갈등을 포용하는 관용 정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설립되었고, 미국 교회의 복음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러한 협력과 우호정신은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웨슬리 운동은 소달리타적인 전도 운동으로 영국과 또한 미국 선교 활동에는 천주교의 그 어떤 수도회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선교 기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후에 하나의 중심교단으로 형성되었다.⁸⁹⁾ 그 중심 교단은 말할 것도 없이 감리교이다.

5 위대한 세기의 선교구조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5-1834)는 바로 '현대 선교 운동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생애는 실로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선교사업의 계획과 사고방식에 큰 혁명을 초래하였다.

기독교 선교 역사의 봉우리는 역시 근대 선교 운동임이 틀림없고, 그 아버지는 바로 윌리엄 케리다.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한 1792년에 87페이지에 달하는 소책자 *이교도의 회심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조사*를 발간했다. 이 선언은 선교에 관해 저술된 어떤 책들보다 가장 확신에 찬 선교적 호소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고 후대 교회사에 끼친 영향을 생각한다면 마티 루터의 95개 조항과 나란히 설 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⁹⁰⁾ 많은 선교 분야의 저자들이 1792년을 'Annus Mirabilis'라 일컫고 있는데, 이 해를 기준으로 하여 선교 역사가 앞과 뒤로 나뉘는 선교 연대의 분기점으로 이루는 해이다.

케리는 1793년에 동료들과 함께 Baptist Missionary Society(BMS)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단체는 근대 선교 기구의 모델로서 수많은 선교 단체 결성의 기폭제가 되었다. 교회의 무관심 속에서도 BMS는 성장해 나갔는데, 이를 시발로 영국의 London Missionary Society(1795)와 4개 단체, 구라파에서는 Netherlands Missionary

88)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116.

89) 장중열, *교회 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8), 197.

90)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123-124.

Society(1796)와 2개 단체, 구라파에서는 New York Missionary Society(1796)외에 6개의 선교 단체가 탄생되었다.

선교 단체들이 일단 힘을 얻자 놀라운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William Carey의 등장 이래 190년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남녀의 숫자와 개척된 교회의 숫자가 지난 1800년간 얻은 각각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다.⁹¹⁾ 결국 선교단체란 마지못해 생겨온 억지나 뒷궁리가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대용품으로 마련해 놓았던 제2의 계획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원래부터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⁹²⁾ 그래서 와그너는 “선교 단체란 교회에 붙은 사마귀가 아니라”고 외친다.

이 위대한 세기의 또 다른 핵심적인 사건은 학생 선교 단체들의 발전이었다. 부흥 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형식적인 교회 예배의 전통에서 깨어나도록 이끌었고, 때로는 교회적인 틀과 형식을 뛰어 넘어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추어 학생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무디(D. L. Moody)의 지도 아래 외국 선교를 위한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1886년에 결성되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운동들이 일어났고 초교파 선교회 급속한 증가는 새로운 선교 구조의 제2의 탄생기로, 현대 복음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본격적인 해외 선교 전문 기구로서 China Inland Mission/OMF(1865) 구세군(Salvation Army-1865, Central American Mission(1890), Evangelical Alliance(1890) 그리고 비교적 후기에 AIM, SIM 등의 선교 단체들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혹은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가 선교 확장의 세기였다고 규정지을 수 있으며, 동시에 위대한 세기는 다른 말로 선교 구조의 세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비 서방 세계의 부흥

이 세기는 피 선교지 교회였던 비 서방 세계의 부흥과 아울러 계속된 선교 구조의 발흥과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의 충격과 종전 후의 영적인 욕구와 열망이, 잃어진 영혼과 세계를 향해 방향을 맞추었고⁹³⁾ 서구적인 식민 세력의 퇴

91) Wagner, *On The Crest of The Wave-Becoming A World Christian*, 74.

92) Ibid.

조와 철수, 신생 국가의 독립 그리고 항공 교통의 발달과 매스컴의 확장은 새로운 국면을 선교에 열어 주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 서방 교회와 단체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현재의 IVF(IFES, 1927), Navigator(1933), Youth For Christ(1951) 등이 세워졌고, Young Life, Youth With A Mission, Scripture Union 등도 활동을 시작했다. 비 서방 세계의 자발적인 선교 단체의 태동은 새로운 세기를 특징지우는 괄목한 성장으로 인도의 IEM, 일본의 JOMA, 한국의 KIM 등은 현지에서 시작된 자체의 선교운동이다.⁹⁴⁾

이러한 선교 구조의 다양성과 역동적인 사역은 금세기 기독교의 활력을 더해주고 창의성을 제공해 준다. 문서, 방송, 신학 교육, 의료 봉사, 기술지도, 구호사역, 경영, 지도자 훈련 등은 교회적인 구조에서 다 수행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이다. 여기에 교회와 선교 구조의 전문성이 협력할 길이 열려있다.

93) White Terry, *The Church and Para-Church* (Portland: Multnomah, 1983), 53.

94) Ralph D. Winter, Kenneth S. Latourette, *The Twenty-Five Unbelievable Years, 1945 to 1969*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0), 53.

제 3 장

21세기의 선교적 상황 속에서의 선교구조의 재고

제 1 절 선교에 대한 도전들

하나님의 선교는 시대마다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현대의 세계선교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1. 사회, 문화적 도전들

첫째, 지난 20세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혁명의 세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는 공산주의 혁명과 몰락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 국가란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인간만이 존재하는 국가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이상 국가로 가기 위한 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결국 공산주의는 20세기 후반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정신은 살아서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⁹⁵⁾ 특히 한국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개방된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개방은 부분적 개방이지 완전한 개방은 아니며 중국에는 아직도 선교에 대한 박해와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 공산국가의 종교 개방은 기독교와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개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압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구소련 및 동구권은 외형적으로 선교를 포용하는 것 같은 입

95) 김상복, *구소련선교핸드북*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102.

장을 취하지만 많은 통제가 있다. 특히 남미와 필리핀 등의 공산 게릴라들은 여전히 기독교 선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⁹⁶⁾

인류는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과학 문명과 인간 이성의 발전을 거듭해 오던 현대 문명은 커다란 두 번의 전쟁을 겪게 되었다. 제 1, 2차 세계 대전은 인간 사고의 혁명을 요구하였다.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또 다시 변화를 겪어야만 했고 원인은 당시 서양 열강들의 전쟁이었다. 이들은 모두 다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과는 또 다른 이상 국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도 역시 인간들이 세운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싸움은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간 이성의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또한 기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적 사고에 타격을 주었다.

20세기는 17, 8세기에 시작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의 시대였다.⁹⁷⁾ 즉 그들은 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으며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인간 이성의 권위를 절대시하고 있었다. 모더니즘은 이 인간이성의 최고점을 지향하고 있다. 냉정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움직인다. 또한 역사는 진보한다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교육의 힘으로 교정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제약과 자연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더니즘은 지금 서서히 쇠퇴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1세기 동안에 겪은 일련의 시련들은 그들이 생각하던 모더니즘의 이상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더니즘에 대한 질문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제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에 한계가 없다거나 지식은 본래적으로 충분하다는 것과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한다. 모더니즘이 모든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경향을 띤다. 모더니즘이 내세우는 권위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적인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다

96) 전호진, "세계선교와 종교다원주의"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8권 (1997).

97)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3), 262.

원주의를 낳는다. 그리고 다원주의는 새로운 종교와 다종교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⁹⁸⁾ 그러므로 전 세계는 이제 절대적인 그 무엇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이 다양한 세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존하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전 세계인은 다계층 다문명이 공존하는 가운데 살게 되었다.

현대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던져야 할 때이다. 실제로 신학은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교회는 그 나름대로 시대적인 상황에 대처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부정하든 긍정하든지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사고는 오늘의 상황이며 선교의 강력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현대 사상의 사조는 개인주의로 나아간다. 그것은 개인적 사고와 개인의 업적이나 실적 위주의 목표가 중요시되는 상황이다.⁹⁹⁾ 모더니즘의 특징상 자율적인 자아를 주장하고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적인 타율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인간이성의 극대화이며 따라서 법은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사회의 근대화는 중세 기독교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던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중세 기독교 세계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 인간이성의 발견은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의 붕괴를 가져왔고 세속화의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속화와 개인주의적인 사상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기독교 선교의 위기로 이어졌다.¹⁰⁰⁾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인 회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교리가 중요시되었다. 이제까지 서구의 선교신학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로 개인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¹⁰¹⁾

98) Samuel Escobar, "The Global Scenario at the Turn of the Century," in William D. Taylor, ed.,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Michigan: Baker Academic, 2000), 29-30.

99) Ibid., 6.

100) Bosch, *Transforming Mission*, 3.

사회적으로 볼 때 근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분업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은 분열을 초래하였다. 또한 약한 개인이 무시되고 소외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근대사회는 될 수 있는 한 구별하였다. 비합리적이고 불건적이고 미신적인 전통으로부터 근대적인 사고는 모든 것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더욱 모든 것은 더욱 세분화되었고 전문적인 분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간은 거대한 산업사회의 작은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물질주의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최종목표인 유토피아적 시도로 나타난 것이다.¹⁰²⁾ 이러한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적인 사조는 기독교 안에도 스며들어 왔고 선교의 위기로 작용한 것이다.

셋째, 문예부흥과 증세를 지나오면서 인간의 개인화와 인간의 감정이 중요시되면서 극단적인 배타주의와 상대주의가 기존의 가치관에 큰 도전을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현대 기독교 선교의 협력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¹⁰³⁾

2. 선교에 대한 종교, 사상적 도전들

가. 종교 다원주의

오늘의 교회와 세계선교 상황에서 볼 때 종교 일반에 관하여 우리는 전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란 단순히 다양한 종교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구원과 신을 보장한다는 종교의 가치중립을 주장하는 종교신학이며 또한 각각의 종교는 나름대로의 진리와 구원이 있으므로 어느 종교든지 배타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자는 주장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개신교보다는 타종교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더 많이 표명했던 로마 가톨릭에서 발전한 신학이다. 예를 들면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한스 쾅(Hans Küng)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전통적 교리에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신학

101) William D. Taylor, *Kingdom Partnerships for Synergy in Mission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4), 16.

102) Karl R.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이한구 역 (서울: 믿음사, 1997), 218-230.

103) Bosch, *Transforming Mission*, 478.

적 사고에 있어 퀴보다 더 과격하게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입장들을 들 수 있다. 즉 윌리엄 호킹(William E. Hocking)에 의하면 여러 타종교는 기독교와 함께 더 큰 어떤 것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칸트웰 스미스(W. Cantwell Smith)는 종교 상호간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칼 라너(Karl Rahner)는 비기독교인은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타종교 또한 잠재적 교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WCC의 종교간의 대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시도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1961년 뉴델리대회에서 요셉 시틀러(Joseph Sittler)는 그의 논문을 통하여 에큐메니칼 논쟁에 '우주적 그리스도'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골로새서 1장 15-20절에 근거하여 창조와 속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이해하자고 호소했다. 당시 WCC 중앙위원장을 맡았던 토마스(M. M. Thomas)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한 것이다.¹⁰⁴⁾ 여기서의 '대화'는 1975년에 나이로비에서 시작이 되어서 197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로 이어지면서 1979년 킹스톤(Kingston) 중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술, 채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이웃들과 대화함에 참여해야 하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적이거나 배타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⁰⁵⁾

이처럼 '대화'에서 선교의 방향을 타신앙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특별히 지배하거나 정복할 대상으로 이교도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화하기 위한 열려진 선교신학의 일면을 본다.¹⁰⁶⁾ 그러나 이런 시도는 복음 증언에 대한 한계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칫 힌두교인들은 더 좋은 힌두교인들이 되게 하고 불교신자는 더 좋은 불교신자가 되도록 돕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선교사는 무신론자에게는 무신론자가 되고 허무주의자에게는 허무주의자가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교회

104) David J. Bosch, *선교신학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1989), 222.

105) 한국일, "증언과 대화, 기독교와 타종교의 대화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제7집 (2001), 143-172.

106) James A. Scherer, *New Directions in Mission and Evangelization I* (Basic Statements, 1974-1991), 3-88.

밖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¹⁰⁷⁾ 이들에게 선교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종교적 확신에 대한 대화적 교류가 있을 뿐이다.¹⁰⁸⁾

이처럼 본질을 벗어난 타종교간의 대화가 오늘의 새로운 선교적 도전인 종교 다원주의를 배태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이제 단순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왜곡, 상대화할 뿐 아니라 진리의 다원주의가 종교 다원주의를 낳고 결국 타종교에도 기독교가 말하는 동일한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선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¹⁰⁹⁾

나. 종교혼합주의

김세윤은 “다원주의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문제라면 혼합주의는 기독교와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⁰⁾ 복음이 타문화권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거나, 반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 문화 속에 용해되어 버리고 만다. 아시아를 경우로 볼 때 복음화를 위한 선교학적 문제는 본래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재래 종교들의 성향 속에 복음이 토착화되면서 나타나는 소위 ‘기독교 혼합주의’이다.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일부는 이색 문화에서 택하고 다른 일부는 재래 문화에서 택하여 합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음의 일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한 부분을 다른 종교적 상황에 삽입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파괴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파괴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이 진화론을 만나서 창조가 바로 진화라는 혼합주의가 되면서 아시아적 범신론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 창조론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다.¹¹¹⁾ 혼합주의는 1971년 WCC 내에 설치된 ‘산 신앙인들과의 대화’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인도신학자 사마르타(Stanley J. Samartha)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대화’만이 다원주의

107) Bosch, *Witness to The World*, 53.

108)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84.

109) 김영동, “인식론이 선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제5집 (2000), 177.

110) 김세윤, *신약성경신학 II*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05).

111) 이동주, “종교혼합주의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 *두란노목회자료큰백과* 18권 (1997).

사회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는 사마르타는 교회 연합을 넘어서서 인류 연합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계 공동체를 위한 모든 종교인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인간실존에 이르는' 다른 종교들의 '진리'를 거짓된 길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지 말 것과 성경적인 진리개념과 '존재 또는 '상태'로 파악해야 하는 힌두교적인 진리의 개념을 서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하여 힌두교와 같은 범신론 철학 체계를 수용하여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폐지하고 또한 기독교나 성령론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주의의 진행은 1968년부터 1975년까지 WCC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도 신학자 토마스에 이르러서 더 확고해 졌다. 그는 정의와 인류 연합을 위한 '투쟁의 영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인과 타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협력으로 하나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목표의 운동을 추진했는데, 그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기초한 혼합주의였다. 시리아 정교회 출신인 그는 기독교적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적 인간'으로 보았다. 동시에 그는 예수를 인간 영성의 원천이며, 심판자이자 화해자이며, 인간의 영성을 해방해 주는 분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영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개념을 '인간의 영성' '인도인의 영성' 등과 같은 수식어와 함께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인간의 영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도의 범신론적 영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1973년 방콕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토마스는 힌두교인이 대화를 통해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이동해 갈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문화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독교적 힌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는 2년 후에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를 촉구했다.¹¹²⁾ 당시 총회 주제였던 '그리스도는 연합하고 해방한다'는 내용의 강연에서 그는 대화를 통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란 문화와 종교가 서로 침투하는 거짓된 혼합주의가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교리의 차이와 장벽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형성

112) 이동주, *현대선교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5.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조주이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타종교인들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말했다. 토마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예수에게만 해당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분이 아니다. 예수와는 분리된 그리스도가 각각의 종교 속에서 상징화되었고 혼합된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대속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구원론도 마찬가지로 약화되는 것이다.

WCC가 추진한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복음 전파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기독교의 배타성을 완화시키고 타종교와 상호 이해, 상호 인정, 상호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기독교 신학의 근본 바탕을 허물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¹¹³⁾ 대화를 통한 진리의 공동 추구하고 타종교 속에서 역사하는 '영성'과 타종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종교 신학적인 시도는 여러 형태의 '다른 복음'(갈 1:6-9)을 배재하면서 포괄적인 종교 혼합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 변화하는 선교적 상황들

오늘의 세계선교에는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선교의 개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단독 선교에서 협력 선교로 바뀌고 있다. 20세기 중반의 2/3세계의 독립과 오늘의 세계화로 인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대립 구도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2/3세계에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1세계와 2/3세계의 교회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동역의 관계 즉 '온 세상이 선교지'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문화 우월주의적 선교는 그 자리를 잃게 되었다. 지금 선교지는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탈피하여 협력하면서 현지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로 전환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더 이상 서구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 기도 운동과 토착적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3) 이광순, *선교의 특수성과 보편성*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0), 205-206.

둘째, 사회적 변화로 인해 선교의 전략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선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교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의사소통 방식의 발전이 닫혀진 곳의 복음화와 원거리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선교의 새로운 흐름(선교단체, 전도방법)이 전방위 선교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CIS,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등 새로운 지역에서의 복음의 진보와 모슬렘, 힌두 그리고 불교권에서 창의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언어, 민족, 도시, 국가별 협력이 손쉽게 됐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셋째, 문화 정신적 변화로 인한 선교 과제의 변화이다. 종교적 문화적 다원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원주의가 21세기를 끌고 갈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의 과제는 종교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고 선포할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우리가 급변하는 현실의 문화 속에서 왜, 혹은 어떻게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21세기의 사명이다.¹¹⁴⁾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21세기 새로운 선교적 상황과 도전 앞에서 세계 선교는 과거 서구 선교가 이루어 놓은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월주의적 식민주의적 사고나, 한국적인 상황으로서의 교단, 교파주의, 그리고 개교회주의 혹은 선교사 개인 단독주의적인 접근은 사실상 낡은 방식이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에서 과감히 협력하고 연합하는 전략으로 돌아서야 할 때이다.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선교사, 선교사와 선교사, 선교단체들,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 각종 국제기구들간의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요 실천적 쟁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선교하는 한국교회는 선교 협력을 위한 탄탄한 성경적 기초와 복음적인 연합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선교 대상으로써의 이 세상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114) William D. Taylor, *Kingdom Partnerships for Synergy in Missions*, 8.

제 2 절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1. 세계화

세계화란 원래 경제 용어로서 각 국가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적 의사 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최근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교환을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맥러한(M. McLuhan)과 피오레(Q. Fiore)가 1967년 *매체는 메시지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그들의 저서에서 전자기술이 발전·통합됨에 따라 지구촌=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한 이래 불과 몇 십 년 만에 지구촌이라는 것이 출현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가 성큼 다가왔다.¹¹⁵⁾

과거에 이들 외에 여러 사람들도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 미묘하게 발달되고 그 유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구촌이라는 말을 가끔 들먹인 것이 사실이다. 지구촌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매우 매력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새로운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용어로서의 세계화는 이제 현대 선교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며 매스 미디어의 급진적

115) 신현종,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산경연구* 제6집, 1998 인터넷 자료인용.

인 발전은 오늘의 선교에 새로운 관계설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독단이나 폐쇄성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오직 개방과 협력의 길만이 유일한 것이다.

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세계화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자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되고 있는 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위험 부담을 극소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오늘의 정보통신 기술은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전자 정보 초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인터넷과 첨단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구축됨에 따라 상품 등의 이동 비용이 현저히 절약되고 있다. 종래 국제적 거래에 필요하던 전화나 텔렉스, 팩스는 전자우편으로 바뀌었고 상품의 카탈로그는 시디롬으로 대체되었다. 국제 거래의 가격, 지불 방법 및 기간, 거래 조건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대금 결제와 자본 이동은 전자결재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적 전자정보통신망을 비롯해 각국 각 산업 분야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산업, 재정, 금융, 주식, 물가, 환율, 국제 수지, 외환 보유고, 대외 채무 등이 명확하게 노출되어 세계적 거래에 투명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동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은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광속으로 들어갔다 가 초 광속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전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각국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 정보통신 기술은 각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을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술이 세계화의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국가, 초민족을 이루며 개방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의 기독교 선교에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¹¹⁶⁾

제 3 절 세계 선교의 동향

20세기 말에는 새로운 선교를 향하는 중대한 기회의 시대였다. 불과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물론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힘의 균형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변화는 교회에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세계의 정치적인 힘의 분포도가 새롭게 그려지듯이, 선교사의 활약상도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다수의 인종, 언어학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수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외부에 대해 열리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진영으로부터 선교 사업에 가담할 새로운 세력들을 일으키고 있다. 서구 세계가 그 정치적인 힘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영적인 힘은 비서구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어떤 분야보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교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¹¹⁷⁾

비서구 세계의 개신교 선교운동은 계속해서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다. 2/3세계¹¹⁸⁾의 복음적인 교회의 연평균 성장률도 6.7퍼센트나 되지만 2/3세계 선교운동은(거의 대부분 복음적인 선교운동만을 분류해서) 연 13.3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즐잡아 10년마다 248퍼센트의 놀라운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880년대에는 교회가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21세기에 들어서서 교회는 지상의 거의 모든 나라로 확장되었다. 그간 서구교회의 세계 선

116) 이형기, "교회성장과 에큐메니칼 운동," *선교와 신학* 제3집 (1999), 106.

117) Larry D. Pate, "변화하는 세계 선교의 균형," *현대선교* 2, 1992, 9.

118) '2/3세계'라는 용어는 미국의 선교학자 레리 페이트(Larry D. Pate가 1991년 4월호의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에 The Changing Balance in Global Mission이라는 제목 하에 기고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기존의 '제3세계'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선교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제3세계가 지구 표면의 약 2/3정도를 차지하며, 인구 면에서는 2/3 세계가 조금 넘는 현실을 착안하고 특별히 '2/3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채택하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다.

교활동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실제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선교 현장이라는 추수 밭에 서서 사역하는 일꾼들 중 2/3세계 출신의 사역자가 점점 더 증거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라고 여겨지는 유럽 대륙은 교회가 생명을 잃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혹자는 유럽의 기독교를 전기 기독교의 시대가 끝나고 후기 기독교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¹¹⁹⁾

랄프 윈터는 1945년부터 25년의 기간을 “믿기 어려운 25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서구교회의 퇴락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래리 페이트에 의하면 “세계 개신교 선교사는 전체적으로 137,170명인데 이중에 46,157명의 선교사들이 비서구 선교단체의 2/3세계 선교사들이다. 1990년말을 기준으로 볼 때 2/3세계 선교사는 전 세계 개신교 선교사 총수의 35.6퍼센트나 되고 있다. 이 선교사들은 통계적으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살며, 고난 받으며, 싸우며, 희생하며 증거하는가 하면, 종종 서구 출신의 선교사들보다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아주 효과적인 타문화권 사역을 하고 있다.¹²⁰⁾

래리 페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3세계 선교사가 서기 2000년에 가서는 서구 선교세력을 능가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¹²¹⁾

1.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계속하신 말씀은 온 세계 선교였다. 그것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마 28:19) “온 천하에 다니며”(막 16:15) “땅 끝까지 이르러”(행 1:8) 복음을 증거 하라는 명령이었다. 모든 족속에 대해 교회가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신약성경의 ‘종족’에 해당되는 단어는 ‘나라’, ‘이방’, ‘족속’으로 번역되고 있는 ‘에쓰노스’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습관, 풍습 및 그밖에 구별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결합된 사람의 집단을 가리킨다. 그것은 1974년 스위스 로잔대회 이후 이 말(종족, 족속, 나라)의 뜻이 단순한 정치적 집단의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혈연, 문화, 언어 등의 비

119) 안영권,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전략 모색”, *아신* 6집, 1991, 34-35.

120) Larry D. Pate, “변화하는 세계 선교의 균형”, 14

121) Larry D. Pate, “The Changing Balance in Global Mission,” *IBMR* (April, 1991), 60.

정치적인 요소로 구분되는 어떤 공동체로의 구성원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선교학적인 접근은 그야말로 선교 역사상 혁명적인 착상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 논쟁이 있어오다 1982년 로잔위원회 후원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40명의 선교학자들의 모임에서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1989년도 마닐라 로잔대회 이후에 랄프 윈터,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 데이빗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등의 선교지도자들이 지구상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약 12,000종족이 있다는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¹²²⁾

미전도 종족(집단)의 정확한 개념은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¹²³⁾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정의할 때 이 지구촌의 대다수(약 30억)가 미전도 지역, 종족이 우리가 선교해야 할 마지막 남은 과업이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해 눈을 돌리고 팔을 걷어 부친 이상 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범 교회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에 활발한 선교 전략회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 논의는 ‘미전도 종족 입양 프로그램’으로 이미 실질적인 선교 전략의 구체화 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랄프 윈터가 이끄는 미국 세계 선교 센터(USCWM: United State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교회와 학생 단체 들을 종족 선교에 직접 참여시키려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이 운동의 장점은 중복 투자를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외에도 지역교회를 선교단체와 직접 연결시켜 협력하게 하며 무엇보다 전 교회적으로 조직적인 기도운동을 전개한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¹²⁴⁾

이제는 한국교회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보편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122) 문상철,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 *현대선교* 1, 1992, 5-6.

123) Ralph D. Winter, “Unreached Peopl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Concept,” *The Mission Frontiers*, September 1989, 12.

124) 문상철,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 17.

2. 기독교 21세기 운동

이미 우리의 귀에 익숙한 '기독교 21세기 운동'은 1960년대부터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후 각 국별, 교단별, 각 선교회, 각 지역교회마다 저마다 추진하는 세계선교를 향한 전략들, 프로그램들을 함께 모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즉 쓸데없는 중복투자,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하고 또 복음전파의 사각지점을 없애자는 이 운동은 1989년 1월 싱가포르에서 모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략회의'에서, 그리고 같은 해 '마닐라의 로잔 2'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는 후 바로 기독교 21세기 운동이 태어난 것이다.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오는 2000년과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총괄적으로 또 분야별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주후 2000'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의 2000번째 생신에는 앞서 언급한 이 지구촌에 미전도 종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의 '2000년, 그 이후'이다. 따라서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각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일인 것이다.

기독교 21세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가정에서 전개된다.¹²⁵⁾

1. 이 영적운동의 핵심은 기도이다.
2.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적으로 각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나온다.
3. 전략회의를 통해서 비전을 나눈다.
4. 각 나라 계획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에 부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다. 실제로 홍콩은 2000년보다도 중국에 귀속되는 1997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5.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 중심의 운동이다.
6.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둔 타문화권 선교를 강조하여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7. 이 기독교 21세기 운동의 결과로 교회 없는 지역마다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다.

125) 정인수, "기독교 21세기 운동이란?" *기독교 21세기*, 1994년 3월호, 10-11.

이러한 기독교 21세기 운동은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지도자 중심의 운동이 아닌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전 세계의 관심은 서구권보다 2/3세계로 관심의 시야가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부상되고 한국교회가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1995년도에는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회의(GCOWE II)가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3. 10/40창

앞서 언급한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은 세계지도를 통해 보면 사각의 창모양의 지역에 살고 있다. 1989년의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II 대회에서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대부분의 미전도 족속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선교의 노력을 이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⁶⁾

아울러 루이스 부시는 우리가 ‘10/40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다섯 가지로 밝혔는데 이곳이 바로 현대 세계선교의 초미의 관심의 지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¹²⁷⁾

- ① 역사적, 성서적 이유 때문이다. - 즉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되며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의 발자취도, 또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지도 바로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된다.
- ② 이 지역에 대부분의 미복음화 된 부족과 국가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도 55개국의 가장 미복음화 된 국가의 30억 인구를 97퍼센트가 ‘10/40창’에 산다.
- ③ 이곳에 가장 강력한 이슬람세력이 있다. 이 지역에 세계 3대 종교(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포진하고 있다.
- ④ 세계의 빈민층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연간 국민 소득이 \$5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80퍼센트가 ‘10/40창’에 산다.
- ⑤ 따라서 이 지역에 사탄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126) Luis Bush, *Getting to the Core of the Core: The 10/40 Window* (San Jose: Partnerships International, 1990), 1.

127) Ibid., 1-5.

제 4 절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앞에서 우리는 세계선교 운동의 현재의 동향을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앞서 살펴 본대로 21세기 운동의 발기인이자 현재 국제총무로 있는 루이스 부시는 이 운동의 핵심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한두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2000년 이후까지 지속될 인류 최대, 최후의 성령운동이다. 영적으로 탁월한 한국교회 목회자와 기도로 무장한 1천 2백만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¹²⁸⁾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치와 선교 가능성,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반응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치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짧은 기간에 괄목한 성장을 하였다. 루이스 부시의 표현처럼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계 선교의 역사적 촛불은 한국교회의 촛대위에 꽃혔다”고 선언하였다. 이 얼마나 흥분된 명제인가?

이강천은 이러한 명제는 그 어떤 흥분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반문하면서 2천년간 흘러온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다.¹²⁹⁾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전도운동은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사도의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 하나님은 로마제국의 수도에 새로운 선교기지를 세우셨다. 이렇게 로마의 복음화는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 남부와 서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중해 연안 제국에 복음을 쉽사리 확산시키는 전략적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세계정복을 위한 준비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¹³⁰⁾

128) 기독교 21세기 운동 뉴스레터, 1993년 10월호, 4.

129) 이강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서울: 두란노서원, 1991), 27.

130)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11-14.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선포를 전후로 해서 복음은 로마제국의 국경을 넘어서 서반아, 고을은 물론 영국,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 까지 퍼져나갔고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에는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로마에서 유럽을 복음화 한 후 영국으로 건너간 개신교의 선교운동은 암흑기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체제정비를 한 후, 17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과 이어지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개혁교회의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선교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된다. 그 후 하나님은 영국의 윌리엄 케리로 하여금 본격적인 근대 선교운동의 역사를 열게 하셨다. 1739년 6월 13일 윌리엄 케리가 인도 선교사로 출항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영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앞 다투어서 선교회를 조직함으로써 선교운동이 불이 타오르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의 교회는 16-17세기에 걸쳐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전도한 약간의 원주민들로 형성되었다. 18세기에는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곧 바로 미국으로 번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미국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20세기 초에는 세계선교사의 1/3이 미국선교사였는데 20세기 후반에는 2/3가 미국선교사였다. 유럽교회의 선교가 점차 쇠퇴하는 중에 미국교회의 선교는 점차 성장하였다. 그 후 미국교회는 미국경제와 외교적 능력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큰 몫을 책임지게 되었다.¹³¹⁾

그러나 미국 교회의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이 인용한 1971년과 1976년의 5년간 미국교회 교단선교의 쇠퇴를 보여주는 통계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는 미국의 대표적인 6개 교단의 선교사의 수적 쇠퇴를 보여준다.¹³²⁾

표에서 보는 것같이 미국교회의 교단 선교는 이미 1970년대부터 쇠퇴일로에 있었다. 다만 교단 아닌 연합선교회 특히 믿음선교회들이 성장세를 보여 교단선교의 쇠퇴를 보충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미국 선교의 쇠퇴의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첫째는 선교사 지망생을 얻기가 힘들고, 둘째는 교회 재정이 줄고 있고 셋째는 복음의 정열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서구 교회의 쇠퇴를

131)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159.

132) *Ibid.*, 150-151.

보는 선교관계자들은 제2/3세계시대를 예견하였고 제2/3세계교회에서 새로운 선교의 동역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게 되었다.¹³³⁾

<표 2> 1971년과 1976년의 5년간 미국교회 교단선교의 통계

교단명	1971년	1976년
미국 침례회 연맹	290	214
연합 장로교회	810	438
장로 교회	391	352
연합 감리 교회	1,175	788
개신교 감독 교회	138	76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356	177
합계	3,160	2,045

1900년에만 해도 비서구의 복음주의 교회는 10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5년에는 제3세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66퍼센트에 달하게 되었다. 서구세계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1975년과 1985년 사이 평균적으로 매년 1.3퍼센트 성장하는데 반해, 제2/3세계(중국을 제외)에서는 매년 6.7퍼센트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제2/3세계의 선교 운동은 복음주의 교회의 대체적으로 두 배가 되는 13.29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10년 동안 총 248퍼센트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¹³⁴⁾

2/3세계 중에서도 복음화가 가장 뒤진 곳이 아시아인 것이 사실이다. 전 인구의 3퍼센트만이 기독교인 것이다. 그러나 선교의 열정은 도리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허버트 케인도 제2/3세계 선교를 아시아가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였다.¹³⁵⁾

이처럼 세계 선교 관계자들이 아시아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다. 아시아 교회가 2/3세계 선교시대를 주도하게 된다면 그 종의 대표선수는 어느 교회가 될 것인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한국에서 열렸던 1973년 6월의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 이상 나의 사역은 달라질 수밖에

133) 이강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36.

134) Larry D. Pate, "The Dramatic Growth of Two-Thirds World Mission," 25.

135) Kane, *기독교 세계 선교사*, 161.

없다”고 했으며 또 “선교운동의 중심부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¹³⁶⁾ 또한 허버트 케인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알려진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1984년에 한국교회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와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의 한국 상륙 100주년을 축하하며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축하할 것이 정말 많았다.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00년이 될 즈음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개신교가 우세한 국가가 될 것이다”고¹³⁷⁾ 하였다.

1983년 6월 미국 휘튼 대학에서 열린 교회의 속성과 사명에 관한 회의(conference on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가 열렸다. 여기서 한국의 노봉린은 “매일 새로운 교회가 여섯 개씩이나”, “한국: 아시아의 첫 번째 기독교 국가?” “무한정의 교회성장” 등으로 한국교회의 성장을 표현한 글들을 인용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된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국제회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셈이다.¹³⁸⁾

2. 한국교회의 선교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것같이 한국교회는 세계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직도 선교사의 숫자적인 면에서나 전교인 당 선교사 파송 비율에서 볼 때 서구교회를 따라 갈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지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결코 허황된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 동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분명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¹³⁹⁾

다음은 그 같은 세계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 잠재력과 가능성들이다.

첫째, 풍부한 양질의 선교 자원이다. 지난 120년 남짓의 선교역사기간 동안 기독교는 우선 숫자상으로 한국 땅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우선 역대 장로 출신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국 정치 최고위층에 있었으며, 군 장성의 80퍼센트 이상은 모두 크리스천임이 오래전 확인되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되어가고

136) J. Herbert Kane,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민영홍 역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1990), 23.

137) Kane,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24.

138) 방선기, “교회 성장 운동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40.

139) 성기호, “교회의 사명과 복음 선교론,” *목회와 신학*, 1991년 12월호, 246.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젊은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영적 생명력을 지닌 젊은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선교를 위한 잠재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영적 열정이 남다르다. 한국교회 만큼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또 있는가? 한국교회만큼 모임이 많은 교회가 이 세계 어떤 교회인가? 열정 없이 선교가 이루어진 때가 없다. 큰 대교회의 확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강림의 경험에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었듯이 모든 선교는 영적각성 운동의 결과이다.¹⁴⁰⁾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새벽기도 인구가 매일 새벽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는 한국교회,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 밤 철야(심야)기도회, 금식기도회, 특별기도회, 산기도 등으로 불을 태우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불꽃은 어디로 타올라 번져가야 할 것인가?¹⁴¹⁾

CCC의 김준곤은 “역사를 훑어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은밀한 기도 뒤에 있다. 그것도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절박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¹⁴²⁾

셋째, 한국의 경제적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의 축분을 한국교회 위에 다 꽃아 놓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일 중의 하나가 한국 경제의 부흥이다. 교회가 성장해도 국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계선교의 힘은 미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력이 강한 나라의 교회를 일으켜서 선교의 동력을 삼으시거나(로마교회의 같은 경우) 아니면 국력을 강하게 신장시켜서 세계 선교를 뒷받침하게 했던 것이다.(미국교회의 경우)

그런데 그 역사가 한국에도 재현되고 있다. 1961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세워질 때만 해도 우리 경제는 1인당 GNP가 \$82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1997년의 \$10,000을 넘어 2005년 현재 \$20,000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 엄청난 한국경제의 기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사실 1985년 말 한국경제의 외채는 468억 달러까지 기록하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4위의 외채국이였다. 그러나 19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46억불) 돌아서서 1988년엔 사상초유의 120억불의 흑

140) 안영권,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전략 모색,” 35.

141) 이강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63.

142) Kim Joon Gon, “Korea’s Total Evangelization Movement,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Ro Bong Rin and Nelson, eds (Seoul: Word of Life Press and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3), 50.

자를 기록했다. 외채 걱정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경제적 기적은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를 잘해서 이런 경제 부흥이 왔는가? 5공 비리 청문회서 폭로되는 비리에서 보듯이 정치는 온통 경제를 다 먹어 버리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론적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되기 어렵지 않는가? 국제수지 흑자나 여행 전면 자유화가 선교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교사의 출국이 무제한 뒷받침되며 선교비의 송금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³⁾

이제는 GNP가 15,000달러가 넘는 경제발전과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헌신으로 교회 재정은 놀랄만한 확장을 가져왔다. 한국교회는 이미 재정적으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넷째, 한국의 국위 신장과 외교적 기적 - 2/3세계는 한국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다. 1970년에만 하여도 서구세계나 2/3세계에 비친 한국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6.25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거지와 황폐한 산하가 한국방문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의 전부였었기 때문이었다. 인권탄압의 독재국가 야만인의 나라 이런 것이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1988년에 치른 세계(하계)올림픽이었다. 이미 주지하는 대로 제24회 올림픽이 서울로 낙착된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말미암아 한국은 올림픽의 구호 그대로 갑자기 세계 속에 부상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제 한국은 세계로 알려져 가고 있고, 세계는 한국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다. 이것은 역시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선교의 길을 닦는 것이다. 북방이고 동구세계이고 동남아이고 세계 어디든지 뻗어가는 국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가게 하고 조만간 공개적인 선교의 문도 열려져 갈 것이 확실히 기대되지 않는가?¹⁴⁴⁾ 더욱이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에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올림픽의 공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태권도 사범을 통한 세계선교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게 되었고, 이어

143) 이강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63-64.

144) Ibid., 66.

서 2002 세계월드컵 축구대회에서는 전 국민의 화합과 단결 속에 당당히 4강의 신화를 이루어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더욱더 한국교회는 2/3세계 여러 국가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독교 선교가 백인들에 의해 추진되면서 식민지 확장과 시기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교회의 선교운동이 저항과 반발을 보다 강하게 받았다. 한국은 그런 역사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치적인 저항을 받지 않는다.¹⁴⁵⁾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은 피식민지의 경험을 경험한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감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섯째, 한국 선교사들의 문화적 적응 능력이다. 문화 인류학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선교사들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여 기후의 적응력은 이미 뛰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선교에 있어서 한국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중국 선교를 위해 한국 선교사들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¹⁴⁶⁾ 이것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꼭 같다. 또한 2005년도 현재 한국 인구의 79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인을 미래의 선교사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도시화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날로 도시화 되어가는 현대 선교 상황에 적응하여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⁷⁾

여섯째, 한국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대양 육대주 구석구석에 한국인이 모여 사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마치 흩어진 유대인(디아스포라)이 각지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것들이 바울 선교의 거점으로 변하여 세계복음화 운동에 박차를 가했듯이 장차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공개적인 선교활동이 허락되지 않는 아시아 공산권과 중동 회교권에 한국인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¹⁴⁸⁾

145) 서정운, *교회와 선교*, 15-16.

146) 전재옥, "타문화권 선교의 현황 분석과 교회적 지평," *한국교회 2세기의 과제: 예배, 설교, 선교*,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편 (서울: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414.

147) 김상복, "2000년대 북미주 교회의 선교전략" (시카고 Divine Word 수양관에서 열린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 제3차 중앙 위원회 발표논문, 1990년 3월), 19-20.

148) 서정운, *교회와 선교*, 16.

제 5 절 한국교회의 선교 구조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교회의 선교적 위치와 가능성이 이처럼 막중한 데도 이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만한 선교매체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사실 국내외의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선교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19세기 영국교회의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 속에서 노출되는 문제들이 선교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구조로서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교파와 교단마다 안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노출되는 여러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의 선교현황을 설문조사를 근거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철저한 교파주의로 인한 협력 선교의 부진으로 한국교회가 전통적인 약점을 안고 있음은 이미 세계교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분열이다.¹⁴⁹⁾ 기독교 대연감의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에 5개 교단, 1960년대에 29개 교단이 새로 생겨났다. 이후 계속 분열되어 1970년에는 14개 교단, 1980년대에는 21개 교단이 새로 생겨났으며¹⁵⁰⁾, 1990년 이후 현재 한국교회는 13개 교파에 100여개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중에서 100개 교회 미만으로 구성된 교단이 40여개나 된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다발적인 분열 현상은 가히 신기하기까지 하다. 한국장로 교단에 속하는 교단 가운데 칼빈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교단이 어디 있는가?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교단이 어디 있는가? 보수 교단이 아닌 교단이 어디 있는가? 한두 개를 빼놓고는 모두가 보수이고 개혁주의이다.

이러한 교파주의는 자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되어 버리므로, 교리나 생활에 결함이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치더라도 다른 교파나 교인들과 비협조적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 심한 경우는 남의 교단이나 교회를 마귀의 집단인양 규정짓고 증상모략

149) 채은수, *선교학 총론* (서울: 기독지혜사, 1991), 311.

150) 기독교문사, *기독교 대연감* (서울: 기독교문사, 1991), 215-216.

함으로써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교회는 본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국교회는 이런 점을 고쳐야 외지에까지 가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선교사들은 부끄러움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직주의로 인한 평신도 자원의 동결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말하면서 특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벧전 2:9)는 말씀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성도의 거룩한 단체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장소로서 성직자는 다같이 교역의 사무를 맡은데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¹⁵¹⁾

그러나 한국교회의 교직주의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로마 가톨릭의 사제관에 접근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의 목사관에서 이탈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교직주의는 교회를 성전으로, 새벽기도회를 새벽제단으로, 헌금은 제물로, 신학교를 선지학교로, 신학생을 선지생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직주의는 목사의 의자를 높이는 등 강단을 성역화하여 예배공간을 구약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의 모형 같이 분화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교직주의는 로마 가톨릭 사제의 사죄권을 부인하면서, 목사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목사의 축복권을 인정한다면 동시에 목사의 저주권도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목사에게 종교적 카리스마적 베일을 쓰게 한다.¹⁵²⁾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핸드릭 클래머(Handrick Klammer)는 평신도를 교회의 "동결된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뜻하게 녹여" 활용하지 않으면 평신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각성시킨 바 있다.¹⁵³⁾ 실제로 교회 구성원의 거의 98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교인, 다시 말해서 평신도의 참여가 없는 선교사역은 풍성한 영혼 구원의 결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¹⁵⁴⁾

셋째, 물량적인 성장주의로 인한 전시적 선교로 오늘날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교회 성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도 많지만 반면에 성장이 잘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도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의 쇄신이 요청되고 있다.¹⁵⁵⁾

151)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219.

152) 김영한,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야신* 전5집, 1990, 35.

153) Handrick Klammer, *평신도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36.

154)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40.

155) 채은수, *선교학* 총론, 143.

교회마다 선교를 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순수한 동기에서보다 전시적이고 명분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명분-선교사 파송교회라는 명분을 중요시하며, 그 명분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선교사의 가시적인 업적 보고가 오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혹 선교보고라도 시원치 않을라치면 선교 후원을 중단한다느니, 집어 치우라느니 하면서 후원하는 선교사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선교의 동기가 순수하고 분명해야 한다. 선교는 결코 숫자 놀음이 아니다. 선교사의 수나 선교비 양이 곧 중요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넷째, 철저한 개교회주의로 인한 선교의 무관심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개교회의 대형화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개념을 상실한 채, 개교회 주의로 빠져 자기 교회만이 가장 중요하고, 이웃 교회나 약한 교회를 돌보지 않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¹⁵⁶⁾

이 같은 개교회주의는 도시 내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다른 이웃 교회나 약한 교회를 형제교회나 한 몸 된 지체교회로서 존경과 돌보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상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말하는 소위 선의의 경쟁, 또는 적자생존의 철학이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에게 까지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이웃교회와 철저한 대결 내지는 적대감까지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¹⁵⁷⁾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교지에 관심을 갖고 선교다운 선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사도행전의 선교명령(행 1:8)을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국내전도가 더 시급하다고 떠벌인다. 그러나 그 반대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하면 그것은 이기심인 것이다.¹⁵⁸⁾

156) 염두철, "해외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 구조 갱신의 방안" (석사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 1992), 26.

157) 이종윤, "한국 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한국 교회의 종교개혁*, 이종윤 편 (서울: 엠마오, 1983), 111.

158)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23-24.

태국의 신흥식 선교사는 지역교회가 선교를 이루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역시 그 근본적인 동기는 이기심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교를 뒤로 미루는 이유에는 작은 교회는 좀 더 크면 하겠다는 'size complex' 그보다 조금 큰 교회는 좀 크면 하겠다는 'super complex', 큰 교회는 안 할 수 없어 한다는 'secondary complex'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계선교의 긴급성에 비하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¹⁵⁹⁾

그래서 사실상 한국교회는 지나친 개교회 중심 선교이거나 80퍼센트 이상의 교회는 선교에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⁰⁾

이상의 4가지 문제점 외에 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지나친 선교 열정으로 인해 오는 폐단이 있다. 그것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의 난립 현상 및 무경험 선교 지도자들의 무지적 열심으로 교회 선교는 더욱더 행정상의 혼돈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2. 지역(개)교회의 문제점

우리는 3장 3절에서 세계선교의 최근 동향 및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선교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교회는 풍부하고 양질의 인적자원, 남다른 선교에의 열정,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과 발전, 한국의 국위 신장 및 일련의 외교적 기적으로 인해 2/3세계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호의적이라는 점과 한국 선교사들의 뛰어난 문화적응 능력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가. 설문조사의 목적 및 대상

여기서는 이 같은 한국 교회의 일반적 구조 속에서 갖는 선교의 장애 요소들이 지역(개)교회 선교 현황에서는 어떻게 표출되는지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59) 신흥식, "세계 선교를 걸머진 한국 교회," *미션월드*, 1991년 10, 11월호, 32.

160) 강승삼, "선교사와 교회와 교단 간의 유기적 관계," *미션월드*, 1994년 1, 2월호, 30.

본 설문조사 방법과 대상은 현재 한국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필자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 혹은 단체적으로 설문 조사지를 통해 회수한 자료이다.¹⁶¹⁾

나. 설문지 조사 방법 및 제한점

본 조사는 미국의 APMC(Association of Church Mission Committee)가 미국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계몽하려는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서, 개교회 지도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선교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APMC 조사 문항을 근간으로 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개교회 선교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갖는 한계점은 조사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출신이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평균적 선교 현황을 가늠하는 데는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며 설문지 자체가 미국적 문화에 맞게 고안된 점에서 한국 목회자들의 심성과 사고 구조에 잘 맞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 설문 조사의 분석과 현황

전체 21개 문항 중에서 1-5항은 조사 대상자의 교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 단계 설문이었는데 446명의 목회자들의 교회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소속 교단으로는 예수교 장로교가 대다수였으며 (55.6퍼센트) 그 밖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독교 장로교, 순복음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구성은 담임 목회자(전도사 포함)가 275명(61.6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교회 설립연도는 47퍼센트(213명)가 4년 미만이었으며 10년 이상 된 교회는 19퍼센트에 불과하였으며, 주일학교를 포함한 출석인원은 100명 미만이 48퍼센트(218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2백 명에서 7백 명 규모의 교회가 38퍼센트(173명)를 차지하였다. 예산 규모도 연간 2억 이하가 51퍼센트

161) 본 설문조사는 2004년도 '한신목회개발원'(원장: 이종표 목사)에서 개최한 "전국 목회자 초청 세미나"에서 조사한 것으로 2,500여명의 모인 전국목회자 중 주최 측이 밝힌 참석자들의 60퍼센트(약 1,500명)가 지방 중소도시 목회자들이라고 하였다. 총 1,500부 중에 446부를 회수(30퍼센트)하여 분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231명)나 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지방 중소도시의 중, 소형 규모의 목회자들의 선교의식 내지는 선교 현황 분석이 되겠다. 다음은 각 항목별 조사 내용이다.

(1) 목회자의 선교 지도력과 선교의식

<표 3> 목회자의 선교 지도력과 선교의식(설문 1, 12 및 20번)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선교에 지금 관심 없다.	10	2
(2)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44	33
(3) 선교에 대해 가끔 언급한다.	150	34
(4) 교회 내 선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선교 세미나도 자주 참석한다.	20	4
(5)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으며 동참할 수 있게 동기 부여를 한다.	122	27
계	446	100

설문 12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개념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80퍼센트의 목회자가 바른 개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설문 20에서는 선교의 정의를 물었는데 의외로 응답자의 30.9퍼센트(141명)가 하나님의 선교사상인 교회가 행하는 국외의 사회참여와 봉사라고 답하였다. 지역교회의 선교의 성패는 전적으로 담임 목회자의 선교 지도력(mission leadership)에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선교의 개념 내지 당위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중, 소도시의 목회자들은 이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32.7퍼센트) 선교에 가끔 언급할 정도(34.1퍼센트)라고 응답하였다.

(2) 선교위원회(질문 7)

<표 4> 선교위원회(설문 7)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아직 선교위원회가 없고 선교 사업은 목회자 중심으로 실시할 뿐이다.	233	50
(2) 교회가 이제 선교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78	39
(3) 선교위원회가 세워지고 일반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13	3
(4) 선교위원회가 성문화된 선교규정(회칙관리)을 가지고 있다.	35	6
(5) 선교위원회의 구성 요원의 절반이 선교훈련 등을 받거나 받고 있다.	7	2
계	456	100

선교위원회는 지역교회의 전반적인 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가 선교를 위한 구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 선교위원회가 없거나 이제 겨우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응답이 90퍼센트다.

(3) 선교 전략-선교 정책

<표 5> 선교 전략-선교 정책 (설문 8)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교회가 성문화된 선교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248	70
(2) 선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25	7
(3) 몇 가지 선교 원칙이 세워져 있다.	49	14
(4) 완전히 성문화된 선교 정책이 개발 중이다.	18	5
(5) 매년 선교사업이 검토되고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15	4
계	355	100

(4) 선교 전략-선교 목표

<표 6> 선교 전략-선교 목표(설문 9)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선교 목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55	17
(2) 몇 가지 일반적인 선교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175	52
(3) 몇 가지 특별한 목표 : 계획, 기도, 예산, 새 회원 모집 등이 설정되어 있다.	20	6
(4) 목표는 충실히 추구되고 매년 평가되고 있다.	15	5
(5) 장기계획과 목표가 다함께 설정되어 있다.	67	20
계(무응답: 114명)	332	100

선교는 영적 전투이다. 전투에는 전략이 필수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전략을 직접 언급하셨다.(눅 14:31-32) 피터 와그너도 “훌륭한 관리와 사려 깊은 계획(전략)은 선교와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업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고 했다.¹⁶²⁾ 선교

162) Peter Wagner, *기독교 선교 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11.

정책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교회 내 각 부서들이 회칙이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교도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원칙들을 정해서 이를 성문화시켜 두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선교 정책이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한국 선교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20.1퍼센트가 선교에 있어서 장기계획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역교회가 선교에 더욱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평가이기도 하다.

(5) 자극 1-선교 교육

<표 7> 자극 1-선교 교육(설문 10)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선교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5	
(2) 교회가 가끔 선교에 대한 교육을 가진다.	177	42.3
(3) 선교에 대한 자극이 매년 모임 또는 세미나를 통해 유지된다.	56	13.3
(4) 교회 선교교육 자료가 이용 가치가 있으며 또 사용되고 있다.	111	26.5
(5) 교회 선교교육 과정이 전체적인 교회 프로그램과 잘 조정되어 있다.	49	11.7
계	418	100

(6) 자극 2-선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

<표 8> 자극 2-선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설문 11)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교인들이 선교의 사명을 약간 인식하고 있다.	73	15.3
(2) 교인들이 선교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있다.	150	31.9
(3) 정보와 기도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비전이 확대되고 있다.	155	33.0
(4) 교회가 세계적인 비전과 전략의 기반 위에 직원과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36	
(5) 교회가 불타는 기도와 함께 현금 및 인적 자원을 증가시키며 할당하고 있다.	55	11.7
계(무응답: 23)	469	100

선교 교육의 결과를 보면 42.3퍼센트의 교회가 선교에 대한 교육을 가끔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교육을, 또 어떤 교재로 누가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설문 조

사서에서조차 언급이 없었다. 선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에서 65퍼센트의 응답자가 선교 사명을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 교회의 비전이 확대된다고 한 것을 볼 때,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선교교육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교교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조사하려면 좀 더 기술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 열의에 세계를 품은 기도가 열려지고 있는 현실은 제대로 된 선교 교육의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인지 모른다.

(7) 파송-모집/목양

<표 9> 파송-모집/목양(설문 13)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선교 활동에 대한 고취가 없다.	4	
(2) 선교 활동에 대해 고취는 있으나 모집, 양육, 파송같은 효율적인 단계가 없다.	221	74.1
(3) 교회가 짧은 기간이나 또 다른 선교 봉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42	14.0
(4) 교회가 선교 봉사를 향한 제지훈련과 상담학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20	
(5) 교회가 자기 교인 중에서 선교사를 발굴하고 격려해서 파송한다.	11	
계(무응답: 148(33퍼센트))	298	100

우선 무응답자가 33퍼센트인 것을 보면, 이 질문에 응하는 목회자들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개교회가 선교사를 모집해서 그 안에서 양육 받고, 훈련받아서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간 교계 신문에는 이 '선교사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선교 실상이기도 하다.

(9) 파송-선교지에 대한 관심

교인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에 '우리 선교사'라는 강한 금지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선교사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관심을 표하게 될 것이다. 전향(모집, 목양)과 같은 한국교회 구조에서 (1), (2)단계를 합한 수치가 85퍼센트에 이른 것을 당연한 결과이다.

<표 10> 파송-선교지에 대한 관심(설문 14)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교인은 개인적으로 선교사들과 관련이 없다.	174	39.0
(2) 교인은 자기 선교사들을 알고,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성을 인식한다.	203	45.5
(3) 대체적으로 교인은 자기의 선교사들과 간헐적인 연락을 갖는다.	43	9.0
(4) 교인들이 사역 기간 동안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을 돌보도록 고무되고 있다.	22	
(5) 교회가 선교사들을 현장에 찾아가 격려하며 기도한다.	4	
계	446	100

(10) 지원-선교사에 대한 홍보, 기도

<표 11> 지원-선교사에 대한 홍보, 기도(설문 15)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가끔 후보에 게재할 뿐이다.	137	29.7퍼센트
(2) 정기적으로 후보에 선교사 동정을 싣고 기도한다.	172	37.3퍼센트
(3) 후보에 고정 선교란을 두고 선교게시판, 홍보물을 따로 준비한다.	49	10.6퍼센트
(4) 후보를 통해서 선교사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선교지에서 온 선교 소식을 갖고 온 교인과 함께 기도한다.	78	16.9퍼센트
(5) 전 교회적으로 구체적인 선교소식과 함께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는 단계까지 와 있다.	25	
계	461	100퍼센트

(11) 지원-국내 전도비를 제외한 교회의 선교 예산

<표 12> 지원-국내 전도비를 제외한 교회의 선교 예산은?(설문 16)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교회 전체 경상비의 5퍼센트 정도	135	33.0
(2) 교회 전체 경상비의 10퍼센트 정도	220	53.7
(3) 교회 전체 경상비의 20퍼센트 정도	45	11.0
(4) 교회 전체 경상비의 30퍼센트 정도	7	
(5) 교회 전체 경상비의 50퍼센트 정도	2	
계	409	100

파송한 선교사에 대한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함께 묶어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대한 무게와 소중성을 교회가 더 깊게 깨달을수록 해외 선교비가 경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선교 현지의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 갖게 될 것이다.

(12) 선교사 파송

<표 13> 선교사 파송(설문 17)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단독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10	2.3
(2) 파송된(협력)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148	33.1
(3) 현지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35	8.0
(4)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	24	
(5) 앞으로 ()명을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10명 이상	194
	5명 이상	148
	2명 이상	112
계		

선교사 파송 현황은 지방 증, 소도시를 감안할 때 단독 파송은 극히 적은 숫자(10명)였으며, 대부분의 선교사 파송은 협력 선교를 하고 있었다.(33.1퍼센트)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2-1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응답한 숫자가 조사 응답자 총 수보다 더 많은 454명이나 되었다. 이것으로도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사 증가 추세가 어떨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3) 교회 성장과 선교와의 상관관계(설문 21)

<표 14> 교회 성장과 선교와의 상관관계(설문 21)

질문항목	응답수	퍼센트
(1)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본다.	22	
(2) 서로 약간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150	31.6
(3)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할 것이다.	78	16
(4) 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224	47.2
계	474	100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역자들의 최대의 관심 사항인 교회 성장과 선교와의 상관 관계를 질문했다. 우려와는 달리 선교를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편(도구)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선교를 적극적으로 할 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는 건전한 관점을 피력한 자가 다수였다.

라. 지역 교회의 선교적 과제-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 조사의 통계를 볼 때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교회가 아직도 교회 내에 선교 위원회와 같은 선교기구나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그러나 목회자들의 선교 의식은 상당한 수준까지 계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바른 선교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선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 선교사 양육에서 파송까지 이르는 기구나 관심이 거의 없다. 다섯째, 협력 선교사 후원이 대다수이며 그것도 물질만의 후원이 대다수이다. 여섯째, '협력선교(사)'란 말을 쓰면서도 아직도 지역 교회와 개교단 수준의 협력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일곱째,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선교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 4 장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구조 도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의 두 구조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중에서 '선교구조'가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었는지 시대적으로 대강 살펴보았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세계선교의 추세 속에서 어떤 교회 구조로서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교회 구조는 사실상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성이 있으면서 아울러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 제시하는 선교 구조도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적 교회 상황 하에서 선교적 구조 형성을 위해 몇 가지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선교를 위한 교회 구조 갱신의 근거

교회 목적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크게 '예배'와 '증거'로 말할 수 있다.¹⁶³⁾ 이것은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의 두 구조와 관련이 있다.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다시 '통일성'과 '다양성'이 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도적 공동체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통일성과 부차적으로 수납된 진리인 다양성 속에 동시에 표현된다.¹⁶⁴⁾ 그래서 이같은 교회의 속성과 기능적 측면에서 지역교회가 목회적 구조 혹은 회중 구조를 갖게 되며, 선교 단체가 선교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163) John R. W. Stott, *Personal Evangelism* (Downers Grove : IVP, 1964), 3.

164) Riew, Yong K.,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s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109.

다.¹⁶⁵⁾ 우리는 세계 선교의 정당성을 교회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시는가? 헤리 보어(Harry R. Boer)는 다음과 같이 선교가 본질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상 명령의 능력과 의미는 전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서로 관계가 깊다는 뜻이다....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신약의 교회가 해야 할 많은 활동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다. 이런 이유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¹⁶⁶⁾

본장에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선교 구조를 살펴보았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다 선교 지향적 구조임을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장막의 구조'와 같은 교회 구조에 대한 시내산 예서의 계시가 있는가?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¹⁶⁷⁾ 따라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구조와 형태는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정황과 교인의 삶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특수한 지역에 처한 지역 교회가 그 주어진 장소에서, 그곳의 참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 때 그 구조는 그 지역의 정황과 지역에 맞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구조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2차적인 것이었다. 구조는 교회로 하여금 그 맡은 바 핵심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의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구적인 구조가 교회 자체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더구나 교회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¹⁶⁸⁾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는 그의 책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에서 교회 구조를 포도주 부대로, 교회 본질을 포도주로 비유하여 그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교회 구조는 시대에 따라 구조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대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변화를

165) 그 특징을 보면 Modality는 포괄성, 지역성, 다양성, 지속성 등이 있고, Sodality는 비 전통성, 기동성, 강한 지도력과 헌신, 개혁성, 비 지속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166) Harry R. Boe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119.

167)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75.

168) Alvin R. Gran,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48.

초래하고 변화를 산출하는 모체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단 한 번에 바꿈이 아니라 낡아질 때마다 반복하여 바꾸어야 한다.¹⁶⁹⁾

따라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인 선교를 위해 교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를 위한 적합한 구조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선교 지향적 교회 구조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공장의 근로자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교회도 선교사명을 위해서 선교 복을 착용해야 한다. 선교 사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교회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선교를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인 개개인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총체적인 선교 개념으로 전환하여 흐려지는 복음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실제적으로 리드하는 목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로, 목회자의 선교적 지도력의 갱신이 요구된다. 선교의 성패는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따라 결정된다. 즉 한 교회의 선교 사역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는 담임 목사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범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은 모두가 강한 선교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가 이끌고 있다.¹⁷⁰⁾

그러나 개교회 지도자들은 선교 문제에 있어서 흔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를 받지 않는 선교 사역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목사 자신은 선교 방면에 대해서 거의 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 교단의 선교 기관에서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교에서부터 목회 사역의 필수 요소로서 선교를 가르치지 않고, 또한 커리큘럼 상에서도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교 사역은 과외의 일이며 지역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한 후에야 참여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남녀 전도회에서도 선교 이외의 다른 일의

169)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2.

170) Terry Herbert, *오늘의 세계 선교*, 윤혜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80.

행사로 바쁘다. 이는 모두가 선교 지도자의 박력 있는 선교적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더 많은 예산이나 건물 또는 프로그램,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고 더 깊이 헌신하는 것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¹⁷¹⁾

따라서 목회자들이 먼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목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해외 선교지를 직접 방문 답사하고 선교 현장을 목격하여 선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선교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서로 좋은 내용들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10-20년 전 만해도 선교에 관한 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선교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다.¹⁷²⁾ 목회자들은 “지도자가 피지도 자들보다 앞서 있지 않으면 결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¹⁷³⁾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혼자만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전 교인의 자발적 동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전 교인의 자발적인 선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예배이다.

둘째로, 예배의 경신을 통한 선교 정신의 고취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세보다 예배 구경꾼으로, 순종과 결단의 태도로 설교를 듣기보다는 들어주고 평가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아직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벗지 못하여 예배를 복 받으려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이는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정식적인 예배를 통해 선교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강력한 선교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가장 최근의 일어난 선교사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는 기도 편지 등을 복사해서 주보에 주거나 주보의 한 면을 늘 선교 관련 기도 요청의 내용을 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71) Kane,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210.

172) Ibid., 48.

173)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325.

특히 수요 기도회 시간을 일상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버리고 선교에 관련된 기도 요청을 소개해서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유익할 것이다.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귀국중인선교사들이나 선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메시지와 슬라이드 등을 통해 도전 받고, 특정한 선교사나 선교 지역을 놓고 얼마 동안 집중적인 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¹⁷⁴⁾

더욱더 효과적인 것은 1년이나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 교인 선교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전 교회가 총력적으로 축제적 분위기 가운데서 선교 수련회를 개최하고, 이때는 이웃 지역 교회도 함께 참여하게 하고 찬송도 선교 주제에 맞추고 강사도 선교사, 선교 지도자들을 내세워 진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인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불어 넣어주는 길은 없다.¹⁷⁵⁾ 이렇게 강단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풍요한 성경적 주제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면 선교의 주제는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예배를 통한 선교 교육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교 교육이 주일 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로, 선교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한국 교회는 1988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선교한국'을 통해 수많은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쓰임 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의 주역이 될 이들은 분명히 한국 교회의 소중한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선교 헌신자가 배출되어도, 교회가 이들을 품고 훈련하여 파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의 헌신은 교회 안에 고여 결국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선교의 자원이 될 학생들을 바르게 선교 교육을 한다면 오늘 선교지에서 요구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선교 갱신은 물론, 필요한 곳을 흐르는 물로서 우리의 학생 자원들은 세계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그들의 생애를 드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 미국 교회에서 외국으로 나간선교사들 중의 많은 수가 12세 미만에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통계가 있

174) 배운호,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미션월드*, 1991년 2월호, 38-39.

175)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의회, 1984), 274.

다.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보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원한다면 지금 주일 학교에서부터 선교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이다.

전재은 개교회와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린이 선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선교사 교육을 선교사 훈련원에서 단 기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자질 형성과 준비는 기독교 가정과 개교회에서 유년기부터 받는 교육으로 시작된다. 부모가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한국이 아닌 타 민족, 낯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부터, 부모가 낯설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서부터 선교사 교육은 시작된다.¹⁷⁶⁾

최근 들어 선교 교육에 관한 교재들이 속속 발간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선교 현장과 연결되는 선교 교재들이 많이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선교 요원을 육성하는 교회 구조-이분화의 극복

대개의 교회는 한 두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한 후에 선교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선교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선교는 초대 교회와 같이 전 신자의 일이어야 한다.

선교의 '소명자'는 용감하고 고상하며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요, 그들은 언제나 '약간 이상한 가까이할 수 없는' 부류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로 간주되며 그들은 믿음의 생애(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를 살피고 고독과 빈곤, 오해와 배척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으로 여겼다.

허버트 케인은 이 같은 생각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가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가정을 가구며 호화롭고 안락한 좋은 집에서 살 자유를 가졌다. 이들은 친절하고 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좋은 것들을 맘껏 즐기는 반면 '소명'있는 사람들은 모든 희생을 다하도록 기대되었다.¹⁷⁷⁾

176) 전재욱, "한국 교회의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 빛과 소금, 1988년 1월호, 68.

이 얼마나 근거 없고 비성경적인 이분화인가? 이러한 이분화 때문에 선교사들은 불필요한 고통과 빈곤을 겪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풍요를 잃었다. 이같은 이분화가 시작된 것부터가 잘못이었는데, 그 잘못이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¹⁷⁷⁾

이 얼마나 엄청난 아이러니인가? 세계 복음화의 지상 명령은 결코 선교사들의 손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원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 없이,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과 같아서, 만약 후방의 화력지원(기도)과 병참지원(물질)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처럼 국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선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들도 역시 그들이 최고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혹은 부요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여야 한다.¹⁷⁸⁾

이처럼 개교회의 평신도들의 선교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신도 자신이 직접, 간접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고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가 있어야 한다. 오대양 육대주를 다 선교한다거나 지원 요청을 해오는 선교사는 모두 다 수용하여 선교한다는 것은 전략상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교회마다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살려서 지리적 선택, 문화의 선택, 종교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가 선정되고 선교사를 파송했을 경우, 교회는 선교 홍보자료들을 계속적으로 광고함으로써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이다.¹⁸⁰⁾

이런 면에서 탁월한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다. 전주의 안디옥 교회(원로: 이동휘 목사)는 전교회를 선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는 재정 구조, 제도적 구조, 의식 구조의 갱신을 통해 교회 개척 때부터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177) Kane,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209-210.

178) Ibid.

179) Ibid.

180) 배운호, "지역 교회와 선교 정책," *미션월드*, 1991년 8월호, 42-45.

전 교인을 선교 요원화하는 교회로서 한국 선교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전주 안디옥 교회의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이 기록되어 있다.

- 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도가 된다.
- ② 본 교우는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선교원(선교사)이 된다.
- ③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 선교와 농촌 선교 및 특수 선교에 주력한다.
- ④ 교회 재정의 60퍼센트 이상을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 ⑤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는 원칙으로 한다.
- ⑦ 교회의 모든 사업과 집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¹⁸¹⁾

안디옥 교회는 제도적 구조 갱신의 일환으로 10개의 선교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는 재정 지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갖고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사업을 당회나 제직회의 제재로 형사가 좌절되거나 지체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명칭도 남녀 선교회의 이름을 각국 이름으로 명칭케 하여 총 79개의 선교회가 연령별로 구분되어 활동한다. 그래서 각 기관은 그 나라를 위하여 1년간 기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개교회의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봉사 사명은 일반 교회 형태와 같다.¹⁸²⁾

이처럼 평신도 선교 요원화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 현황을 교회 안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선교지로부터 온 최신의 선교 사진, 편지를 선교 현황판에 게재하거나, 특별한 선교 집회의 소식, 선교 신간 서적을 광고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평신도를 위한 '선교 학교' 운영을 성경학교와 같은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교회 내에 선교 관련 정기 간행물을 포함한 기본적 선교 관계 도서들을 한데 모아 선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선교 도서관의 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영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선교) 도서관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는 교회치고 그 성과들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렇

181) 이동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월간 선교 21세기*, 1994년 3-4월호, 105.

182) Ibid., 102.

게 적은 투자로 그토록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없다. 교회 도서관이 잘 되어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도서관 관리인의 부족, 혹은 빈약한 장서, 혹은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자세 등이다.¹⁸³⁾

무엇보다도 참으로 선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지원에 있다. 위대하고 용기 있는 사도 바울도 증보 기도를 통한 영적 후원의 절실함을 말하고 있다(엡 6:10-20). 교회가 기도 후원자를 많이 육성하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 교인을 위한 기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무장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는 평신도 선교사(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개교회가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기독교 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 구공산권을 포함한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를 거부하거나 입국 비자 발급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해외여행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국제간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의 범위는 더한층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원, 수의사, 영어 교사, 기계 및 석유 기술자, 광부, 농업 기술자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교한국'과 같은 대규모 선교집회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 교회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아직도 요원한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금부터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단기간 선교 훈련을 통해 1년 내지 3년간 앞서 파송 받아 나간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서 시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선교지의 선교사는 안식년을 갖게 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사 교환제도'를 하게 될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유익을 들고 있다.

첫째는, 20대 청년이 나갈 경우 타문화권선교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183)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360.

둘째, 그 신학도 및 전도사가 돌아와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선교 교육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셋째, 1년 및 3년의 선교 실습기간의 학생인 경우, 미혼이 많음으로 선교비가 적게 든다는 것.
 넷째, 국내에서 도시로 몰리는 전도사 지망생들, 신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가 일터임을 보게 하는 것.
 다섯째, 이러한 후원을 하는 개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¹⁸⁴⁾

따라서 지역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 뒷받침한다면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선교사를 더욱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로서 해외 선교회원을 초교파적, 범교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회 '바울 선교회'의 활동은 전문 선교 단체 수준 이상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비울 선교회가 운영하는 선교사 훈련원은 전국적으로 선교 사역 훈련생을 모집, 전형한 후,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훈련시키며, 4개월간의 국내 훈련 후 필리핀에 있는 본 선교사 훈련원에서 10개월 과정으로 훈련시킨다.

이처럼 지역 교회가 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선교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선교 정책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선교의 문제점들을 제직회와 당회에 내놓아야 한다.¹⁸⁵⁾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의 선교 위원회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선교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에게 선교에 관한 각종 정보, 선교자료들이나 선교 세미나 등을 알려주어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다.
 둘째, 교회의 선교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시킨다.
 셋째, 모든 교인들에게 선교를 홍보한다.
 넷째,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운동에 모든 교인이 참여토록 한다.
 다섯째, 교회 내 선교 교육을 감독한다.
 여섯째, 보냄을 받을 선교사들을 준비시킨다.
 일곱째, 연례 선교 대회를 개최한다.
 여덟째, 선교 예산을 관리한다.¹⁸⁶⁾

184) 전재욱, "한국 교회의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 68.

185) 박영호, *선교학*, 173.

186) Bill Waldrop, "선교 위원회의 조직 운영," *미션월드*, 1990년 12월호, 20-21.

이처럼 선교 요원화되게 이를 계속 지도 감독하는 기구인 선교 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선교 정책과 규정은 개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례에 따르거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몇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교 위원들은 2-3년만 지나면 교체가 되고, 또 담임 목사도 바뀔 수 있다는 점, 교회의 선교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교 정책을 반드시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¹⁸⁷⁾ 선교 정책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할 것들로서는 선교 목적에 대한 진술, 선교 위원회 조직, 선교의 전력, 선교 교육과 지원책, 선교사의 자격의 기준, 선교사의 지원 원리, 선교사의 보고 조항, 사역에 대한 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¹⁸⁸⁾

제 4 절 총체적 선교와 협력 사역 지향적 교회 구조

1. 총체적 선교

사실 선교학계는 지난 1910년 에든버러 대회 이후 IMC(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태동되면서 오랫동안 선교의 개념 논쟁으로 혼란을 겪어 왔었다. 그 후 발전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새 선교 이론으로 사회복음 그도 인간화를 선교로 보게 된 것이다. 급기야는 1973년 방콕에서 있었던 제4차 WCC¹⁸⁹⁾에서는 주제 자체를 사회적 구원에 맞추는 전환점이 되어 '선교'-'전도' 등의 용어까지도 일제히 재해석하게 되어, 지난 1900년간 사용되어 왔던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¹⁹⁰⁾

한편 복음주의자들은 1974년 로잔에서 체결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로잔 언약을 초안한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도의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까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⁹¹⁾ 이렇게 보수주의 적

187) 배운호, "지역 교회와 선교 정책," 44.

188) Ibid., 45.

189) IMC는 1961년 WCC와 통합하게 된다.

190) Arthur Glasser, Donald McGavran, 현대선교신학,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101.

191)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27-34.

인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이 소극적인데 비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반대로 사회 구원을 전부로 알아 치우치는 양극화 현상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인격에서 영육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과 같이 구원에 있어서도 영혼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병과 상한 마음을 함께 치료하여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상에 누워 있는 증풍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5)고 하시고, 나중에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11절)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 그 이상이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 모두의 구원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전인격의 구원을 뜻한다. 기독교 선교는 온 세계의 구원을 지향한다. 그것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구원은 우선은 개인적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것이다.¹⁹²⁾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절실한 선교적 과제 중의 하나였다.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물량적으로 놀랍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에 걸맞은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다. 사회봉사에 너무 등한시해 왔다.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봉사를 전도의 열매로 보는 견해, ② 봉사를 전도의 수단(조건)으로 보는 견해, ③ 상호 병행하는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¹⁹³⁾ ①은 지금까지 취해온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이며 ②는 봉사가 어떤 복음의 동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도의 수단으로 될 때는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 예수님도 먼저 믿어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런 면에서 한국에서 초기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선교를 폄하한 감리교가 이를 예증하고 있다. 봉사는 전도의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한 표현이 되어야 마땅하다. ③의 견해는 전도와 봉사와의 관계를 상호 동반자로 대등하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제까지 보수주의 견해이고 ①보다 봉사를 더욱 증시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¹⁹⁴⁾

192) Kane,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92-93.

193) 김영애, “개교회의 선교 현황과 문제점 연구” (선교학 석사 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4), 24-25.

194) Ibid.

이러한 견해는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 중 그 어떤 것에 우위를 둘 수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또는 신자 각자의 주어진 소명에 따라 충실해야 한다. 로잔 언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스토티는 전도와 봉사가 서로에게 속해있으면서도 서로 독립적이며 그러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며 양자는 모두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⁹⁵⁾ 이에 대해 간하배(Harvie M. Conn)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즉 복음전도 명령(마 28:19-20)과 문화명령(창 1:28)을 전도와 봉사로 보고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도 아니며 둘 다 동시에 취하는 관계도 아니고 어느 것에 우열을 두는 관계도 아니다”¹⁹⁶⁾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체적 선교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통일성과 획일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교리, 의식, 교회 구조의 획일성은 교회의 본성이 아니다. 다양한 봉사와 섬김, 아역이 다 선교 안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였다(빌 1:18). 그러기 때문에 선교를 개교회, 개교단의 단독적, 독점적 사역은 옳지 않은 것이다. 협력 사역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협력 지향적인 교회 구조

3장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 교회의 교질적인 개교회주의, 개교단 주의, 그리고 극심한 교단 분열과 상호 대립은 선교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한국 교회는 그간 성장에만 모든 정력을 쏟아 바친 결과, 분열되어 이비대해진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선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는 이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 선교의 모습도 새로워져야 한다. 교단과 교단간, 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경쟁적 선교도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한국 교회와 서구 선교 단체 간의 주종적 또는 지배적 선교도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움직임이 선교계에서는 사실상 벌써 시작되었었다. 이미 1988년 1월에 보다 성숙한 한국 교회의 선교를 모색하는 한국 동반자 선교 협의회(Korea Partnership Missions Fellowship)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귀중한 취지를 갖고 출발한 이

195)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27.

196) 김명혁, *신앙과 현실* (서울: 성광문화사, 1987), 213에서 재인용.

협의 기구도 그 후 한두 번도 잘 모이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만 것이 한국 교회의 선교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 동반자 선교 협의회 창립 전부터 이같은 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힘써온 동선교회의 총무 김명혁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협력 선교(동반자 선교)를 해야 할 분야를 7가지로 밝히고 있다. 그것은 ① 선교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선교 단체와 한국 교단이 서로 상의한다. ② 선교사의 법적인 문제는 한국 교회가 책임지도록 한다. ③ 선교사에 대한 재정문제도 한국 교회가 책임진다. ④ 선교지 선정과 같은 중요 선교 정책을 결정할 때 본국 교회와 상의해야 한다. ⑤ 안식년도 선교단체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지 말고 한국 교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⑥ 각 교단에서 선교사 훈련 세미나 또는 훈련 기구를 개설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그때에는 여러 교단이 서로 의논해서 서양선교 단체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초대해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지도도 받아서 각 교단의 선교 세미나를 도와주게 함으로 교단과 선교단체와의 밀접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⑦ 선교지 선정은 여러 교단이 상호 협력하고 분석해서 결정한다.¹⁹⁷⁾

이처럼 선교에 있어서 ① 협력 사역의 영역은 교단 상호간의 협력, ② 파송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협력, ③ 선교지 교회와 파송 교회간의 협력, ④ 선교단체간의 협력, ⑤ 국내 파송 교회와 국제 선교 단체와의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서로 다른 교단 파송 선교사들 끼리 선교지에서 서로 이견투구하는 현상이 이따금씩 보게 되는데 이것은 본국에서부터 교단 상호간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교회는 서구 교회들이 처음 선교를 할 때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교파주의에 반발하여 장로교, 감리교 교리를 혼합한 복음주의 교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선교지 상황에서 다시 한국 선교사들이 서로 교단이 다르다고 경쟁적으로 일한다면 선교사의 권위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주게 된다.¹⁹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서로 초교파적으로 연합할 부분은 먼저 선교지 선정, 선교사 훈련, 선교 정보 교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단체 상호간에도 긴밀한 연합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선교 협력을 위해서 대표적인

197) 김명혁, *동반자 선교* (서울: 엠마오, 1988), 16-17.

198) 전호진, *선교학*, 112.

기관으로 한국 복음주의 선교학회, 선교단체들의 연합 기구인 한국 기독교 선교 단체 협의회, 선교사 교육과 훈련을 위한 초교파 연합기관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등이 있다. 또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한국 전문인 선교 협의회 등이 지금까지 꾸준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초교파적으로 운영될 선교사 훈련 기구를 위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¹⁹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송 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협력이다. 서구 교회는 교회를 통해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기 보다는 전문 선교 단체를 통한 선교가 더욱 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갈등 또는 대립의 양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²⁰⁰⁾ 그러면서도 양자는 선교적 측면에서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왔다고 하겠다.

일찍이 교회 구조와 선교단체를 성경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2대 기구라고 했던 랄프 윈터는 한국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 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²⁰¹⁾

본 논문에서 살펴 본대로 지역 교회는 목회적 구조로서 선교 운동에 취약한 구조이며, 선교 단체는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 단체인 것이다.²⁰²⁾ 그래서 양 구조는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직도 어떤 자들은 선교 단체의 역할을 부정하고 지역 교회만이 유일한 합법적 기구라고 극단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선교 단체의 존립의 타당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따라서 공헌이 밝혀지고 또한 현실의 필요성도 인정받고 있다.²⁰³⁾ 이처럼 지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에는 항상 필요를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고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기존하는 문화적 형식을 받으며 하나님은 두 구조를 함께 축복하셨다. 따라서 두 구조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그들 자신을 목적하는 것

199) 전호진, *선교학*, 112.

200) 도문갑, “선교의 주역-교회인가? 선교 단체인가?”, 2-3.

201) 랄프 윈터 박사 인터뷰, *미션월드*, 1990년 창간호, 53.

202) 피터 와그너는 sodality 구조인 선교단체는 처음부터 사람 지향적이기 보다, 과제 지향적인 면(Taskoriented)이 강한 것이 특색이라고 하였다. Peter C.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 1981), 187.

203) 남전우, “선교 단체에서 바라보는 교회”, *목회와 신학*, 1990년 6월호, 75.

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²⁰⁴⁾

이와 같이 두 기구는 결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상호 의존해야 하는 공생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두 구조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선교학자들은 여러 가지 비유나 유추를 사용했는데 랄프 윈터는 그의 논문으로 유명해진 '날줄과 씨줄의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두 개의 구조가 항상 전체를 구성한다고 풀이하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 운동의 천'을 짜는데 필요한 날줄과 씨줄은 교회 구조와 선교 구조를 의미하며 서로 의존적이라고 이 논리를 통해서 증거한다.²⁰⁵⁾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선교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날줄과 씨줄같이 또한 몸과 다리같이 서로 간에 상호 협력 하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선교 단체들도 그 전문성에 손색이 없어야 하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의 모든 결과(열매)가 지역 교회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²⁰⁶⁾ 선교 단체는 성격상 자주적으로 일하되 그들의 사역이 어디까지 교회와 함께 하는 일이므로 각 교단 선교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이긴 하지만 선교 단체를 무시하고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선교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랄프 윈터는 개교회의 독자적인 선교활동의 비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타문화권 선교는 한 교회가 선교사를 지도하고 후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리적으로 멀다. 한 교회가 선교사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역사적으로 한 교회가 선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²⁰⁷⁾ 만약 지역 교회가 저마다 직접 선교에 나서서 선교사 선택, 훈련, 파송을 다 감당한다고 해보라. 이렇게 되면 선교는 대교회만의 일이 되고 전체 교회와는 거

204)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188-189.

205)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183.

206) 이태웅, "교회와 선교 단체, 뿌리와 줄기", *목회와 신학*, 1990년 6월호, 85-86.

207) Ralph D. Winter, "현대 선교의 쟁점," *미션월드*, 1991년 2월호, 48.

리가 멀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노력의 중복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선교지 사역의 난맥상도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제 선교 단체와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서구 선교 단체에 일방적으로 의존적, 피동적 자세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수한 서구 선교 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선교 경험을 겸허히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서 새로운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적 선교 정책을 개발하려는 창의적 정열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서 선교지 교회와의 협력선교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타문화권 선교는 근본적으로 현지 교회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교회나 내 교파를 심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내 선교단체 운동을 선교지에서 강화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현지 교회가 참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를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잘 훈련된 현지인 지도자가 유능한 외국인 선교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문화와 풍습,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잘 알고 생활하는 현지인 지도자야말로 모든 족속을 복음화 하는 최선의 통로(bridge)가 되기 때문이다.²⁰⁸⁾

김성태는 오늘날 한국 선교의 문제점들을 7가지로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 3가지는 선교 현지 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였다. 현지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선동적이고 선전적인 선교 프로젝트 수립이 야기시키는 문제들, 후원하는 교회 선교지도자들의 타문화권 선교 사역 이해의 무지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잘못된 선교 정책의 문제들, 그리고 현지 교회와의 연관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통행적인 한국 문화 지향의 선교 정책이 그것이다.²⁰⁹⁾

실제로 이 같은 작금의 한국 교회의 선교 현실은 잘못된 선교 정책과 아울러 맹목적인 선교적 열심히 낳은 결과이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도 이렇다 할 선교 전략을 아직까지도 갖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교회가 총체적 선교와 협력 지향적 교회 구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개교회의 능동적인 선교에의 참여에

208)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7.

209) 김성태, *세계선교전략*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81-282.

있다. 여기에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선교 행정과 정책이 수립되고 선교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상황 분석으로 적절한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²¹⁰⁾

210) 김성태, *세계선교전략*, 282-284.

제 5 장

대안적 선교전략으로서의 협력 선교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묘사한다. 세계 교회는 각자 분리된 기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이고 유기적인 몸이다. 몸이란 지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동역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 세계 선교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 우주적인 몸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²¹¹⁾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갓 태어난 초대 교회의 선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몸을 이루시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몸의 성장 즉 선교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체들이 유기적인 연합관계를 잃을 때 몸은 병들고 성장은 증지될 것이다.

제 1 절 협력 선교의 개념과 성경적 의미

1. 협력 선교의 개념

유효명은 그의 글 “평신도 선교지도자와 협력방안”에서 협력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협력(cooperation)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의 용어에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 팀워크(teamwork), 연결망(networking)이 있다. 우선 동반자 관계는 과업들을 완수키 위해 상호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둘째, 연결망은 비슷한 사역을 하는 개인이나 그룹들이 공통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완수키 위해 정보, 생각, 자원들을

211) 정민영, “선교사들 및 선교 단체들의 협력,” 제1차 한인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 글모음 (서울: IVP, 1996), 9-15.

한 곳에 모아 서로 나누게 될 때 발생한다. 셋째, 협력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관계이다.²¹²⁾

필립 버틀러(Phillip Butler)는 “협력관계가 가진 힘” (The Power of Partnership)에서 “협력이 귀중한 이유에 대하여 협력은 성경적이며, 공동체 증거가 지닌 힘의 본을 보여주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며, 변덕스러운 세계의 상황 때문에 필요하며, 그리고 협력은 가용 자원들을 극대화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¹³⁾ 거의 2000년 동안 서구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교회 개척을 시도하며 선교에 투자해 왔는데 이제는 제2/3세계 교회들이 서구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세계의 마지막 지역, 즉 예수의 사랑을 전혀 듣지 못한 약 2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에 오늘날 파트너십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하였다. 버틀러는 선교기관들이 전략적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서 비서구와 서구의 인력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빌 테일러(Bill Taylor)는 “협력이 주는 교훈” (Lessons of Partnership)에서 협력 관계와 요한복음 17장 11, 21-23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간에는 분명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네 번에 걸쳐 주님 자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놀라운 연합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몸은 모든 언어와 문화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워 이제 복음 안에서 진정한 협력자들이 되자고 하였다. 그는 “선교에 있어서 시너지를 위한 왕국협력” (Kingdom Partnership for Synergy in Mission)에서 선교협력을 급격한 에너지 창출을 가져오는 시너지로 설명하고 있다.²¹⁴⁾ 시너지란 두 개 이상이 합쳐서 발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기하학적으로 불어나는 효과를 말하는데, 말 한 마리는 겨우 4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으나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22톤을 끌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랄프 윈터는 내일을 위한 선교 준비에 있어 세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마치 해체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향악단으로 비유하였다.²¹⁵⁾ 각 부분의 악기는 홀로 있

212) 유효명, “평신도 선교지도자와 협력방안,” 제2차 민족과 세계복음화 회의 자료 (서울, 1995).

213) 서성민, “한국장로교회의 선교협력” (서울: 세계선교연구원 세미나, 2002) 강의에서 재인용.

214) Ibid.

을 때는 그 기능조차 상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재조직된 교향악단에 가입한다면 음악회를 위해 훌륭한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우리의 시도를 수십 배로 증가시켜 주실 확신으로 주님의 사업에 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문제들로 인해 억압, 착취, 빈곤, 질병, 무지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 선교적인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선교적 과제에 비해 선교의 자원은 모든 면에서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다. 어떤 지역의 교회는 교육, 재정, 기술, 정보에 있어 매우 앞서 있으나 어떤 지역의 교회는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고, 또한 어떤 지역은 교육, 의료, 산업, 기술 등에 있어 선진화 되어 있으나 어떤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 교회가 있다. 어떤 지역은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외부적인 환경이 좋은 곳에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방해와 핍박이 상존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협력선교(혹은 선교협력)는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선교의 성패는 협력 선교의 성패에 달려 있다. 백낙준은 초기 한국에서 선교했던 해외교회의 선교단체들에 대해 “여러 선교 단체가 계획 없이 점령한다면 결과는 총돌 아니면 협력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²¹⁵⁾ 한국에 온 서구선교사들은 총돌이냐 협력이냐의 양자택일의 길에서 협력의 길을 택했고 협력하는 가운데 에큐메니칼 정신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오늘날에도 선교현장을 위해 큰 교훈이 되고 있으며 선교전략에 중요한 이슈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협력 선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1992년 6월 15-20일 중에 있었던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회(WEF-MC) 마닐라 대회에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협력 선교의 의미를 좀 더 보편적이며 초문화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선교는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 마닐라 대회에서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5) Ralph D. Winter, *선교의 운명*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선교문제연구원, 1974), 117-119.

216)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276.

협력 선교란 세계 복음화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홀로 이를 감당하기 보다는 협력 혹은 동반자적 관계를 맺은 가운데 하는 것이 종종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10가지의 의미를 협력 선교에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 ① 협력 사역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② 둘 내지 그 이상의 독립적인 개체들이 관여하는 것
- ③ 각자가 서로 기여하는 것
- ④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⑤ 서로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
- ⑥ 상호 협의된 명백한 협의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 ⑦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 ⑧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 ⑨ 성경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
- ⑩ 성령에 의존하는 관계

정리하면, 선교에 있어서 협력 선교란 인간의 지체가 적절하게 연합하여 작용할 때 육체의 기능이 원할 한 것처럼 오늘의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합의 장점들이 있는데 즉 위탁과 위임을 통한 사역을 위한 책임, 비전을 나누고 성과와 질을 배양하여 소위 '원-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²¹⁷⁾ 여기에는 기독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일치와 연합을 위한 상호 겸손과 배움, 섬김, 나눔의 끝없는 행진이 필요하다.

2. 협력선교의 성경적 의미

가. 구약의 선교와 협력 선교

(1)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성품 가운데 특히 가난한 자, 눌린 자, 약자와 버림받은 자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특정한 공동체를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217) Viggo Soggard, "Missiological Education through Decentralized Partnerships" in Charles Van Engen, ed., *Missiolog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Orbis Books, 1997), 204.

부르심에 목적과 의미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에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적 의지가 드러나며,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¹⁸⁾ 창세기 12장 1-3절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민족’, ‘족속’이란 용어으로써 공동체와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를 향한 구속의 비전 즉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이며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는 사랑과 신뢰 및 인격적 관계로서 격려와 필요 충족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다(창 12:6-8).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다음 하나님은 그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네 안에서, 너를 통하여, 이 민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를 세울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개입되시고 공동체가 발전과 동시에 그에 속한 공동체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팔을 뻗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공동체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하나님사이를 화해시키며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맞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목적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넓혀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설하시고 양육하시며 확산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선택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요(수 24:2),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

218)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2), 31.

며(신 26:5), 타락한 보통 사람에 불과 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나 멜기세덱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무조건적 은총으로 택함을 입었던 것이다.²¹⁹⁾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선택의 목적은 개인이든 공동체가든 구체적으로 볼 때 봉사로 나타난다.²²⁰⁾ 그리고 그 봉사의 가장 적극적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며 여기에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적 책임에 연대자요 협력자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모든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인 동시에 수평적인 공동체로 상호 협력을 이루어 가야 한다.

(2) 출애굽과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핵심을 이루며 하나님이 해방과 구원을 이루시는 모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고 있다.²²¹⁾

첫 번째, 출애굽기에는 조상들에게 준 약속 즉, 창세기의 세 가지 위대한 약속(예언)들이 성취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바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창 46:3), 둘째, 그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창 15:13), 셋째,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창 15:14)이다.

두 번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다(출 5-15:21): 성경은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이 60만 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출 12:27). 1년 후에 20세가 넘는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60만 3천 5백 5십 명이었다(민 1:46).

세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19-20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만에 도착한 '시내광야'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다(출 19:3).

219)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45-46.

220) David J. Bosch, *선교신학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1985), 67.

222) Bernhard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1975), 20.

네 번째, 모세는 시내반도에서 가장 험난한 길을 통하여 상당히 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인도하였다(신 8:15,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다섯 번째, 약속된 땅을 상속받는다: 일차적으로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자기백성을 구원하신다. 또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의도, 시작,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선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에 하나님은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자연을 동원하시고, 인간의 조직까지도 활용하시는 협력의 전례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출애굽의 첫째 목적은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출 2:23) 하여금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시킴에 있다(출 3:7-8, 신 13:5 참고). 이러한 해방은 곧 구원으로 이해되었다. 이때에도 구원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출 15:1-21).²²²⁾ 그리고 둘째 목적은 출애굽기 9장 15-16절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하신 관심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만민에게 자신의 참 하나님이심을 공표하려는 것이다.²²³⁾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에 모세를 선교사로 부르신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바로에게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하신 것이다. 모세의 출생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히 11:26) 여긴 모세의 성숙한 지도자로써의 자세는 탁월한 것이다.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자주 모세가 자라난 믿음의 전통과 역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곧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출 3:6).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러한 믿음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구체적인 공

222) 김중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한 해방과 자유의 의미,”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1996), 111.

223)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48-49. 바울은 동일한 주제를 로마서 9장에서 전개하였다.

동체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스라엘 가족, 국가 공동체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다.²²⁴⁾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의미는 예배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도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예배는 선택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 충성의 표시요, 봉사는 만민을 향한 책임의 표시이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출애굽기 19장 5-6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이중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것은 언약과 선택도니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런 요구는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출 20장).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온전한 종교 형태를 갖추게 하신다. 예배의 장소,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남의 처소를 위해 성소(회막)의 양식을 보여 주셨고(출 33:7-11; 36:1-38),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언약궤를 만드게 하셨으며(출 25:1-40; 37:1-9), 제단과 제사장 제도(출 40:12-16)를 확립하게 하셨다. 광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언약의 확인과 장치 가나안 입성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과도적인 조직을 가진다. 그것은 모세에 의해 조직된 천부장 제도이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출 18:21-22)

224) 박상혁, “복음과 공동체,” *목회와 신학*, 2001년 4월호, 46-54.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미 있는 결단을 한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들어 광야에서의 수많은 출애굽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사법과 행정을 능률과 효과적인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한 사람의 탁월한 독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합심 협력하는 공동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지혜와 경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에서 협력 선교의 성경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자손 대대로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억압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해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우고 계약 공동체의 조직과 협력을 통하여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유의 행진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후대에 그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협력의 기초라고 고백하는 것이다.²²⁵⁾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로 조직을 확정하고(민 1:4 수 3:1-4:13) 집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자 조상들의 전통을 통합시키고 전체 백성의 공동체와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²²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신 7:6-8)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공동체와 조직적으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오늘날 협력 선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25) Letty M. Russell, *Growth in Partne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63-64.

226)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130.

나. 신약의 선교와 협력 선교

(1)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공동체

신약에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비롯된다. 이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심과 그의 치유와 선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었으므로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짐과 동시에 이 세계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선교적일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거둠, 그리고 회심과 개종으로 인하여 회집된 신앙인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며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인류와 함께 하나로서 이 세계를 섬기도록 소명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진 생명체이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몸으로 들을 화해시키며 그들을 격리하는 담을 헐어버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이며, 메시아적 공동체이며 단 하나의 새 인류이다(엡 2:14-16). 이 공동체 안의 상호 연합은 혈통에 대한 편견, 차별, 인종, 언어, 문화, 계층, 정치적 신념, 종교적 친근성, 공통의 관심, 또는 직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공동체는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한다. 초대 교회는 갈릴리에서 온 순박한 어부들, 시몬과 같은 옛 혁명당원들, 따돌림 당하던 세리, 그 외 수많은 인물들이 구원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 유기적이며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²²⁷⁾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세워서 3년간이나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차별, 경계를 넘어 '함께 하는 삶'의 정신을²²⁸⁾ 보임으로써 선교에 있어서 협력의 의미를 주고 있다. 우주적 메시야는 이미 능력 그 자체였다. 창조의 주로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성령과 함께 동역한 것이다(요 1:1-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연약한 자들을 불러 12명, 혹은 70명을(눅 10장) 협력자로 삼

227) Joachim Jeremias,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340-345.

228)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33-34.

고, 그들을 섬기고(요 13:1-20), 동역하심(막 13:32)으로 협력 선교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약의 공동체가 교훈하는 협력 선교의 의미를 나열해 보면,

첫째, 지상 명령의 성격을 통해서 협력 선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상 명령은 어떤 한 족속이나 한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주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선교의 역군들이 협력 선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협력 선교가 타당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동일한 천국시민이며 형제요 또한 자매이다. 협력 선교는 이 같이 천국 시민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방대성은 협력 선교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며,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사역은 어떤 한 단체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교회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협력 선교를 통해 전략적인 면에서, 자원을 서로 나눔으로 이루어져야만 타당하다.

비록 성경이 선교를 함에 있어 협력 선교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개념과 정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델과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선교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법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 가운데 명령문의 형태가 복수형으로써 단체와 연대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원 받은 공동체는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나누며,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바울의 선교와 협력 선교

첫째,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은 탁월한 협력 선교의 정신을 소유하였고 실천하였다. 로마서 16장 3절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에서 동역자(συνεργός, 쉬네르고스)라는 단어는 ‘함께’(συν, 쉰)와

‘일하는 자’(ἐργος, 에르고스)의 합성어으로써 ‘함께 일하는 자’(fellow worker)라는 뜻이다.²²⁹⁾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힘써 이하며 수고하는 사람으로 바울의 특수용어 중의 하나다(롬 16:3, 9, 21; 고전 3:9; 고후 8:23; 빌 4:3; 몬 1:24).²³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또 다른 특징적인 용어 중 ‘그리스도 안에서’(ἐν Χριστῷ, 엔 크리스토)라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증개로’ 연합과 협력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 선교 협력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²³¹⁾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협력 선교의 신학적 중심 원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① 협력 선교의 의미(1:1-11)
- ② 협력 선교의 목적-복음 전파를 위하여 (1:12-15)
- ③ 협력 선교의 성경적 기초(1:12-24, 3:21)
- ④ 협력 선교의 특징(1:2-11, 2:4-8, 3:20-21, 4:21)
- ⑤ 협력 선교의 원리들(2:12-19, 1:9-10, 4:10-17)
- ⑥ 협력 선교를 위한 관계 계발(2:19-4:7)

둘째,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모교회와 타교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며 개교회주의를 지양하려고 스스로 노력했다(행 15:1-11).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건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자들을 파송하여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도록 요청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좋은 선례를 남겨준 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셋째, 사도 바울의 협력의 특징은 많고 다양한 동역자들과의 협력이었다. 바울은 혼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동역자들은 다양하였다. 레위인 바나

229) 성서교재간행사 편, *그랜드종합주석 14: 사도행전, 로마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4), 974.

230) 기독교문사 편, “동역자,” *기독교대백과사전*, 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231) William Barclay, *바울의 인간과 사상 (The Mind of St. Paul)*,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7), 132-145.

바, 한 쪽으로만 유대인의 피를 받은 디모데, 헬라인 디도, 유대인이 아닌 의사 누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행 18장),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아블로, 마가와 실라 등 그의 동역자들을 모두 열거하기 어려우며 그 출신도 각계각층에 미치고 있다.²³²⁾ 그리고 사역이 늘어감에 따라 그의 동역자들도 늘어간 것이다. 그가 실천했던 협력 선교의 관계와 한계는 위에 열거한 대로 인종, 계층, 성별의 다양함을 볼 수 있으며 로마 교회를 위시한 초대 교회는 그 이질성과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벽들을 초월하는 깊은 연합을 맛보고 있다.²³³⁾ 또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던 기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아래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녀로서의 상속권자이며 그 윤리는 서로 화해와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성취하는 목표 아래 협력을 실천했던 것이다.²³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실은 바울과 동역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있었던 것이다.

제 2 절 협력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근거

1.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 협력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은 빌링겐(Willingen)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용어는 칼 하튼슈타인(Karl Hartenstein)이 만든 말로서 그가 이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교의 주체자임을 확신하는 의미에서였다.²³⁵⁾

선교의 주도권은 그것이 교회의 선교이든, 선교적 교회이든 간에 하나님만이 가지는 것이다. 빌링겐 대회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점차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선교란 교회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 세계 안에서의 감추어진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es Hoekendijk)의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선교란 조직과 기관으로써 교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우주적 평화'를 외치며 이

232) 이용원, "바울과 선교," *선교와 신학* 제1집, 1998, 112.

233) John R. W. Scott, *로마서 강해 (The Message of Romans)*, 정목배 역 (서울: IVP, 1996), 529.

234)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1), 585-586.

235) Bosch, *선교신학*, 211-212.

것은 구원론적 개념보다 윤리적 개념으로 본다. 그는 오직 기독교 선교의 메시지와 전략이 예리한 역사성을 가진 칼날을 가졌느냐에 여부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며, 교회가 선교적 과제를 감당하는데 있어서, 재래의 교회 중심의 접근 방법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신학은 현대 기독교 선교의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그 자신을 선교의 주체 또는 선교의 유일한(독점적인) 기구화 된 형태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간이 흐르며 일반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재 개념화 된 선교의 접촉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미 심장한 행동은, 개인의 인간화 및 사회의 인간화로 이끌게 하는 운동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교의 흐름은 흘러갔다. 그리하여 재래적인 선교의 대표적인 구호였던 “회개하라”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대화”가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빌링겐 선교대회는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전체 선교 사업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지시 아래 있다고 보는 삼위일체적 접근 방법을 최종적으로 산출해 놓았다. 이러한 사상은 동 대회의 위대한 성과로 선전되었으며, 여기서 이들은 옛 것을 새로운 방법을 빌어 말하면서, 낡은 용어(선교)를 그것이 뜻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회복과 부활이라는 명목 아래 그것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며 재해석하기에 이르렀고, 이처럼 재해석된 사상은 그 뒤 수년 동안 교회의 선교와 더불어 전 세계 국가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사상을 흐려지게 만드는 새로운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선교 사상은, 오늘의 시대에 모든 국가들 내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이슈가 되었다.²³⁶⁾ 이후 현대 선교의 개념은 전기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선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선교의 주체가 기존 교회 혹은 구조가 아니고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것과 함께 인류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구조는 협력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기초가 새롭게 수립되었다.

236) Arthur F. Glasser, “Conciliar Perspectives-The Road to Reconceptualization” in Arthur F. Glasser, and Donald A. McGavran, eds.,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3), 90-94.

2. 삼위일체 선교와 그 연대성

1950년대 이후 선교의 가장 큰 충격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과 관계해서 삼위일체적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

빌링겐 선교대회 이후 1954년 WCC 총회와 1958년 가나 IMC 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1961년 뉴델리 WCC 총회에서는 IMC와 WCC가 합병되는 결실을 맺게 된다. 따라서 교회를 대표하는 WCC와 선교계를 대표하는 IMC가 합병되어 명실 공히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시화 시켰다. 이는 그 당시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진전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이때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이 연합과 일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초석이 된 것이다.²³⁷⁾ 즉 선교가 단순히 교회의 교세 확장의 차원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그 주체 세력이며,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남겼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같은 좋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하나님의 선교 공식은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재래식 선교 체계로부터 선교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사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함으로써 인간적 측면에서의 책임, 즉 교회의 전도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 이후 선교는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를 다루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간을 어떻게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소위 인간화라는 관점에서 선교를 보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70년대 중반에 와서는 정치와 경제의 큰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오히려 '인간의 선교'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선교로 전락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이 공식 하에 과거 하나님-교회-세상의 도식에서 하나님-세상-교회로 바뀐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선교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세속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종래의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 멀리 떠난 것이다.

237) 이용원, "빌링겐에서 나이로비까지," *선교와 신학* 제4집, 1999, 76-77.

요약한다면 교회가 선교의 최종 권위가 된다는 잘못된 개념을 떠나 선교의 근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선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긍정적이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 그리고 성령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의 선교적 책임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세상과 직접 연결시키고 교회를 배제시킨 에큐메니칼 신학적 흐름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는 곧 지상명령 자체를 소홀히 하고 이 세상이 선교의 명제를 제시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이 선교처럼 보였다. 이것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를 주도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결과이다. 이로써 선교는 후퇴했고 교회도 역시 선교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고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이지만 반드시 교회가 이를 순종하여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 선교도 이런 전제하에 성숙되어 갈 것이다.²³⁸⁾

물론 선교는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고 손을 떼신 것도 더욱 아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 역사를 하셨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초림과 지상에서의 삶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 구속을 마련하셨듯이,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고 선교가 실현되게 하셨듯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교회 내외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계신다. 따라서 교회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교회만 선교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해서 창세 이후 구속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참여하고 계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²³⁹⁾ 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를 훈련시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물론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것은 곧 아들이 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하시는 것이다. 반면에 성령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 따라서 아버지, 아들,

238) Arthur F. Glasser, "Concilier Perspectives - The Road to Reconceptualization," 99.

239) 요한복음 14장 16-18절.

성령님,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된다. 물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를 위임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생각하실 때 교회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음을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선교로써 하나님의 선교는 통전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⁴⁰⁾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회를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며, 선교지의 교회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현지 교회가 하는 선교적 사역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더 선교지의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이 일에 자신의 힘을 합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교회와 신학 그리고 선교의 상호성

교회와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추구한다는 성경적이며 일치된 목표하에서 그간의 부정적 의미의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성경적 신앙공동체를 회복하여 교회 본질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²⁴¹⁾ 그러므로 신학과 선교 실체는 창조적이며 역동적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선교의 실체는 선교신학의 비판적 지도를 계속 필요로 하며 반면 선교신학은 신학 작업에서 이상적인 기준만을 생각하고 신학 활동의 능률만을 고조시키는 일이 없이 선교 실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교신학과 선교 실제의 상호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학 작업은 원칙 주의에 빠져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선교 실제는 신학이론에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위험이 있으며, 이 위험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선교신학과 실제의 관계에 대해 보편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교회와 신학, 그리고 선교의 상호 관계를 몇 가지로 검토해 본다. 신학은 결코 안전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교회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 신학은 선교 실제인 교회 옆에서 있는 객관적인 관람자가 아니다. 신학은 교회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240) 송용조, "성령과 선교," *선교와 신학* 제1집, 1998, 72.

241)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9-41.

위한 신학을 가져야 한다. 신학의 중요한 역할은 복음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하고 교회가 이 복음을 실천면에서 성실하게 반영시키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현재의 가시적 교회보다는 교회의 본래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지적해야 한다. 신학은 교회 역사가 성령에 순종해 온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번번히 성령을 거스리는 역사였으며 미래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거슬러 온 역사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예견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교회에 꾸준히 도전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 의미를 깨닫고 교회가 실제로 보이고 있는 교회 아닌 교회의 모습을 버리는 데 있다.²⁴²⁾

그러나 신학이 교회 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학은 하나의 활동으로서 신학 전제와 결론들이 완벽하다는 보장이 없이 세속적 흐름에 따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활동은 모든 부분적 지식을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신학활동은 불완전하며, 끊임없는 갱신과 발전의 도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신학과 교회는 상호 그 관계성에서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있다. 신학은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교회는 신학을 고백해 내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선교 실제와 신학 작업을 잘 조화 시켰다. 그의 신학은 결정적으로 선교 활동에 영향을 끼쳤었다. 반면에 그는 선교 실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학 작업을 하였고, 선교를 위한 신학활동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신학과 선교가 서로 봉사할 때 복음으로 인간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선교학자 조지 피터스(George Peters)는 바울의 협력사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울의 파트너십 관계는 교회생활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 사람, 재정의 동원과 편승의 많은 참여 중의 하나이다. 바울은 그의 복음화의 진전과 교회확장 또한 교회개혁을 위한 자원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은 복음화를 위한 의욕적인 계획과 교회 배가라

242) David J. Bosch, *선교신학 (Witness to the World)*, 34.

는 그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졌다...그 모든 시작은 바로 협력 사역이었다.²⁴³⁾

결국 이러한 증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 공동체인 가시적인 교회를 조직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기관으로써 운동 혹은 활동하게 하신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였다. 신학과 교회가 일치되었듯이 선교도 교회와 일치되어 있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만일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더라면 기독교는 현재까지 생존해 오지 못했을 것이고 단지 근동 아시아의 고대 종교의 하나가 되어 지금은 전문적인 종교학자들의 연구 대상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말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선교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다. 물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선교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수행이 된 것이다. 선교란 어떤 개념화된 진리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²⁴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라는 말에 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가 참 랍비이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의 복음의 주제로 삼고 있다. 마태가 뜻하는 제자는 예수를 왕으로 확신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며 그가 왕이신 것을 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들 중의 왕이며 그의 제자들은 이 왕국과 왕국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자들이었다. 산상수훈은 이 같은 제자들의 생활 정신과 길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는 (마 28:18-20) 지상 명령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자화는 선교의 열매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실인 것이다.

이 제자들이 교회요 이런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인 것이다. 이 사명이 없거나 이것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선교 공동체가 아니면 그 집단

243) Luis Bush & Lorry Luts, *Partnering in Ministr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sm* (Downer Grove: InterVarsity Press, 1990), 23.에서 재인용

24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80-81.

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런 뜻에서 ‘불이 타므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브루너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²⁴⁵⁾

제 3 절 협력선교 사역의 역사

1. 서양 선교 역사에 나타난 협력선교 사역

서양 선교사들의 협력선교 사역은 실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영국 복음화 운동의 선교 전략에서 그레고리 주교에 의한 팀 선교 사역자들의 파송을 볼 수 있다.²⁴⁶⁾ 로마 교회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한 전문직 기능을 갖춘 평신도 선교사들을 목회자 선교사와 함께 파송하였다. 팀 중에는 선수와 농업기술자도 있었고, 성가를 가르칠 음악가와 교회 교육을 시킬 교사도 있었다.²⁴⁷⁾

구체적인 협력선교 사역은 윌리엄 케리의 선교 사역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협력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²⁴⁸⁾ 그의 동역자인 조수아 마쉬맨(Joshua Marshman), 윌리엄 워드(William Ward)와 함께 세람포의 3인이라고 불리는데 선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역 팀이 되었다.²⁴⁹⁾ 그들의 협력 선교 사역의 결과는 학교가 설립되고 큰 인쇄 시설이 설립된 데다가 번역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것을 보아 잘 알 수 있다.²⁵⁰⁾

또한 17-8세기 청교도 선교 운동에서도 협력선교 사역은 나타난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의 청교도 지도자와 더불어 밀접한 선교 협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교도, 미국의 회중 교회, 독일의 모라비아파 선교 지도자와 협력 선교를 하였다.²⁵¹⁾ 청교도 지도자들은 선교정보와 전략, 선교사 훈련, 선교 현지의 교재를 개발하는 일에도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하였다.²⁵²⁾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선교 협의회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윌

245) 서정운, *교회와 선교*, 25-26.

246)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37-38.

247) Archer Torrey, "The Gregorian Missionary Methods," *Missiology* (January 1980), 101-103.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37-38에서 재인용.

248)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38.

249)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va: A Biographical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147.

250) Ibid.

251)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37-38.

252) Ibid.

리엄 리치 호그(William Richey Hogg)가 지적하듯이 1910년 에든버러는 기독교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때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기구들이 조직되어졌다.²⁵³⁾ 물론 WCC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협력 선교는 이러한 선교협의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서구 교회에서는 선교 교회와 선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한 선교회의를 많이 가졌으며, 불행한 교파주의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협력의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회의로는 1860년 영국 리버풀에서 모인 선교회의, 1888년 런던 선교회의, 1990년 뉴욕의 회의 등이다. 서구 교회는 이러한 초교파적인 선교회의 이외도 초교파 선교단체, 선교 협의체를 조직하여 연합과 협력을 하였다. 영국 성서공회 같은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²⁵⁴⁾

2. 한국 선교 역사에 나타난 협력선교 사역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활동은 초기에서부터 협력선교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선교의 개척자인 북장로교(PCUSA) 선교사 언더우드는 교파를 초월하여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를 적극 권장하였다.²⁵⁵⁾ 각 장로교 선교회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연합공의회를 조직하였다. 1893년 북장로교와 호주 장로교 선교회는 장로교 선교 연합 공의회를 결성하였고 얼마 후에 남장로교(PCUS)와 캐나다 장로교도 함께 가담하여 4개의 장로교는 명실 공히 연합 공의회를 통해 협력선교 사역을 함으로써 그들의 선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²⁵⁶⁾

1905년에는 장로교 4개 선교부와 2개의 감리교 선교부가 합하여 한국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를 결성하여 “하나의 교회”를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것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성경번역, 문서선교, 찬송가 발행, 주일학교 공과 편찬, 대학설립 운영, 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두 교파는 한 교단의 설립, 즉 정치적 통합은 실패하였지만 이런 연합 활동을 통해 한국 복음화라는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²⁵⁷⁾ 1907년 독노회의

253) W. Richey Hogg, “에든버러 1910-1980년 전망,” *에큐메닉스*,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30-253.

254) 전호진, *선교학*, 113.

255)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56.

256) Ibid., 57.

257) Ibid., 58.

이기흥 목사 제주도 파송은 일회적이며 단독 파송으로 끝나지 않았다. 평양 여전도회에서는 2년 후에 전도 부인으로 이관선을, 송실대 중학교 학생회에서는 전도인으로 김형제를 제주도로 파송하였다.²⁵⁸⁾

1910년에서 1945년 기간에는 중국 만주 지역에 흩어진 한국인들을 복음화하는데 북장로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가 협력하였다. 그 결과 1925년도에 만주 지역에 흩어진 한국인은 백만명을 육박했으며 교회 수는 삼천 백여 개로서 그 중 장로교 교회 수만도 6개였고, 1941년도에는 봉천 서탑 교회에서 개교된 5개 교단 연합의 신학교도 있었다.²⁵⁹⁾

1913년 9월 제2차 장로교 총회는 선교지를 중국 산둥으로 정하였고, 또 선교사들의 선정과 파송을 결의하였으며, 동년 11월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 3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들은 선교 현지에서 독자적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북장로교 선교부와 유기적인 협력 선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북대회 산하 산동 장로회에 속해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의 선교는 목회자 선교사로만 이루어 지지 않고 전도부인, 전도인, 권서인들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현지에서 협력을 이루며 선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제 4 절 현지교회 협력의 원리-자립선교원리

일명 선교에 있어서 ‘삼자 원리’, 또는 ‘네비우스 선교원리’²⁶⁰⁾라고 불리는 자립선교원리 즉, 자립(self-support),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의 원리

258)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244-245.

259) 참조.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Field*, Vol. XI, No. 3, Seoul, 1915, 367-383.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254-255.

260) 자립, 자치, 자전의 3자 원리(영어로는 3 self-formula라고 함)는 실은 네비우스의 원리가 아니라 19세기 중반 영국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 총무인 헨리 벤과 미국 해외선교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총무인 루포스 앤더슨이 동시대에 서로 만나서 협의한 적이 없지만, 거의 유사하게 발전시키고 각 선교지에 적용시킨 선교이론이다. 전호진,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성광문화사, 1993), 14.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선교원리가 적용되었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 네비우스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네비우스 선교원리’라고 불리고 있다.

는 현지교회 협력에 있어서 기초원리를 이루고 있다. 현지교회를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복음화할 주체로서 보는 입장이다.

전호진은 이러한 자립선교원리의 현대적 의미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 자치, 자력전파의 소위 '삼자이론'은 중국 등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현지인)에 의한 원주민(현지인) 선교 즉, 민족복음화의 원리라는 것이다.

둘째, 자립이론은 원주민(현지인)의 정체성(identity)을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화의 효시이다.

셋째, 자립이론은 선교는 죽고(euthanasia) 교회는 흥해야 한다는 선교의 겸손을 가르친다.

넷째, 자립이론은 원주민 사역자의 자격을 학문에 두지 아니하고, 신앙, 인격, 헌신을 중시하고 토착적 모델의 신학교육을 강조한다.

다섯째, 자립이론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순수하고도 단순한 신앙논리에 기초한다. 아울러 성경과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영성주의이며 경건주의이다.

여섯째, 자립이론은 교회에서 평신도의 은사와 사역을 중시하는 평신도 신학이다.²⁶¹⁾

당시 서구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교회를 '영원한 아이'로 돌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오래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아직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를 교회설립으로 볼 때 열명의 선교사보다 한 사람의 원주민(현지인) 지도자가 더 효과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²⁶²⁾ 이미 하나의 이론을 뛰어넘어 가장 탁월한 선교방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제 5 절 현지 협력선교의 형태 및 내용

일반적으로 협력의 문제만 하더라도 선교사들 간의 협력, 교회(교단)간의 협력, 교회와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선교사와 현지인들 간의 협력, 선교사와 지역교회간의

261) 전호진, *한국교회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212-213.

262) Ibid., 17-18.

협력,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 간의 협력, 민족교회 공동체간의 협력, 세계교회들 간의 협력 등 수많은 협력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교회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협력을 볼 수 있는데, 김종웅 선교사는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관계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선교사가 교회들을 개척하여 교단을 만들어 가는 유형, 현지교단과의 협력사역과 자체 교단 형성을 이중으로 하는 유형, 현지교회와 선교부가 동등한 관계를 통해 협력하는 유형, 현지교회에 흡수되어 그들의 사역 일부를 돕는 유형, 현지교회와 협력하여 어떤 부분의 사역을 책임지고 하는 유형, 현지의 국제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유형, 구제와 봉사 사역을 통해 현지교회를 간접적으로 돕는 유형,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협력하는 유형, 선교사가 관계된 현지인들과 함께 직접 사역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지도자가 방문하여 집회를 인도하는 유형이다.²⁶³⁾

각 유형들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바람직한 유형을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현지교회가 성장하여 자립하는 단계로 가게 될 때에는 현지교회와 선교부(회)가 동등한 관계를 통해 협력하는 유형이 잘 경영되면 가장 효과적인 유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지교회에 흡수되어 그들의 사역 일부를 돕는 유형은 주로 교회가 세워진지 오래된 국가에서 선교사가 너무 현지의 필요를 따라 다니는데 시간과 힘을 다 소비해 버리는 등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역 유형 중의 하나로 꼽혔다.

부시와 러츠는 협력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다음의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

- ① 협력자들(partners)은 원칙과 윤리 강령에 동의해야 한다.
- ② 협력자들은 일반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 ③ 협력자들은 동일한 의견을 발전시켜야 한다.
- ④ 협력사역(partnership)은 계급적인 차별을 피한다.
- ⑤ 협력사역은 개방된 교제를 요구한다.
- ⑥ 협력자들은 신뢰와 책임을 요구한다.
- ⑦ 협력자들은 재정에 대해서 깨끗해야 한다.

263) 김정웅, "선교사와 현지교회의 협력," *21세기를 향한 한국선교의 비전-제1차 한인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 글모음* (서울: IVP, 1996), 120.

- ⑧ 진정한 협력사역은 각자의 은사를 나누기를 요구한다.
- ⑨ 협력사역은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 ⑩ 협력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²⁶⁴⁾

어떠한 하나의 유형들이 모든 경우에 다 효과적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목표는 현지의 기존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교사의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현지교회와 선교부(회)가 상호존중과 상호보완, 상호견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 6 절 선교사(단체)와 현지교회와의 협력관계 발달 단계

현지교회와 외부에서 온 선교사 및 선교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이론들이 정리되었다. 이는 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감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해롤드 풀러(Harold Fuller), 피터 와그너 그리고 김정웅의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해롤드 풀러-SIM International

풀러는 그가 몸담고 있었던 SIM 국제선교단체와 아프리카 현지교회 교단인 ECWA와의 협력관계 경험을 토대로 선교사와 현지교회와의 관계를 4가지 발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개척자단계로 선교사는 다른 은사는 물론, 리더십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2단계는 부모 단계로 선교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다. 어린 교회는 선교사에게 자라나는 아이와 같다. 그러나 '부모'는 '가부장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3단계는 동역자 단계로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인-성인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 다에게 어려운 변화이지만, 교회가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4단계는 참여자 단계로 온전히 성숙한 교회가 리더십을 갖게 된다. 선교사가 남아 있다면,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기본 목표를 달성

264) Bush & Lutz, *Partnering in Ministr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sm*, 46.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강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선교사는 다른 지역에서 1단계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²⁶⁵⁾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각 단계에서 발달된 태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1단계에 적합한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한 선교사는, 4단계 상담자의 사역을 위해 역할을 조정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개척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지 모른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와 현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둘의 주요 목표는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본 동기는 처음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순종에서 같은 구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과정이다.

2. 피터 와그너

와그너는 선교사 사역 과정의 네 가지 주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1단계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비그리스도인에게로 나아간다. 복음은 선포되고, 개종자들은 세례를 받으며 교회가 세워진다. 이 단계에서 선교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일을 조정하게 된다. 둘째, 2단계로 선교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로 성장시킨다. 이것은 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성장의 처음 단계이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현지교회로 방향전환 되어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3단계로 선교사는 이제 컨설턴트가 되어 진다. 새로운 교회는 자율적이고 내부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선교사는 교회에 완전히 융화되어 그 교회 지도자 아래서 일함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그 교회에서 평등하게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단계가 조직되어지기 전에는 철수까지는 고려되어지지 않는다. 넷째, 4단계로 교회는 이제 선교를 시작한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전략에는 이 4단계가 계획되어 있지 않고 간과되어져 왔다. 선교는 그동

265) W. Harold Fuller, *Mission-Church Dynamic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0), 272.

안 새롭게 세워진 교회의 필요를 궁금해 하기보다는 선교사를 보낸 나라의 교회에서 필요한 활동을 해온 것처럼 보였다.²⁶⁶⁾

3. 김정응

김정응은 각 현지교회의 상황에 따른 선교사의 역할 변화를 'UNDER RELATIONSHI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성경의 권위 아래(under the authority of Holy Scripture), 성령의 인도 아래(under the guidance of Holy Spirit), 현지교회의 리더십 아래(under the leadership of national church)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를 기초로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다섯 가지 변화 내용을 'UNDER'라는 머리글자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U: Understanding Pioneer(이해하는 개척자)로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선교지와 선교대상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선교사의 역할은 언어훈련, 상호방문의 기회,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 개척자적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는 일 등이다.

N: Nurturing Parent(양육하는 보호자)로 전도의 열매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단계로서 제자양육과 교회개척, 성경학교나 신학교육 등을 통해 그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동역자로 만들어 나간다.

D : Developing strategy Partner(전략을 수립하는 동역자)로 현지 지도자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선교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전략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성경적이고 쉬워야 한다. 또한 이론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이며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 Expanding Participant (확장하는 참여자)로 이 단계에서 선교사는 일단 현지 지도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저들의 약할 부분을 돕는 참여자의 자세로 돌아선다. 그리고 저들의 교회가 확장되고 전국적인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266) C. Peter Wagner, *Church/Mission Tension Today* (Chicago: Moody Press, 1971), 176-177.

R: Reproducing Prompter (재생산하는 격려자)로 현지교회가 자국내의 타지역 및 타부족권과 타문화권 선교까지 재생산하는 교회로 자라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²⁶⁷⁾

제 7 절 현지교회 협력에 있어서 나타나는 긴장요인들

선교회의 목표는 현지교회를 설립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통해 전도하며, 그들을 제자 삼는데 있어 성경적 원리(Biblical Principles)를 적용하는 것이다.²⁶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 협력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되어 왔다.

이러한 선교사와 현지교회와의 갈등 요인들은 사실 사도시대의 선교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14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유대인 성도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자리를 옮겼던 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은 사도들이 교회내의 민족분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2절, 5장 1-7절의 경우들은 새 신자들의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 예이다. 그 외에도 현지교회에서의 새신자의 인색한 헌금생활로 인한 성도들 간의 갈등(고전 16:1; 고후 9:7), 헌금취급에 대한 요구에서의 긴장(고전 16:3, 고후 8:19-21), 교리적 문제로 인한 갈등(갈 3:1; 4:17; 빌 3:2 골 2:18-23; 고후 11:4; 갈 1:6)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²⁶⁹⁾

강승삼은 교단선교부 내의 선교협력방식 중에서 보완해야 할 점의 중의 하나로 단일신학노선 때문에 기존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시도하는 대신 독자적 교단을 세워 나가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국제회의 등에서 식견 있는 현지 지도자들로부터 적잖은 힐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²⁷⁰⁾ 풀러는 선교회와 교회간의 긴장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전통적인 예의범절 형태로 인한 차이, 관점의 주요한 차이들,

267) 김정웅, "선교사와 현지교회의 협력," *21세기를 향한 한국선교의 비전*, 126-133.

268) 강승삼, "선교현장의 파트너십," *세계선교 통권* 36호 (1999), 138.

269) Fuller, *Mission-Church Dynamics*, 6.

270) 강승삼, "선교현장의 파트너십," 15.

관계의 위험으로부터 오는 갈등들, 리더십 간의 긴장, 변화에 대한 긴장, 조직상의 긴장, 재정적 문제로 오는 긴장,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으로부터 오는 긴장 등이다.²⁷¹⁾

또한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 관계를 맺을 때 갖는 두려움 4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선교기관이 경제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지교회가 많은 일을 하다보면 기관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 또한 그들과는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것이라는 점, 문화적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²⁷²⁾

워렌은 “협력은 아직도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는 사상이다”라고 말했다.²⁷³⁾ 즉 그 만큼 협력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되어왔지만 현지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말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파딜라는 오늘날의 문제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 성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마침내 ‘지금 여기서’ 그 단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⁷⁴⁾

선교에 있어서의 협력이란 단순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모든 인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서 협력자로서 실패할 때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전파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하나의 세계가 있고, 하나의 교회, 하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 외에는 다른 선교가 있을 수 없다.

271) Fuller, *Mission-Church Dynamics*, 159.

272) 강승삼, “선교현장의 파트너십,” 138에서 재인용

273) Max Warren, *Partnership: The Study of an Idea* (London: SCM Press, 1956), 11.

274) C. Rene Padilla, *통전적 선교 (Mission Integral) 1*, 홍인식 역 (서울: 나눔사, 1994), 164-165.

제 6 장

협력선교의 모델로서의 세계협력현지선교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선교의 적용으로 21세기 한국교회의 선교 2세기를 향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즉, 그들이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전략적 차원에서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며, 세계현지협력선교회를 통해 '현지협력선교'의 대안적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선교전략으로서의 현지 협력 선교의 필요성

1. 교회의 선교적 사명 및 과업

한영신학대학교 홍용표는 '21세기 세계선교'라는 그의 소논문²⁷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0억의 불신자들을 품는 20억 그리스도교 중 1,4000여만 신자, 50,000여 교회, 60,000여명 목회자를 가진 한국 개신교회는 50여만 명의 세계를 품은 20여개 전문선교대학 및 대학원, 120여개 해외 선교단체, 1,000여명 선교동원자와 7,500명의 전임선교사, 5만 여명의 평신도 선교사, 10만 명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1950년대 이전에는 일본, 중국 교포 중심으로 선교하다가, 50-60년대 부흥운동 이후에는 국내 교회 성장을 이룩하며 미주 교포들을 선교하면서 세계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한다.²⁷⁵⁾

275) 홍용표, "21세기 세계선교," 2000 세계선교대회 발표논문, 74.

이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온 세계에 보내시사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이모저모로 사용하심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적 자원을 보다 넓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스티븐 호든(Steven Hawthorn) 수님의 대위임령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강조하였다.

첫째, 모든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찔러 가지 발밑에 진압시킬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모든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헌신된 종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에도 이 같은 종류의 권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란,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충성되고 열심히 배우는 제자들로 만들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사는 훈련을 하도록 명하신다.

둘째, 모든 족속: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특정한 사역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전 세계적 목표로 이해해야 한다. 각 개인들과 소그룹들에게 기본적인 제자도 기술을 전파하여 양육하고 훈련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사용된 원어는 각 종족 집단 안에서 역사상 한 번은 그리스도 지향적인 운동들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셋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두 가지 활동, 곧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활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해 준다. 세례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배경이라고 보면, 세례는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표시하는 것, 즉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준비였다. 세례는 이름으로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신-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 성경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충성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대해 점차 자라가는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는 말의 핵심적 의미이다.²⁷⁶⁾

중요한 사실은 항상 이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에게 위임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완수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지상명령이다. 또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²⁷⁷⁾

위대한 소망에 대한 복된 소식과 완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선교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명령, 임무, 의무를 견내받았으며 그 일의 성패가 완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선교는 결코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인간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행동에 참여하는 특권이다.

2. 현지협력 선교의 필요성

우선, 현지협력 선교가 왜 꼭 필요한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교회 협력 선교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지교회 협력 선교는 자국민이 자국민의 문화와 말로 자국민에게 전달하는 원리로 이러한 선교 방법론은 지나간 세대나 오는 세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성경적 방법이다.

둘째, 10/40창의 선교지는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 시대적 상황에선 서구의 선교정책이 필요불가결한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현대선교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약점들에

276) 스티븐 호돈은 '산상 위임령(Mandate on the Mountain)'이란 소논문을 통해 예수님의 대 위임령을 강조하였다.(Mission Perspectives, 1999, 123-127)

278)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55-58.

서 자유롭다. 오히려 침략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전략과 전술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협력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한국교회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세계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그 중요한 역할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교회 중심적이며 자교단 중심적인 선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강점은 서구교회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문화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수백 년의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서구교회가 더 잘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나아갈 미래의 선교 방향은 현지교회의 협력 선교이다.

현대선교의 패러다임은 통합과 협력이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애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태동은 선교의 패러다임을 통합과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였다. 애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신학적 기반과 향후에 나타난 방향성에 대한 논란을 무시하고라도 이들의 영향력이 오늘날의 선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애큐메니칼 운동의 통합과 협력이 가지는 범위는 현지인 교회와의 통합과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애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와 교회 혹은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사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지의 현지교회를 고려하지 않은 협력은 일부 진전은 있으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기는 부족하다.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교회를 중심으로 협력 선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현지교회 협력 선교는 향후 성공과 실패를 선불리 판단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운 선교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 바울은 유대와 헬라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고 헬라문화의 협력사역자로 세운 디모데와 디도 또한 헬라인이며 헬라문화에 적응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문화권의 선교는 그 나라 혹은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인과 현지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서구의 선교는 왜 현지교회와 협력 선교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첫째, 현대선교의 동향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이전에 서구적 선교의 산물이다. 오늘날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선교지는 서구 열강의 강점기를 경험한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침략의 종교이며, 교만한 종교라는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마치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과거에 대한 바른 청산과 과오에 대한 인식과 사과가 없었기에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까지 그러한 오해와 편견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선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불모지인 것이 하나의 좋은 예이다.

둘째, 문화의 이해와 정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흔히들 서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방은 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서구 열강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서구의 그러한 문화적 이해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차이는 에스키모를 예로 들 수 있다. 서방의 사람들은 캐나다 인디언들의 식습관을 보고 그들을 에스키모라고 불렀다.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미개한 인간들로 본 것이었다. 하지만 에스키모들은 스스로 이뉴잇(Inuit: '인간'을 뜻함)이라고 부른다. 날고기를 먹는 미개한 인간과 그냥 인간이란 단어에는 분명 거리가 있다. 서구의 사람들은 '이뉴잇'들이 거주하는 알래스카나 그린란드와 같은 지역에는 불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작이나 건조조차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문화에서 학습되어진 관점을 타문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서구의 선교도 자신들의 문화로 피선교지를 이해하는 과오를 범했고 이와 같은 문제는 모양만 시대에 적응한 채 계속 답습되고 있다.

셋째, 현지교회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이다. 21세기를 전후로 서구의 교회와 선교단체는 현지교회와 협력선교에 대하여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지교회는 과거에 대한 피해의식과 검증되지 않은 현지 목회자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로 서구의 선교사와 교회에 많은 불신을 안겨주었다. 반대로 서구의 선교사와 교회는 계속되는 불신으로 신뢰성의 상실과 처음 접촉점을 찾기 위한 어려움과 한계성으로 쉬운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양쪽의 불신과 이를 인내하며 참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현지교회 협력선교라는 성경적인 방법을 간과하고 과거적 선교방법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NPWM의 설립과 사역

1. 현지협력선교의 설립과 번성²⁷⁸⁾

현지 협력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일성도교회 교회설립 35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선교지 '파송'의 김경자 사모가 기고한 글을 통하여 현지 협력선교의 태동기와 여명기와 확장기 그리고 추수기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가. 선교의 태동기

1967년 10월, 열 대 여섯 명의 미국 관광객들 틈에 60대 초반의 시골 목사를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장차 이루어지게 되는 세계현지 협력선교의 첫 시작이 되었다. 3-4일이 지난 뒤 미국인 목사는 패기 넘치고 발랄한 현지인 지도자 여성을 조용히 불러서 한 달에 10\$씩 줘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동기가 되어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한 미국인 시골 목사의 마음이 현지인 복음전도자에게 전달되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섭리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선뜻 지원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조금은 당황스러웠다고 회고하는 김경자 사모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녀는 United World Mission에 한국 대표로 있으면서 미국인들의 선교현장인 선교지 교회(지금으로 말하면 현지교회)나 고아원등을 관리하던 때이고,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복음의 열기가 뜨겁던 때라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이기에 그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인데 그 미국인 목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결국 당시, 여성사무원의 봉급이 20,000원 정도면 최상이던 때에 \$10은 작은 돈이 아니었고, 그 돈은 김경자 전도사의 복음사역에 촉진제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황

278) 제일성도교회 선교위원회, 교회창립 35주년 기념 선교지 파송, 2005년 창간호, 16-19.

진수 전도사와 결혼하면서 젊은 부부는 자동적으로 뉴욕 커크우드 시내 작은 시골교회의 현지 협력 선교사가 된 것이었다. 목회와 교회개혁을 생각도 못 해본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관악산 산자락 끝으로 그들을 인도 하셨던 것이다.

1969년 가을에 황량한 산자락에 사택 겸 교회를 건축하고 1970년 1월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미국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 젊은 부부 전도사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교회의 터를 넓혀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미국인 목사 부부는 일 년에 한번씩 이 한국인 현지인 부부목회자를 번갈아 초청하면서 편안한 안식의 시간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그 미국인 시골교회 목사는 바로 그들의 영적 목자와 아버님이신 스텐슨 목사 (Rev. Harold Strenzhorn)이며, 제일성도교회 창립의 주춧돌이 되는데 버팀목이 되었고, 한국의 한 작은 목자부부를 위해 끝까지 사랑을 베풀다가 1988년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겨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어 지고 계속되어 진다. 미국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헌신이 결국 목회 초년병이었던 한국인 전도사 부부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전달되었고, 한 지역교회가 나아가서는 지역교회 연합을 통한 '세계현지협력선교회'를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나. 선교 여명기(동남아시아 중심)

1992년 2월 14일,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협동 사역자였던 원인규 전도사의 강권으로 청년 15명이 구제차, 관광차, 선교차 필리핀 땅을 밟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필리핀 팜팡가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여행이 시작되었다. 당시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면서 수많은 산족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들은 교회 청년부는 교회의 도움과 자체적으로 준비한 구호품과 구호금을 준비하여 여행길에 올랐는데, 현지에 도착하여 바라본 처참한 아이타족들이 생쌀을 먹으면서 사냥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문명의 뒤안길에 있는 이들을 보는 마음은 매우 착잡하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만 하였고, 아열대 지방의 신기한 나무들과 꽃들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한국동란 때는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역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뒤엉킨 채 선교팀은 그렇게 10일간의 여정을 거의 마칠 때가 되었는데, 청년 사역자이기에 할 수 없이 끌려간 김경자 사모에게 ATS(Asian theological Seminary)를 방문하도록 인도하셔서 현지 신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얀마에서 온 세 명의 신학생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가난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두 끼의 끼니도 때우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도 사서 신을 여유도 안돼서 발가락이 튀어나온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복음의 불모지인 미얀마에 속히 돌아갈 꿈 때문에 모든 역경을 능름하게 견디면서 공부하는 이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세계선교의 모티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는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러한 현지선교의 상황을 보고 돌아온 청년들이 끼니를 거르고, 걸어 다니면서 모은 선교헌금이 현재 제일성도교회의 최초의 현재 협력 선교의 시발점으로 이어졌고, 이것을 기점으로 도움을 미얀마 현지 신학생들의 입소문을 들은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도움이 쇄도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청년부를 넘어서 장년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나누면서 국내선교에만 집중해 오던 교회 선교가 해외선교로 더 넓은 들판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다. 선교 확장기

동남아시아의 선교적 비전의 도전은 1994년도에 이르러 우선적으로 제일성도교회 부목사 출신 목회자들이 개척한 작은 지역교회들과 뜻을 같이하여 가까운 목회 동역자 중심으로 선교회가 발족되었다.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필리핀에 복음주의적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하였고, 그들은 졸업 후 곧 자국으로 돌아가 선교의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이 최초로 후원했던 3명의 미얀마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 현지인 선교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가브리엘 수안 밉(Gabriel Suan Mung) 목사가 양곤시에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성도교회 한 집사가 최초로 교회 설립을 돕게 되었고, 지금은 가브리엘 수안 밉 목사는 미얀마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 부흥사가 되어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한편으론 선교회가 파송

한 20여명의 미얀마 현지 선교사들의 멘토로 일하고 있다.

그 다음해 필리핀에서 목회학 석사과정(M.Div)을 수료한 인도네시아 탄디 란다(Tandi Randa) 목사가 학장으로 취임되어 인도네시아 선교가 활발하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의 피터 무탕(Peter Mutang), 인도의 디도 니난(Dido Ninan) 등 필리핀에서 신학 수업을 마친 목사들이 각국으로 돌아가면서 선교 확장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들이 본국으로 갈 때 마다 그들을 뒤따라가서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선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보따리 장사꾼들처럼 선교물품을 짊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둘러 보면서 그들을 도와야 하지만, 물질과 재력이 부족해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기도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산머리 턱에 올라 소리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다고 한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기도는 결국 비전대로 현지 협력선교를 확장하는 기쁨을 마련하게 되었다.

라. 선교 번성기 및 추수기

이러한 선교회를 통한 작은 섬김 들을 하나님은 기뻐 하셔서 선교회원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당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실제로 이 소문은 교회부흥의 모티브가 되었다)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기 힘든 개미군단(작은 교회들)이 점점 연합하면서 20에서 30에서 40 그리고 50여개의 교회로 늘어나고, 소위 이 개미군단이 선교회로 형성되는 나라 곳곳에 교회들과 신학교가 계속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열대 나뭇잎으로 열기설기 지었던 열대지방의 교회들이 벽돌이 쌓아지고 지붕이 없어지면서 비바람과 태풍에 쓰러지지 않게 되었고, 현지 성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손들고 환호하며 찬양을 뜨겁게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1992년 3명의 신학생들을 도우면서 시작된 협력선교는 이전 10개국에 120여명의 파송 협력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되었다.

나라별로 현지인 선교사와 선교후보생들은 다음과 같다.

<표 15> 나라별 현지인 선교사와 선교후보생 현황

순	지역	현지인선교사	선교후보생
1	필리핀	63	100
2	미얀마	23	300
3	인도	10	100
4	인도네시아	8	200
5	말레이시아	2	100
6	중국(북한)	6	50
7	네팔	2	100
8	캄보디아	1	
9	파키스탄	1	
10	브라질	2	
11	우즈베키스탄	2	
12	대만	2	

현재 세계현지협력선교회는 12개국 122명의 현지인(파송 및 협력 포함) 선교사와 1000여명의 훈련생 그리고 10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NPWM의 국가별 주요 사역

국가별 선교사 및 선교지별 주요사역과 지원 현황, 그리고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현지인 협력 선교국에 한함).

<표 16> 네팔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Tara Singh (카투만두)	1. 캠퍼스선교를 통한 청년선교 2. Arati사모에 의한 지도자양성이 활발	사역자들을 위한 선교센터건립추진(\$5,000)	1. Maoist와의 국가분쟁으로 인한 국내혼란 2. 선교사를 위한 선교센터 건립시급 3.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 오염/노출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사역자가 필요

<표 17> 말레이시아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Peter Mutang	1. 복음신학교 운영 및 정글선교 활성화 2. 보르네오섬의 미전도 종족위한 지도자훈련 3. 기독교유아학교 설립을 위해 준비중	1. 정글선교를 위한 목선 지원(개당 \$1,000) 2. 밀림 선교지 투입을 위한 제장비 구입중	1. 한국청년들의 정글선교 답사가 활성화 되도록 2. 밀림선교를 위한 제장비 구입이 원활하게 준비 3. 기독교유아학교 설립 4. 보르네오섬의 신학훈련 마친 학생들의 본토적응

<표 18> 미얀마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Gabriel Suan Mung를 중심으로 14명의 파송선교사 사역	1. 5개 신학교운영 (북부2, 중부2, 남부1) 2. 양곤에 신학교 부지 매입 및 기초공사시작 3. 옛수도 Mandaline에서 Piang선교사활동시작 4.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교학력 실력자이므로 순회 부흥회 및 신학교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신학교 설립에 뜻을 두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음	1. 문서선교를 위해 Tuang선교사 수확중 2. 중부중심지에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준비중 3. 양곤신학교 완성지원 4. 선교사들의 전화망구축(현재 50퍼센트도 안됨)	1. 통신과 전산망의 통제를 받는 사회주의 국가의 사역자 23명의 영적투쟁에서 승리하도록 2. 외부와의 접촉이 심한 통제를 받게 됨으로 더욱 더 강한 리더들에 의한 신학육성을 위한 신학교 건립(양곤시 50,000달러)

<표 19> 인도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p>중부 Thomas Kutty, 남부 Titus Ninan (NPWM Bible college and Seminary)을 중심으로 8명의 선교사 사역</p>	<p>1. NPWM 신학교에 현재 65명이 훈련중 2. 방갈로에 있는 4개교회 부흥으로 인한 교회설립 3. 채석장 주민선교 위한 교회부지구입 및 교회설립 (\$5,000) 4. 뉴델리지역 선교사 파송준비중 (Douse) 5. Tandi Randa 선교사의 현지주민선교 활발</p>	<p>1. NPWM 신학교 지원 2. 부흥교회 중심으로 교회 확장 및 부지구입 지원 3. 파송선교사 지원 네트워크 4. 의료품 지원 및 뉴델리 지역 선교센터 준비중 5. 유아교육 기자재 구입 및 놀이시설 지원 6. 신학교 교수요원 지원 7. 현지 교단선교사 및 한국선교사 협력지원</p>	<p>1. 뉴델리 선교센터건립 2. 토마스선교사에게 지속적인 의료품지원 시급 3. 10억 인구를 이끌어 갈 100만의 사역자 지원(50-100달러면 노동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곳임) 4. 현지교회지원을 위한 한국동역교회 500개 총원</p>

<표 20> 인도네시아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p>Jimmy Lumingtang을 중심으로 10명의 선교사가 수마트라 지역으로부터 최남부 Irenjaya까지 선교지를 확장해 가고 있음</p>	<p>1. IKAT 신학교 인가 후 목회학석사과정 준비중 2. ETTC 신학교 졸업생의 증가로 파푸아영역의 선교지확장 활발 3. 수마트라 선교지 개척 Robert Tarigan 신학교 설립 4. IKAT 신학교 본관완공으로 신학교 사역활성화</p>	<p>1. IKAT 신학교 생활관 신축을 위한 재정지원 2. 신학교 본관 기자재지원 3. ETTC 신학교 졸업생 선교후원 및 후원교회 연결 4. 수마트라 선교지확장에 따른 선교비지원 5. 단기선교사 파송지원 6. Irenjaya 선교사 지원</p>	<p>1. 거센 모슬렘의 물결을 이겨낼 튼튼한 신학교가 잘 유지되도록(현재 3개 신학교가 있으며 2개의 신학교가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2. 10명의 젊은 신학생들을 특별 훈련시킬 후원자 (1개월 200달러)를 위해</p>

<표 21> 중국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박춘봉 선교사를 중심으로 5명의 선교사가 활동중	1. 동북부 중심 조선족 및 한족선교 2. 내륙 파송선교사 준비 3. 심양시에 제자학교개설	1. 제자학교 훈련 지원 - 파송선교사와 연결 2. 내륙지방 지하교회 선교지 협력선교추진- 조선족선교사 투입 3. 내륙과 서부지방 지하교회 지도자 지원 4. 비즈니스선교 추진 5. 기관설립(유치원 등)추진	1. 조선족교회에서 양육되고 있는 한족(중국인)지도자들 과 한족교회의 자립을 위해 2. 내륙지방 지하교회 지도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선교를 위해 3. 한국의 비즈너리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4. 기관설립 허가 및 재원 투입이 원활하게 진행

<표 22> 필리핀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Gerardo C. Antinero 선교사를 중심으로 남부 15명, 중부 11명, 북부 8명, 마닐라 18명의 선교사가 필리핀 최북부에서 최남단까지 적극적인 선교활동	1. NPWM 선교센터 완공으로 아시아 선교 중심역할 활성화 2. 민다나오 선교대회를 계기로 민다나오 섬의 적극적인 선교전략 구축 3. 북부 산악 지역의 방송 선교 활성화로 산지 미전도 지역 침투 4. 지역별 세계선교대회를 통한 선교교두보 확보 5. 5개국에서 10여명의 International 신학생들의 훈련과 지원	1. 국제선교센터의 활성화(Vision trip & English world 언어연수원 병행) 2. 민다나오 선교센터 건립 및 의료 선교후원 3. 북부 지역 방송선교 장비 후원 4. 신학생 초청 한국내 지교회별 훈련 및 지원 5. 세계선교대회 진행후원 6. 한국본부와 마닐라본부 네트워크 구축 7. 현지인지도자 훈련	1. 선교센터를 통하여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훈련 받아 선교 동역자로 준비되어 지기를 2. 국제 신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병과 가난과 투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국제신학생 기숙사(약2억)가 긴급하게 필요함 (동남아에서 가장 신학공부하기에 최적의 조건임) -기후, 풍습, 음식 등

<표 23> 캄보디아

대표선교사	주요사역	지원현황	기도제목
현재 필리핀에서 젊은 사역자 10명 신학수업중	1. 우선적으로 10명을 선발하여 필리핀에서 신학수업중 2. 2007년도에는 이중 3명 정도를 현지로 파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선교사 1인당 200달러) 3. 장기적으로 선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1. 선교사후보생 10명 지원 2. 졸업 후 파송될 경우 선교비 전액 지원예상 3. 단기선교팀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4. 현지인선교사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현황	1. 자비량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위해 (농촌지도소, 학교 등) 2. 언어훈련이 이어지도록 3. 10명 선교사후보생 위해 4. 선교센터 건립 및 재원 확충과 지원교회확보 5. 의료선교와 병행되는 단기선교팀 활성화 위해

3. NPWM의 선교 정책의 특징

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는 효과적 선교 정책이다

타국인 선교사의 경우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넘기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 사역자들은 이런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을 대할 수 있어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각성 된다면 몇 배의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90퍼센트 이상이 현지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NPWM은 12개국 중 3개국(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대만)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선교사에 의해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역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나.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선교 정책이다

한국인 사역자의 경우 한달 평균 2,000-3,000달러 정도의 생활비가 소비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인 사역자의 경우 월 200-300달러 정도만 지원해도 생활이 가능하며 매우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첸나이(Chennai) 지역의 변두리 채석장의 경우에 4인 가족이 열대 풀잎으로 만든 움막집에 기거하면서 하루 일당이 미화 1불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다. 토마스 선교사의 노력으로

교회부지를 확보하고, 부모가 채석장에 일하러 간 시간동안 5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살피 주고 교육하는 형태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 40-5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매일 채석장교회를 통해 교육받고 있으나 그 시설과 교보재는 아직 미비한 형편이고, 현지인 사역자 3명을 채용하여 100달러 정도의 지원으로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경비절감과 인력을 위한 투자는 향후 선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선교정책이다

교회가 현지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므로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한다. 실제로 NPWM 소속 지역교회들은 교회마다 약간의 상이한 차이는 있겠으나, 구역별 목장별 지역별 기관별로 현지교회 및 현지인 선교사를 후원하고 탐방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시 효과적인 선교정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교인들과 공유되어지는 해외선교를 실천함으로써 교회부흥의 열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한사람이 기도 없는 열 민족보다 강한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의 시너지효과라고 하는 것은 교회부흥만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업장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지역교회들의 간증이기도 하다.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계선교를 향한 지역교회들의 작은 연합은 참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효시가 될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NPWM의 현지협력 선교는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들의 연합 선교공동체를 조직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부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라. 효과적인 협력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선교정책이다

21세기 한국선교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교단별, 선교회별, 개교회별 사역지에서는 협력선교의 문제이다. 그러나 NPWM의 경우 교단 및 타 선교회와의 공조 내지는 협력 부분에 아직도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현지인과 협력국인 한국 사

이에 원활하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는 어느 선교단체보다도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지인 선교센터 및 한국내 선교사무실의 네트워킹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선교행정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선교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선교비 지원 차원이 아니라 현지인 교회 및 사역자들을 난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지원하는 한국의 지역교회의 희생이 요구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현지인 중심의 현지협력 선교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 NPWM의 선발 및 파송 프로세스

가. 1단계: 현교지 답사

이 사역은 한국 내에 있는 영어권 사역자(신학 전공자)가 해외총무일을 담당한다. 해외총무팀의 주사역은 21세기에는 각 나라마다 부분적이거나 기독교 분포지가 있으므로 그곳 교회나 신학교를 통하여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현지 선교지를 방문하여(월1-2회 정도) 현지 협력 리포트를 리서치하게 된다. 그런 다음 복음사역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면(이단성이 없을 때) 약 일주일간 교제를 갖고 현지 복음 확장에 어려운 점을 보완할 사역 영역을 구체적으로 답사하여 조사한다(예: 신학교인 경우 교수부족, 예산부족 등). 또 한 가지의 정보수집 창고로 다민족 신학 육성이 쉬운(경제적으로나 기후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을 통하여 필요한 각 나라 선교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나. 2단계: 한국교회 지역교회에 정보 나눔

우선적으로 입수된 협력선교(현지사역자 및 선교지역 상황) 정보는 본부 선교사무국을 통하여 정기회, 임시회, 메일링, 서신(유인물) 등을 통해 세계 협력 선교회원 교회(지부 책임자)에게 나눈다. 그런 다음에 나누어진 선교 정보를 갖고 나라마다 관심 있는 교회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 신학생 육성 경우는 현지에 신학교 육성이 잘 안된 나라는 선발하여 선교사후보생을 필리핀에서 초교파적으로 매우 복음적인 신학교에서 신학 훈련 및 위탁 교육하도록 한다. 인도의 경우는 우수한 신학교가 많음

으로 현지에 직접 후원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협력과 파송선교사 등 현지 협력선교의 형태 윤곽이 뚜렷해진다.

다. 3단계: 선교지 방문을 통한 협력

연결되어진 한국교회와 현지 선교 사역자와의 교제가 시작된다. 국내 지역교회에서는 현지 방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직접 그들의 선교현장에 동참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미얀마의 파트너교회인 임마누엘 교회(백양홍 목사)의 경우는 연간 2회 이상의 정기적 선교지 탐방을 10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협력선교가 지속되면서 파트너 교회들의 선교 관심이 고조되고 선교에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선교 후원 헌금도 늘게 되고 협력 선교지도 확장되어져 감을 볼 수 있다.

라. 4단계: 선교사 파송

일정기간(약 2-3년)의 협력 선교기간이 경과되어 파트너십이 견고하게 성숙되면 정 식 현지사역자를 초청하여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파송식을 갖 게 된다. 파송 경비는 파트너 교회가 부담하지만 선교회 교회들이 함께 초청하여 선교 기금 모금에 마음을 모아 돕는다. 파송식은 본부 주관으로 하고, 파송식은 파트너 교회에서 한다. 파송된 선교사는 협력 때와는 달리 선교 후원비를 늘린다(기본 300 달러). 선교사가 파송 받으러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주기도 한다.

마. 5단계: 정기 선교대회

정기적인 NPWM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2년마다)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선교회 소속 지역교회 성도들과 선교 기도와 교제의 장을 준비한다. 또한 각 나라 선교사들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 자립정책을 서로 돕게 된다(선교 박람회). 선교 대회는 10개국 나라를 순회하면서 갖게 됨을 원칙으로 하나 대화가 가능한 나라부터 시작하고 50 퍼센트는 한국의 선교회 소속교회에서 갖는다.

바. 후원 내역

협력일 경우 기본 생활비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노동과 농사일에 전념 하는 사역 자가 많음으로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기본 생계비를 보장하여 준다. 파송 선교사인 경우는 선교비 후원을 돕는다(교회나 신학교 건축, 개척 교회 확장 기금, 교육시설 확장 등).

5. NPWM 현지협력 선교 모델사례

가. 제일성도교회 청년교회와 아이렌자야 에릭 트릿슨신학교(Eric Tritson Bible School, 이하 ETBS)

1994년 필리핀 단기선교 여행 중이었던 청년들이 ATS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우연히 교제가 된 탄디 란다(Tani Handa, 당시 3학년 졸업반) 학생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독교 축출 정책으로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하면서 폐교 위기에 있음을 알리게 되었다. 이에 단기 선교 다녀온 학생들이 청년 공동체에 이 사실을 나누고 ETBS를 위한 특별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한 달에 1000달러씩 후원을 기도 중에 시작하게 되어 결국 폐교 위기를 면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졸업을 앞둔 탄디 란다의 부인 Yuli를 한국에 초대하여 한 달간의 교제시간과 한국교회의 성장 견학을 하도록 돕기도 하였고, 졸업 후 란다 교수가 학장으로 부임되면서 한국에서 배움 새벽기도 운동을 학생들과 함께 시작하여 많은 기도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었다. 매년 5월 졸업식에 청년 담당 사역자가 참석하여 학교경영 협의를 함께하고 졸업생들의 선교와 개척을 돕기 위하여 청년교회 내에 또 다른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선교 후원회가 확장 되어 가고 있으며, 2006년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20여명의 청년회원들이 란다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대륙 횡단을 20여일 하면서 단기선교를 하여 끊임없는 선교 사슬이 어어 지고 있다. 현재 1500달러씩 후원하고 개척교회 설립을 꾸준히 돕고 있다.

나. 임마누엘 교회와 미얀마 선교

1993년 부터 미얀마에서 필리핀에 유학 온 땅 켄 잠(Thang Khen Zam) 신학생

을 7년간 후원하여 목회학 석사 과정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일종의 현지인 선교사 지정후원형태인데, 필리핀 수업 중 한국에 2회 초대하여 교제의 시간과 졸업 후 선교비전을 나누고 미얀마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졸업과 함께 귀국한 잠 목사와 함께 개척 교회 후원하여 대지 구입 및 사택 구입을 완료하였다. 결국 잠 목사가 2년 동안 훈련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3개의 개척교회와 1개의 어린이 선교센터가 시작되었고, 매년 선교회원들이 년 2회 정기 방문을 하여 집중 선교 활동 및 선교 확장을 돕고 있다.

다. 제천 성도 교회(이석원 목사 담임)와 필리핀 팜팡가 지역 선교

1994년 선교회에 가입하면서 연결된 펠리페 실바(Felipe Silva) 목사의 교회를 탐방하여 열악한 교회 건축을 돕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교인들의 선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선교지를 왕래하며 '1가구 1선교사 돕기 운동'이 시작되어 평신도 5명이 100\$-200\$ 씩 돕게 되면서 7개의 선교지가 확장되었다. 선교지 확장과 함께 친밀한 선교 정보를 함께 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의 차남이 필리핀으로 학업을 옮기면서 선교지의 현장 소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급속한 '1가구 1선교사 돕기 운동'의 활성화로 후원 파트너가 대기 중이며 담임 목사의 선교 왕래가 잦아지면서(휴가 및 안식년은 주로 선교지에서 지냄) 교우들과 함께 팜팡가 복음 정복 운동을 진행해 가고 있다.

라. 안산 청암 교회(장정환 목사 담임)와 바기오 선교

1998년 NPWM 단기선교에 참석하여 바기오 산악 지대의 교회 탐방을 통하여 3명의 목사(현지)와 교제하게 되었고, 이육교 파트너가 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다. 매년 한번씩 교회차원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돕고 있다(교회 건축, 차량과 신학 공부 등). 이어서 안산 청암교회에서는 매년 한 사람씩 한국에 초대하여 한 달간 교제의 장을 갖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함께 나누고 선교 후원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 교회는 다른 선교지를 방문할 때 마다 현지 선교사를 추천 받아 현재 필리핀 4명, 미얀마 1명, 인도 1명 등 3개국에 6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현지인 1명의 선교사

를 미국에서 수업시키고 있다. 선교와 함께 교회 부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되어 성도들이 끊임없이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선교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암교회 성도들이 현지를 방문할 때에는 현지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바닷가와 휴가도 함께 즐기면서 한국음식과 현지 음식을 교환하면서 한 가족의 실체됨을 나누는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다.

마. 기타 교회들의 협력

청년들은 거의 여름휴가를 현지 선교지에서 보내는 교회들이 많아 졌고, 특히 청년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 건축을 돕거나 성경학교나 의료 선교에 동참하여 단기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교회 마다 선교를 위한 물품들이 정기적으로 수집 되어 나눔의 삶이 일상화 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2세대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장학을 하고 있음도 매우 고무적이다. 10개국에 언제 어디를 가도 본부의 협조로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부담 없이 방문 할 수 있는 점(공항 영접 및 통역 등)이 단기선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각 나라 선교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특히 필리핀은 수도 마닐라와 민다나오에 NPWM 선교센터(유스호스텔급)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각 나라에 2-3개의 신학교가 있음으로 기숙사 활용이 매우 용이해 졌다.

제 3 절 NPWM의 현지협력 선교 지원전략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NPWM의 현재 사역으로는 국가별 선교사 파송 및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교사 중 일부는 한국인 선교사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김광중 선교사, 중국에 주성구(연미희) 선교사, 다니엘 김(그레이스리)선교사, 파키스탄의 채숙향 선교사, 우르과이에 차재홍 선교사, 브라질에 이종원(조문희) 선교사, 대만에 서호풍(윤진아) 선교사 등 파송 및 현지 선교사 100명 중 11명으로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²⁷⁹⁾ 파송선교사라 할지라도 선교회의 선교방침은

279)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사 3명의 이름은 보안상의 이유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선족 선교사로서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국인선교사 명단에는 제외하였다.

‘현지인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NPWM의 파송 선교사들 역시도 선교대상이 분명하고 명확하다 할 것이다. NPWM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7가지의 현지협력 지원전략을 구현하고 있는데²⁸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교사의 선발과 훈련으로 선교후보 선정은 선교사가 오랫동안 관계해 온 필리핀 ATS 등 각국 신학교 출신의 목회학 석사와 그 이상의 소지자로(NPWM 신학교 포함) 현지 협력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자로 제한하여 선발 하고, 선발된 후보생을 재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1,000여명에 가까운 현지인 선교 후보생을 확보한 상태이며 매년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⁸¹⁾

둘째, 선교사의 파송과 지원으로 1992년 설립된 이후로 한국인 선교사의 파송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현지인들을 선발, 양육, 파송, 지원하여 선교사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현지 선교사들 및 기관과의 협력선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총회(GMS) 파송 선교사들과의 현지인 선교 및 교회개척, 신학교 교수사역 등 실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1년 ‘세계현지협력선교회 주관 제1회 세계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현지인 선교사들의 파송과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²⁸²⁾

셋째, 현지교회 개척과 지원으로 1992년 인도 벵갈로에 2개 교회를 건축한 것으로 시작하여 미얀마와 중국, 필리핀 등에 30여개의 교회를 설립했다. 교회설립은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교회 내 남녀전도회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청년교회, 영어예배부 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선교교육 차원에서의 현지교회 지원을 교육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교육으로 정책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교회를 우선적으로 ‘비전트립’을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바 선교의식 고취와 사명감 함양에 그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지교회에 선교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과 해외 현지에서 번갈아가며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개인 혹은 가정별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전 교회적인 차원의 선교교육에 많은 유익이 되고 있다.

280) 2005 세계현지협력선교회 제14회 정기총회 자료, 정관 17쪽을 보라.

281) 제일성도교회 선교위원회, 교회창립 35주년 기념 선교지 파송, 2005년 창간호, 18.

282) 2001년 5월 24일-25일 양일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로 제일성도교회에서 제1회 선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선교사 파송식에 한국인 1명과 현지인 9명(총 10명)이 새로 파송되었다.

다섯째,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관설립과 운영으로 2004년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NPWM 세계선교센터'를 봉헌하고, 선교사 재교육 및 비전 트립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에 또한 선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선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섯째, 선교관계 문서 발간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계간지가 있으며, 선교활동 보고 및 선교편지 등을 담은 신문이 발행될 예정이고, 각 국 선교사들의 선교보고 및 소식편지는 지교회로 해외총무를 통하여 발송되고 있다.

일곱째, 기타 해외 선교에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정기적인 단기선교 및 선교지 방문시, 국내 선교교육을 위한 자료구비, 현지협력 선교방문교육, 세계선교대회, 선교사 리트릿 등 해외선교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이렇게 세계현지협력선교회는 14년이라는 짧은 여정 속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현지인 선발과 파송'은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현지 선교대회' 유치 확대 실행을 통해 100명의 자국민 선교사, 1000명의 현지인 선교사 파송의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제 4 절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에 관한 제안

이상의 지난 14년간의 현지 협력선교에 대한 경험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하여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며 적어도 이 방면에 현지 협력선교를 꿈꾸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현지협력선교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이며 전략이고 선교사역자들의 삶인 것이다.

첫째, 정책 수립의 필요성으로 21세기 선교는 양이 아니라 질에 의해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 각 교단 및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 하에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교단 및 선교단체의 본부에서 선교지 특성에 맞는 일반적인 선교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선교현지에서 선교사와 현지의 지도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각 선교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나라 국민성에 맞는 제자양육의

방법과 교회 개척, 자립 정책 등을 성경적이면서, 이론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 그리고 어느 교회, 누구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 개척으로 먼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복음적인 교단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현지 기존 교회를 현지인에 의해 세워 나가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있는 교회나 일꾼들과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한 교단과의 갈등 가능성이 높으며, 전도하여 자체적으로 양육한 일꾼이 없으므로 기존 교인 혹은 저들에게서 문제가 있어 탈락한 경우일지라도 기존 교회나 선교단체에 일꾼과 교인을 빼앗긴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이것은 현지교회를 세워 주는 일보다는 교파를 새로 만들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어 전도에도 간접적인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도자 양성 및 지도력 이양으로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결국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이 지도자 개발을 위한 사역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정책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보통 지도자 양성이라는 것이 교단 및 현지선교 협력체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선교사가 임의적으로 개종한 현지인 중 열심히 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어 교육시키거나 교회를 선교사가 개척한 후 기존의 신학교에서 사람을 데려와 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경우는 선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신학교육을 통해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선교사가 철수하는 경우에 교회가 문을 닫거나 현지인 동역자와 문제가 생길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각 교단 및 선교단체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현지 선교지도자를 한국의 신학교로 유학시켜 공부시키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폐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처음 현지 교회에 대해서 부모역할을 하던 선교사의 리더십을 현지지도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선교사 개인에게 모든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유혹이 따를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부 및 현지선교부의 지도아래 지도력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재정 정책의 명확성으로 재정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교사역의 성공여부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지교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의 많은 부분이 재정적인 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개척 단계 및 협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협력관계가 깨어지거나 현지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지교회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회가 세워짐으로서 발생하게 된 재산권, 즉 부동산 및 차량 등 동산의 명확한 이양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력 방법의 다양화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단간 협약을 맺는대거나 현지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현지교회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필요로 하는 사역을 선교사의 은사나 전문성에 따라서 감당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요즘 강조되고 있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협력의 경우는 현지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게 되므로 교회를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되며 현지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보강해 주어 교회 부흥과 질적 성장을 돕게 된다. 하지만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원교회들의 관심이 저조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선교 협력의 인프라 구성으로 현지교회와의 효과적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선교부 및 선교단체들의 협력이 우선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협력, 선교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협력하지 못할 때 신학교 등이 난립하게 되고 그것은 곧 현지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

일곱째, 현지교회의 선교적 사명감 고취로 선교사들이 본국에서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선교지의 약한 면만을 보고 그들에게는 선교의 사명감을 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선교사역에 있어서 재생산이 없으면 결국 선교사가 떠난 후 자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선교사 및 선교정책은 현지교회가 재생산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자국 내의 타지역 교회 개척 운동에 힘쓰게 할 뿐 아니라 자국 내의 타부족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타문화권 선교에까지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교회와 한국선교사(단체)간의 복음화를 위한 세미나 및 선교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외에도 현지교회와의 효과적인 협력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선교정책에 있어서 현지교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토착화에 대한 인식 및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제 7 장 결 론

순더마이어(T. Sundermeier)는 “교회는 인간존재와 같은 피조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²⁸³⁾ 이 말의 의미는 피조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으며 자신을 창조하신 그 분으로부터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본질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데 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교회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잠정적인 수단적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여 교회의 본래 목적인 선교사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개혁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 2세기에 접어든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혹은 해외 선교는 서구 선교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교 초기부터 연합과 협력의 사역으로 세계 선교 역사상 기록적인 성과와 업적을 창출해 왔음은 이미 세계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별히 단일 문화권이라는 한계에서도 타문화권 선교의 기여도는 기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교회의 선교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선교 협력의 문제이다. 물론 오늘의 한국 선교가 있기까지 교단 선교와 개교회 중심의 선교 과정에서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1세기의 험난한 선교 현장을 향한 한국 교회는 경쟁적 선교와 인적 물적 자원의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등으로 지적되어 온 그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협력 선교의 신학과 정책,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선교도 많은 변모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선교사역이 확장

283) Teo Sundwemeier,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선교와 대화,” 이후천 역, *신학사상* 107집 (1999), 121.

되고 성장됨에 따라 더욱더 다양한 면모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지교회와의 협력이라는 주제는 현지인들에 의한 자생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현지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에게, 나아가서는 어떻게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화 되어 왔다.

사실 한국교회의 교단 및 선교단체들은 현지교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정책이 동반자 선교, 토착교회 설립, 현지인 및 교회와의 관계, 교회개혁 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협력의 범위 및 분야는 모든 단체가 다 현지 지도자 개발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양하지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운영이나 지도자 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지교회와 더욱더 효과적인 협력사역을 위해서는 지도력 개발 및 이양의 문제, 재산권 이양의 문제, 국내본부 선교부와 현지선교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의 과제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각 여러 단체들의 사역의 초점은 주로 지도력 개발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곧 현지교회가 자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현지교회 협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교회 구조적으로 선교 내부의 협력 풍토가 조성되는 것도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패러다임은 패권주의적인 물량주의적인 태도를 벗어나 자신을 비우고 겸허한 자세로 현지 주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의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는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지양하고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칼한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그동안 NPWM는 현지 협력선교에 대하여 즐겁게 참여하여, 함께 후원하고 협력해 온 좋은 모델이 된다고 본다. NPWM의 선교 현지 지역교회에 대한 철저한 현지인 중심의 훈련과 지원, 선교사 파송과 겸손하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세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잠재력을 묶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력화 하는데 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선교회의 역사는 짧지만 대내외적으로 NPWM은 비전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네트워킹하고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훈련과 선교후보생을 양육하게 될 50개의 선교센터와 파송선교사 500명과 현지인 선교사 5,000명 양성을 목표로 철저한 현지인 중심의 협력선교

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교센터 및 신학교를 중심으로 선교 교두보를 확보하며, 보다 견실한 현지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국내 선교사후보생과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지역교회별로 더 많은 개미군단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현지교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선행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세계선교대회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그리고 선교현장을 수십 수백차례 방문하면서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아직도 추수할 영혼은 너무 많고 정복할 땅도 너무 많은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며 비록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면이 없진 않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기독교 절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도전,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한 인간 중심주의와 세속주의의 도전, 기독교 유일성에 대한 타종교의 도전, 종교 간의 갈등과 종교 다원주의 사상의 확산, 급변하는 21세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의 변화 속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과 파송교회와 교단이 마음을 동이며 겸손하게 현지인(현지교회)과 함께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할 때 한국교회는 죄악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깨어진 사회와 분열된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선교의 과제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웨슬리 듀엘(Wesley L. Duewel)의 말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 서로간의 의사 전달을 강조하고, 몸의 지체로서 기능들을 서로 인정하며 이용하고 몸의 몇 개의 지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며, 우리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협력하여야 한다.²⁸⁴⁾

284) Wesley L. Duewel, “기독교의 일치: 성경적인 기초와 실제적인 발전,” *에큐메닉스*, 386-388.

부록

설문조사지

■ 설문 응답자 정보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지역

- ① 서울, 인천, 경기 ② 대전, 충청 ③ 광주, 전라
④ 부산, 대구, 경상 ⑤ 강원 ⑥ 제주 ⑦ 해외, 기타

출석교회

- ① 100명 이하 ② 100-300명 ③ 300-500명 ④ 500-1,000명 ⑤ 1,000명 이상

성별

- ① 남 ② 여

직 분

- ① 목사 ② 강도사/전도사 ④ 장로 ⑤ 권사 ⑥ 안수집사 ⑦ 서리집사 ⑧ 평신도

1.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목회자의 선교적 지도력은 어떠합니까?

- ① 선교에 거의 관심이 없다. ()
② 선교에서 지역교회의 역할과 목사의 지도력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
③ 설교에서 가끔 언급하는 정도이다. ()
④ 교회에 선교위원회를 두고 선교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⑤ 선교에 봉사하도록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어 대부분의 교인이 이제는 어느 면에서든지 선교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무장시키고 있다. ()

2.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에 선교위원회가 세워져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선교위원회가 없고 선교사업이 목사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교회가 선교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
③ 선교위원회가 세워지고 일반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
④ 선교위원회가 성문화된 선교규정(회칙관리)을 가지고 있다. ()
⑤ 적어도 선교위원회의 절반이 선교연구원 등을 통해 훈련을 받았다. ()

3.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성문화된 선교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교회가 성문화되지 않은 선교정책의 기반 위에서 활동한다. ()
 - ② 성문화된 선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
 - ③ 몇 가지 정책이 중요 이슈를 위해 성문화되었다. ()
 - ④ 완전히 성문화된 선교정책이 개발 중에 있다. ()
 - ⑤ 선교사업이 매년 검토되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
4.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장기적인 선교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선교목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
 - ② 몇 가지 일반적인 선교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 ③ 몇 가지 특별한 목표가 계획, 기도, 예산, 새회원 모집 등에 설정되어 있다. ()
 - ④ 목표는 충실히 추구되고 매년 평가된다. ()
 - ⑤ 장기계획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5.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선교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선교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 ② 교회가 가끔 선교에 대한 교육을 가진다. ()
 - ③ 선교에 대한 자극이 매년 모임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유지된다. ()
 - ④ 선교교육 자료가 이용가치가 있으며 또 사용되고 있다. ()
 - ⑤ 선교교육 과정이 전체적인 교회 프로그램과 조정되어 있다. ()
6.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어느 정도의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교인들이 선교의 사명을 약간 인식하고 있다. ()
 - ②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있다. ()
 - ③ 정보와 기도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교회의 비전이 확대되고 있다. ()
 - ④ 교회가 세계적인 비전과 전략의 기반 위에 직원과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
 - ⑤ 교회가 불타는 기도와 함께 현금 및 인적자원을 증가시키며 할당하고 있다. ()
7.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집과 목양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선교활동에 대한 고취가 없다. ()
- ② 선교활동에 대한 고취는 있으나 모집, 양육, 파송 같은 효율적 단계가 없다. ()
- ③ 교회가 짧은 기간이나 또는 다른 선교봉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 ④ 교회가 선교봉사를 향한 제자훈련과 상담학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 ⑤ 교회가 자기 교인 중에서 발굴하고 격려하고 파송한다. ()
8.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선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 ① 교인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선교사들과 관련이 없다. ()
- ② 교인은 자기 선교사를 알고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성을 인식한다. ()
- ③ 대체적으로 교인은 자기의 선교사들과 간헐적인 연락을 갖는다. ()
- ④ 교인들이 사역기간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을 돌보도록 고무되고 있다. ()
- ⑤ 교회가 선교사들을 현장에 찾아가 격려하며 기도한다. ()
9.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교회 전체예산의 5퍼센트 정도가 선교에 쓰여 진다. ()
- ② 교회 전체예산의 10퍼센트 정도가 선교에 쓰여 진다. ()
- ③ 교회 전체예산의 20퍼센트 정도가 선교에 쓰여 진다. ()
- ④ 교회 전체예산의 30퍼센트 정도가 선교에 쓰여 진다. ()
- ⑤ 기타 구체적으로 (퍼센트) ()
10.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는 몇 명의 단독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 ① 교회는 단독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다. ()
- ② 교회는 단독선교사를 1명 파송하고 있다. ()
- ③ 교회는 단독선교사를 2명 파송하고 있다. ()
- ④ 교회는 단독선교사를 3명 이상 파송하고 있다. ()
- ⑤ 기타 구체적으로 (명) ()
11.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의 선교사 지원현황은 어떠합니까?
- ①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
- ② 현지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
- ③ 두 가지를 다하고 있다. ()
- ④ 기타 구체적으로 0 ()

12.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부딪히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선교에 대한 인식 부족 ()
- ② 선교에 관한 정보 부족 ()
- ③ 재정적인 면의 부족 ()
- ④ 기타 구체적으로 () ()

13. 귀하는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도와 같은 것으로 그 대상이 국외일 뿐이다. ()
- ② 교회가 할 수 있는 국외 사회참여와 봉사이다. ()
- ③ 타문화권 전도와 봉사이다. ()
- ④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다. ()

14. 귀하는 교회성장과 선교와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본다. ()
- ②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본다. ()
- ③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
- ④ 해외선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

-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승삼, "선교사와 교회와 교단 간의 유기적 관계," *미션월드*, 1994년 1, 2월호.
- _____, "선교현장의 파트너십," *세계선교* (1999).
- _____, *선교행정과 전략*, 강의안,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5.
- 기독교문사, *기독교 대연감*,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_____, "동역자," *기독교대백과사전* 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김명혁, *신앙과 현실*,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_____, *동반자 선교*, 서울: 엠마오, 1988.
-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신학협회, 1984
- 김상복, *구소련선교핸드북*,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김세운, *신약성경신학*,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05.
- 김영동, "인식론이 선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2000).
- 김영애, "개교회의 선교현황과 문제점 연구," 선교학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4.
- 김영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아신* 5집 (1990).
- 김정음, *선교사와 현지교회의 협력*, 서울: IVP, 1996.
- 김중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한 해방과 자유의 의미*,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1996.
- 남전우, "선교 단체에서 바라보는 교회," *목회와 신학*, 1990년 6월호.
- 노봉린, "세계선교 현황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한국 교회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햇불, 1993.
- 도문갑, "선교의 주역-교회인가? 선교 단체인가?"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89.
- 문상철,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 *현대선교* 1, 1992.

- 박광철, *이렇게 선교하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박상혁, *복음과 공동체*, 목회와 신학, 2001.
-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 박종구, *세계선교 그 도전과 갈등*, 서울: 신망애, 1994.
- 방선기, "교회 성장 운동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 배운호,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미션월드*, 1991년 2월호.
- _____, "지역교회와 선교 정책," *미션월드*, 1991년 8월호.
-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 서성민, *한국장로교회의 선교협력*, 서울: 세계선교연구원, 2002.
- 서정운, "초대교회의 선교," *빛과 소금*, 1986년 6월호.
- _____,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성기호, "교회의 사명과 복음 선교론," *목회와 신학*, 1991년 12월호.
- 성서교재간행사, *그랜드종합주석 14: 로마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4.
-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1.
- 송용조, "성령과 선교," *선교와 신학*, 1998.
- 신홍식, "세계 선교를 걸머진 한국교회," *미션월드*, 1991년 10, 11월호.
- 신현종,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산경연구* 제6집, 1998.
- 안영권,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전략 모색*, 아신 6집, 1991.
- 염두철, "해외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구조 갱신의 방안,"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 연구원, 1992.
- 육한흠, *교회의 순수성과 연합운동*, 서울: 엠마오, 1988.
- 유효명, "평신도 선교지도자와 협력방안," 제2차 민족과 세계복음화 회의 자료, 서울,
1995.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강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서울: 두란노서원, 1991.
- 이광순, *선교의 특수성과 보편성*,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0.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이동주, "종교혼합주의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18권, 서울: 두란노, 1997.
- _____, *현대선교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이동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월간 선교 21세기*, 1994.
- 이용원, "바울과 선교." *선교와 신학*, 1998.
- _____, "빌링겐에서 나이로비까지." *선교와 신학*, 1999.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 이종윤, *한국 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서울: 엠마오, 1983.
-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1.
- 이태응, "교회와 선교 단체, 뿌리와 줄기." *목회와 신학*, 1990년 6월호.
- 이형기, "교회성장과 에큐메니칼 운동." *선교와 신학* 제3집, 1999.
- 장종열, *교회 선장과 선교학*, 서울: 두란노서원, 1989.
- 전재욱, "한국 교회의 선교현황과 선교 전략." *빛과 소금*, 1988년 1월호.
- _____, "타문화권 선교의 현황 분석과 교회적 지평." *한국교회 2세기의 과제: 예배, 설교, 선교*,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편, 서울: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1.
- _____, "세계선교와 종교다원주의."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8권, 서울: 두란노, 1997.
- 정민영, *선교사들 및 선교 단체들의 협력*, 서울: IVP, 1996.
- 정인수, "기독교 21세기 운동이란?" *기독교 21세기*, 1994년 3월호.
-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 채은수, *선교학 총론*, 서울: 기독지혜사, 1991.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교회의 비전과 협력*, 서울: 햇볕, 1993.
- 한국일, "증언과 대화 기독교와 타종교의 대화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제7집, 2001.
-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0.

2 번역 서적

- Barclay, William, *바울의 인간과 사상 (The Mind of St. Paul)*,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7.
- Blau, Johannes,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옥, 전호진, 송용조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 Bosch, David J. *선교신학 (Witness to The World)*, 전재옥 역, 서울: 두란노, 1989.
-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김철순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2.
- Gran, Alvin R. *교회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Glasser, Arthur & Donald McGavran, *현대선교신학*, 고훈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Herbert, Terry, *오늘의 세계 선교*, 윤혜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Hogg, W. Richey, *에딘버러 1910-1930년 전망*,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Jeremias, Joachim, *선교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정충하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 Kane, J. Herbert, *기독교 세계 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_____,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민영홍 역,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0.
- Lane, Dennis, *선교사와 선교단체*, 도문갑 역, 서울: 두란노, 1993.
- Padilla, C. Rene, *통전적 선교 (Mission Integral) 1*, 홍인식 역, 서울: 나눔사, 1994.
- Popper, Karl R.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이한구 역, 서울: 믿음사, 1997.
- Scott, John R. W. *로마서 강해 (The Message of Romans)*, 정옥배 역, 서울: IVP, 1996.
- Sundermeier, Theo,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Snyder, Howard,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Thomson, Robin, *세계 선교 출발*, 이득수 역, 서울: IVP, 1991.
- Tucker, Ruth A. *기독교 선교사 (From Jerusalem To Irian Java: A Biographical*

-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Wagner, Peter, *기독교 선교 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Young, John M. L. *선교의 동기와 목적*, 김진홍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3. 외국 서적

- Beyerhause, Peter, *Mission: Which Way?*, Grand Rapids: Baker, 1974
- Boer, Henry R. *Pentecost and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61.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83.
- Bright, John, *The Kingdom of God*, Nashville: Abingdon, 1987.
- Bruce, F. F. *The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 Bush, Luis, *Getting to the Core of the Core: The 10/40 Window*, San Jose: Partnership International, 1990.
- _____, & Lorry Lutz, *Partnering in Ministr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sm*,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0.
- Costas, Orlando,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74.
- Fuller, W. Harold, *Mission-Church Dynamics*,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0.
- Glasser, Arthur F. &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Hokkendijk, J. C.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 Kuiper, R. B. *God Centered Evangel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Latourette, Kennet S.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5.
- Mellis, Charles J. *Committed Communities: Fresh Streams for World Mission*,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6.

- McGavran, Donald A.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Neill, Stephen. *The Church and Christian Un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Pate, Larry D. "The Dramatic Growth of Two-Third World Mission," in *Internationalizing Missionary Training: A Global Perspective*. Edited by William D. Taylo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 Russell, Letty M. *Growth in Partne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 Scherer, James A. *New Directions in Mission and Evangelization*. Basic Statements, 1974-1991.
- Scott, R. W. John. *Personal Evangelism*. Downers Grove: IVP, 1964.
- _____.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5.
- _____.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0.
- Snyder, Howard A. *The Community of The King*.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7.
- Taylor, William D. *Kingdom Partnership for Synergy in Missions*.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4.
- Verkuyl, J.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Publisher Company, 1987.
- Wagner, Peter C. *Frontiers Missionary Strategy*. Chicago: Moody Press, 1971.
- _____.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1.
- _____. *Church/Mission Tension Today*. Chicago: Moody Press, 1971.
- _____. *Stop the World I Want to Get on*. Glendale: Regal Books, 1974.
- _____. *On the Crest of The Wave-Becoming A World Christian*. Venture: Regal Books, 1983.

- Warren, Max, *Partnership: The Study of an Idea*, London SCM Press, 1956.
- White, Jelly, *The church and the Para Church: An Uneasy Marriage*, Portland: Multnomah Press, 1983.
- Winter, Ralph D. *The Two Structure of God's Redemptive Mission*,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1.
- Winter, Ralph D. & S. C. Hawthorne, eds, *The Two Structure of God's Redemptive Mission: Perspective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1.
- Yong, K. Riew, "The Theology of Mission Structure and It's Relations to Koreas Indigenous Student Movement," D.Min. diss., Fuller School of World Mission, 1985.

Vita of
Jin Soo Hwang

Present Position:

Director of Native Partners for World Mission
Senior Pastor of The First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September 18, 1941
Marital Status: Married to Kyung Ja Kim
with 3 Children, Sookyung, Kyungjin, Esther
Home Address: 98-344 Shillim # 2 KwanAkku, Seoul, Korea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June 18, 1972

Education:

B. A.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1971
M. A. Sweet Water Bible College, Grendale, 1983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4
D. R. E. Faith Theological Seminary, Tampa, 1992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6

Personal Experience:

1970 to present Senior Pastor
of First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Korea